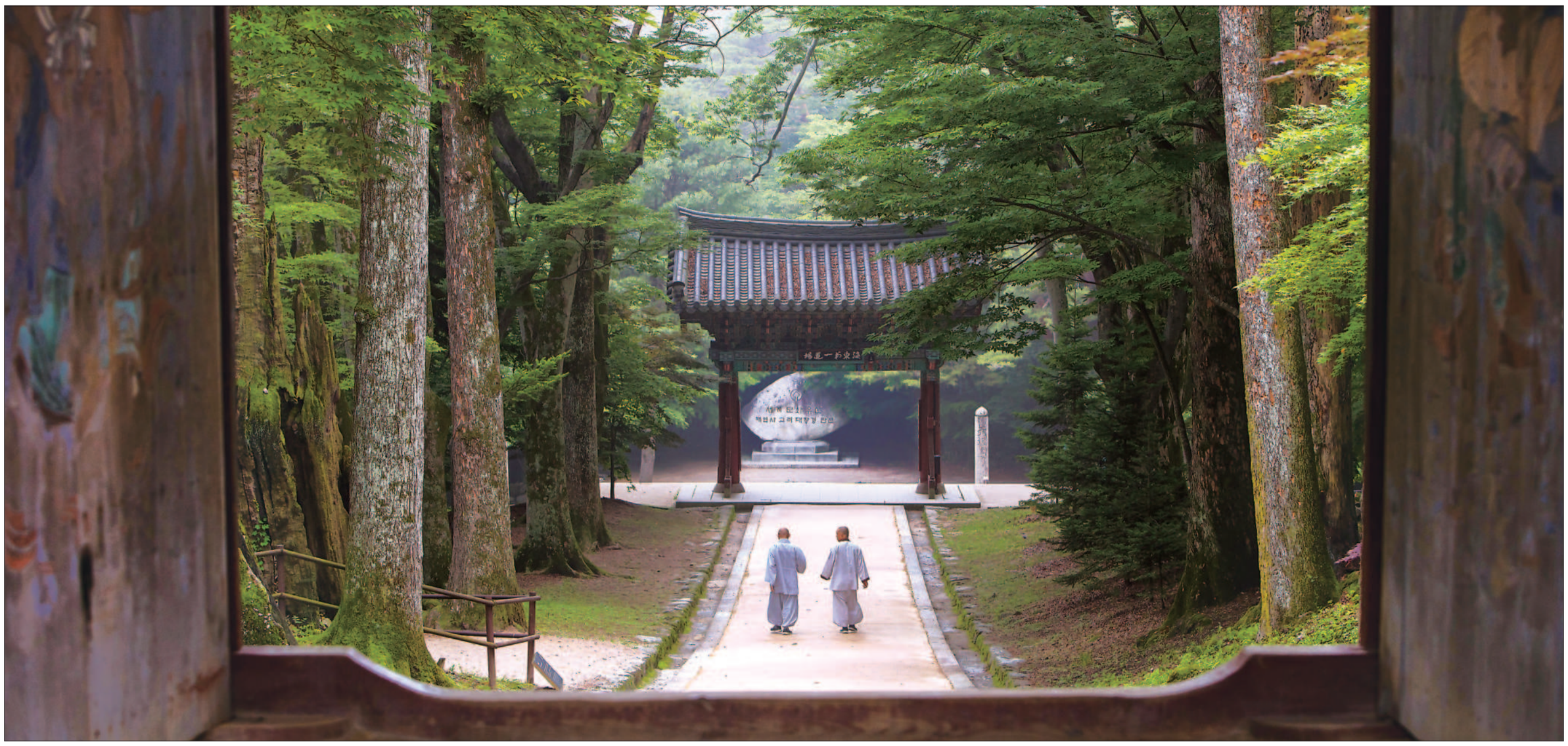
“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31
창간 31주년
1994~2025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0호 HYUNBULNEWS.COM 2025년 10월 15일(음력 8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산문 밖, 새 시대로 나아가다

문이 열리면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31년 전 창간의 문을 연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라는 새 길을 걸어왔다. AI시대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다시 미래를 향한 문을 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다. 멈춤 없이 이어지는 그 길 위에서, 불교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하지권 작가

본지 홈페이지 개편
언론윤리강령 제정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독자 친화적인 뉴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언론윤리강령과 게시판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현불뉴스(www.hyunbulnews.com)는 기사 제목과 사진 노출도를 강화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 주요 코너인 와이드 인터뷰 ‘화엄만다라’와 필진들의 ‘테마연재’를 상단에 배치해 다양한 읽을거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는 기사 노출량을 늘이고 화면 구성을 단순화해, 불교계 주요 현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은 AI시대에 필요한 ‘디지털·영상콘텐츠 윤리’ 항목을 신설해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는 등 시대적 요청을 반영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와 SNS를 아우르는 온라인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게시판 운영 원칙을 개정함으로써 자비와 상생의 정신에 기반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언론의 신뢰성과 윤리를 강화하고, 독자와 함께 만드는 건강한 불교언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본지 임은호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 수상

임은호 현대불교신문 기자〈사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불교의 모습을 조명한 기획 보도 ‘無장애 불교’로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언론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無장애 불교’는 사찰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불편하다는 인식을 낮추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소개했다. 또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모범 사찰을 조명하고, 이웃 종교 사례와 비교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상세히 보도했다.



사회적 약자 배려한 ‘無장애 불교’ 주제 오는 11월 12일 시상식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일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불교의 참모습을 널리 알린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불교언론문화상에는 2024년 8월 30일부터 2025년 9월 2일까지 발표된 방송·신문·뉴미디어 분야 총 54편이 접수됐다. 운영위원장 덕안 스님(총무원 미디어홍보실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와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BS부산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5부작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방송부문에는 KBS 다큐온의 ‘봉녕사 수행일기’가, 라디오부문에는 MBC의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님과 함께 영혼의 바캉스 특집’이, 언론보도부문에는 BTN의 BTN뉴스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가, 뉴미디어부문에는 유튜브 마음 울리는 선율과 지혜의 ‘천수경 뮤직비디오’가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임은호 기자의 ‘無장애 불교’를 비롯해 우수상 3편과 특별상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언론인상은 류지호 (주)불광미디어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1월 12일 오후 6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된다.

김내영 기자

창간 31주년 특집호
A·B섹션 44면 발행

창간특집
특별대담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A4



AI&미래불교 B1 · 2 · 3 · 5 · 6 · 7 · 10 · 11



기획특집
한마음과학원 제10회 국제학술대회 A13
명상 국제컨퍼런스 A18 · 19
화엄만다라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 A11

현대불교신문 캠페인 | ‘불교’로 답해요
2025 인구주택 총조사

우리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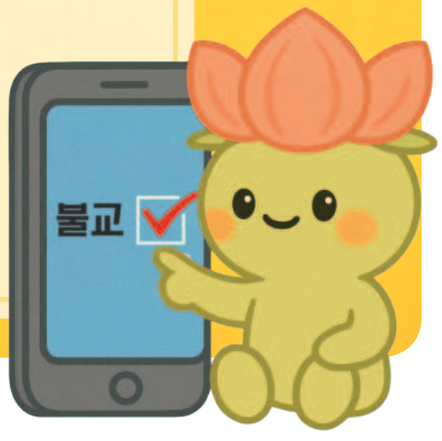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 문항은?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행됩니다.
(*전국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조사 예정)

향후 10년간 한국 종교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종교’ 문항 조사! 신자들의 적극적인 응답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매주 정기법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아직 재적사찰이 없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우리 모두 ‘불교’ 신자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불교’ 신자임을 알려주세요!

태고종, 광화문서 영산재·국제수계법회 연다

11월 8일 광화문 육조광장서
1만여 대중 운집해 수계 진행
역량 총집결, 위상 변화 기대
"수계는 참회…보살도 이루길"
문화 공연, 체험활동 진행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10월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 태고종 영산재 · 국제수계법회' 봉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면서울시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재를 봉행해온 태고종이 올해에는 국제수계법회를 더해 대규모 법석을 마련한다. 종단 역량을 총집결하는 이번 행사는 상진 스님 취임 이후 변화된 태고종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형 법석이 될 전망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 봉행 계획 등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총무원 재경부원장 영범 스님과 태고전승문화사업단장 지허 스님이 배석했다.

이날 상진 스님은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전통종단인 태고종의 정통성을 대외에 알리기 위한 법석인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8일 오후 1시 광화문 육조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전국 태고종도와 일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석으로 진행된다. 이는 태고종이 지난 20여 년간 진행한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수계법회는 국내외 선지식과 태고종도, 국내외 불자, 시민, 다문화 가족까지 폭넓게 참여한다. 법회에는 해동율맥 수진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이 갈마아사리를, 호법원장 구산 스님이 교수아사리로 참여하며 중국과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북미 등 7개국에서 방한한 스님들이 칠증사로 함께 한다.

상진 스님은 "대전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10만 관등법회, 독립기념관 개원 법회 등 30여 년 전에는 태고종이 한국불교 대규모 행사를 봉행해왔다"면서 "이번 영산재·국제수계법회는 종단 위상 변화와 발전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석의 원만 진행을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태고종도들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허 스님은 "이번 법석은 총무원장 스님의 발원과 원력으로 시작됐다"면서 "행사를 통해 우리 종도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종사이운을 시작으로 본식, 수계법회, 영산재 시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법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사이운은 "다른 종단에서는 할 수 없는 전통의례로 여법하고 장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상진 스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태고종은 종단 신도가 아니더라도 수계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불교문화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에 있다.

더불어 상진 스님은 "참회하는 삶을 살아 보살이 되기 위해서 수계를 받으라"고 권선했다. 스님은 "수계는 참회"라며 "1년 동안 지은 업을 이번 수계법회에서 참회하고 하루만이라도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는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진 스님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일체 사실 무근이며 이는 태고종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님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간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돌이켰는데 의혹이 나올 만한 언동을 한 것이 없다. 명단 같은 것은 넘기지도 않았다"면서 "진 의원과 종단 명칭을 아무런 검증과 팩트체크도 없이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태고종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신중일 기자**

중앙종회 직능·백양사·직지사 후보자 확정


성화 스님 현민 스님 일감 스님 법주 스님 법공 스님 성진 스님 보륜 스님

선관위, 9월 29일 자격심사
후보자 전원 '이상 없음' 결정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가 중앙종회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성화·현민·일감 스님(직능대표 선원분야)과 법주·법공·성진 스님(백양사), 보륜 스님(직지사)에 대해 자격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9월 29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회의실에서 제422차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직능대표 선원분야 보궐선거는 성웅 스님의 총무원 총무부장 임명에 따라 치러진다. 선거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성화 스님, 서울 호압사 주지 현민 스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후보 등록했다. 최종 선출은 10월 15일 오전 10시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이뤄진다.

10월 16일 오후 1시 백양사에서 치러지는 제18교구본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법주·법공·성진 스님에 대해서도 자격 이상 없음이 결정됐다. 만당 스님의 원적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완도 신흥사 주지 법주 스님과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공 스님, 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이 출마해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직지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직지사 부주지 보륜 스님이 단독 출마했다. 묘장 스님이 총무원 기획실장에 임명되면서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다. 보륜 스님은 이날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이 결정됨에 따라 10월 16일 열리는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은해사 종회의원에 세림 스님 2표차 당선

10월 2일…용주 스님 40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덕사 주지 세림 스님이 당선됐다.

세림 스님〈사진〉은 10월 2일 오후 1시 은해사에서 열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총 42표를 얻어 40표를 받은 거동사 주지 용주 스님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됐다. 무효표는 3표.

앞서 중앙선관위원회는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를 95명으로 확정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2명의 분담금 납부 등이 해결되면서 최종 97명으로 확정됐다. 이중 85명이 투표했다.

세림 스님은 불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7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총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5일 개원

9월 30일, 제13차 연석회의
종정감사–내년 예산안 심의
천주교 특별법·종교편향 논의

2026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다룰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19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9월 30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건접수 마감일은 10월 29일, 종책질의 마감일은 10월 31일이다. 다만 정기회가 열릴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기회에서는 불기2570(202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비롯해 제235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호계위원 관련 종헌 개정안 2건과 관련 종법 개정안 2건, 사찰법 개정안,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또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에 이어 소청심사위원장과 소청심사위원·법규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 종정감사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2027 제41차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3건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독교 편향 발언에 대한 중앙종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불교계를 방문해 합장을 하지 않은 것은 종교 신념으로 차치하더라도, 다종교사회에서 제1야당 대표가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종교편향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교계가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위는 장 대표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민의힘에 보냈지만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2027 천주교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에 대해서도 선광 스님은 "강경 대응으로 철회된 줄 알았던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이 확인됐다"며 "내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만큼 불교계 전체가 민감하고 신속하게 저지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서명운동, 성명 발표 등 가시적인 활동을 통해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움직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는 10월 15일 오후 3시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회 주요 현안과 장동혁 대표 관련 대응 및 천주교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02.768.8500 / www.jogyesa.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동국대 새 랜드마크 '로터스관' 건립불사 첫 삽

9월 30일 혜화문 앞서 착공식
돈관 스님 "동국 미래 밝힐 것"
본관 · 별관 2개동 8007평 규모
박물관 등 구성… 2028년 완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는 9월 30일 교내 혜화문 앞 특설무대에서 착공식을 열고 '로터스관' 건립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주요 내빈들이 시삽을 하는 모습.

조계종립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불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9월 30일 교내 혜화문 앞 특설무대에서 착공식을 열고 로터스관 건립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로터스관 신축은 지난 2012년에 남산공원 구역이 해제 된 후 동국대가 추진해 온 불사다. 2018년 학교법인 동국대 제315회 이사회에서 신축사업이 승인된 후 답보상태였지만, 지난 3월 제360회 이사회에서 로터스관 신축사업이 변경 승인되면서 건립불사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5월에는 실시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감리업체와 시공업체들이 선정됐으며 9월에 착공신고가 완료됐다.

로터스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2422평), 별관은 지하 6층 지상 2층(5585평)으로 연면적 합계 2만6470㎡(8007평) 규모다. 시설로는 △박물관 및 수장고(570평) △선센터(120평) △강의실(56개실, 1320평) △학생복지·편의시설(920평) △주차장 등이 들어서며 2028년 완공될 계획이다.

동국대 혜화문(중문) 일대에 로터스관이 신축되면 동호로와 바로 연결돼 학교의 접근성은 더욱 확대되며, 특히 언덕이었던 학생들의 통학로 역시 평지화될 전망이다. 또한 주변 유명 호텔과 체육관·국립극장과 연계돼 학교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로터스관이 학생과 교수, 지역이 소통하는 열린 법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새롭게 착공되는 로터스관은 자비·지혜·정진이라는 불교 건학정신을 이어 받아 학문의 창조와 수행의 향기, 나눔의 따뜻함이 어우러지는 도량이 될 것"이라며 "여기서 자라나는 젊은 연꽃의 씨앗들이 장차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재로 성장해 인류 공동체를 이끄는 큰 그릇이 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로터스관 건립불사를 통해 동국의 미래를 밝혀 나갈 것을 다짐했다. 돈관 스님은 "12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원력과 발원이 거대한 공덕의 산을 이뤄 실행의 첫 걸음을 걷게 됐다"면서 "로터스관에 들어사는 박물관과 선센터는 동국이 간직한 뛰어난 전통문화를 모두의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최첨단 교육과 연구 공간 속에서 학생과 교원들은 세계로 확장하는 동국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발원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식사에서 "로터스관은 학문과 수행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터전이 될 것"이라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첨단 동국'의 산실로서,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연구하며 성장하는 배움과 도전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석 사부대중은 "동국의 발전이 곧 불교의 발전이니 새로 세워질 로터스관은 동국의 하드웨어가 되고 동국인들은 소프트웨어가 돼 새로운 120주년을 준비하는 성공의 인프라가 되어 달라"고 불보살께 기원했다.

한편, 동국대는 11월 12일 오후 5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동국 120년, 로터스관으로 이어가는 미래를 위한 동행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난치병 환아에 밝은 미래를"

제25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 행사

진우 스님, 108배로 3천배 릴레이
"우리 모두 지켜 줘야 할 희망"


사진=김내영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9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제25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불자와 시민들의 자비심을 모아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5년째 이어오고 있는 모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000배. 올해는 특히 오전 8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108배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1000여 불자들의 3000배 릴레이 정진으로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사진〉

2001년부터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5년 동안 약 1000명이 넘는 어린이에게 35억 이상의 치료비를 전하며 희망을 선물했다. 이는 불교계사회복지계의 대표 모금 지원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최근 자비나눔 방문에서 만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떠올리며 "작은 몸으로 큰 고통을 견디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울렸다"면서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이 너무도 커서 차마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 웃음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켜 줘야 할 희망"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어이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참자들은 환아의 치유를 발원하는 108배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모금 행사에서조성된 기금은 현장 및 온라인 모연 금액을 합산,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의 수술비 및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02-5664-2206

난치병 어린이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5-95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임은호 기자

염불·사경 '전통수행법'이 선명상을 만나면?

10월 24일 화두 참선 제1기 시작
11월엔 염불소리 · 사경 선명상도
일감 스님 "전통수행법 기반 개발"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화선과 염불, 사경, 절 등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선명상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일감 스님)는 '한국불교 전통수행 기반 선명상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10월부터 제1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본부는 9월 29일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불교 전통수행법 기반 선명상 프로그램' 진행 계획을 공개했다.

선원에서 수행정진 해 온 수좌 스님의 지도로 '화두 참선 선명상'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는 '제1기 화두 참선 선명상 프로그램'은 10월 24~2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성웅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혜진 스님(수좌회 사무처장), 일감 스님 등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마음을 찾아가는 화두(話頭) 참선 선명상'을 주제로 1일 차 상담 및 화두 간택, 화두 명상을 시작으로 2일차 화두 명상과 상담이 이어진다. 3일 차에는 소감 나누기 후 회향식으로 마무리 된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화두 참선 선명상은 지식으로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을 멈춰 본래의 맑고 고요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제1기 염불소리 선명상 프로그램'은 11월 14~16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다. '이근원통(耳根圓通), 염불소리 선명상을 통한 내면의 평화'를 주제로 화암 스님, 일감 스님, 혜오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일감 스님은 "염불소리 선명상의 핵심은 이근원통(耳根圓通)과 반문문성(反聞聞性)에 있다"며 "흔히 새나 자동차 소리 등 외부 소리나 마음속 생각인 내부 소리에 집중하지만, 이근원통은 그 소리 자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마음에 귀기울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불 상담과 염불 명상 등으로 진행되며 템플스테이가 아닌 출퇴근 형태다.

'제1기 사경 선명상 프로그램'은 11월 21~23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다. '한 점 한 획, 금빛법사리로 나툰 사경 선명상'을 주제로 행오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사경 선명상은 부처님의 경전, 진언, 불명호 등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독송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손으로 쓰는 육경 육식이 총동원돼 신구의 삼업을 맑혀 불성을 체득하는 전통 수행법에 기반한 명상법이다.

일감 스님은 "현대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업장 등이 눈 녹듯 소멸해 전통 사경이 갖고 있는 느림의 성찰로 이어져 무념무상 삼매(명상)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충만해지는 행복의 문,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전통 사경 선명상을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퇴근 형태로 진행되며 회비는 재료비 5만원 포함 10만원이다.

'온전히 나를 만나는 108배 선명상'은 누구나 매일 108배 절명상을 통해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108배 절명상 문안과 영상을 제작해 배포,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청사 화재 복구에 한마음"

종무원조합 원우회 4852만원
홍관 · 응묵 스님 각 1천만원



6월 10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조속한 복구를 발원하며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위원장 김추연)는 9월 29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복구기금 4852만 8000원을 전달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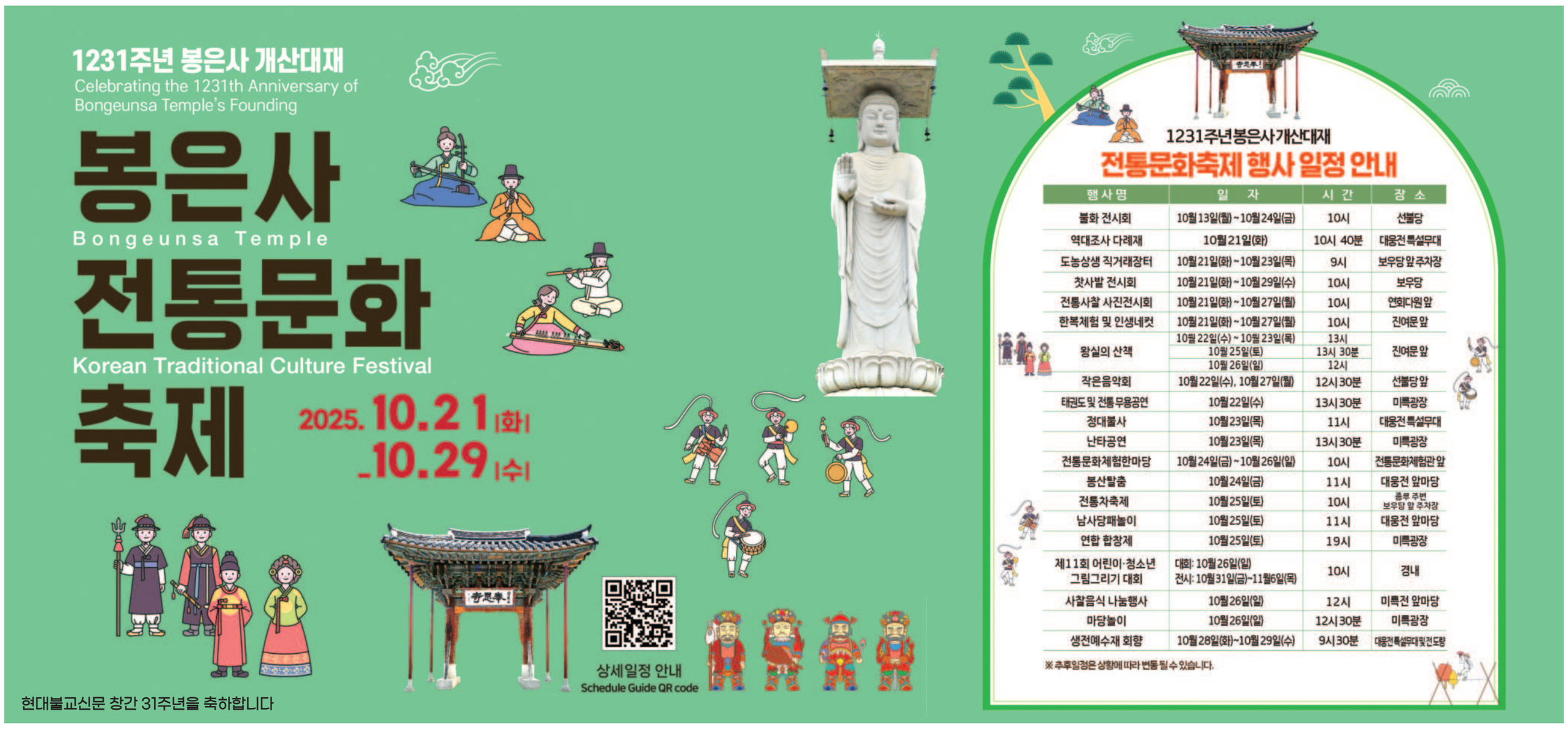
김추연 위원장은 "화재 이후 종무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모두가 보금자리를 복구하자는 한마음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복구를 빠르게 진행해 좋은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에는 팔공산 석굴암 주지 홍관 스님이 1000만원을 전달했다. 홍관 스님은 하루빨리 총무원이 본래 모습을 되찾길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전화위복 계기로 삼고 복구에 노력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같은 날 서울 영화사 주지로 임명된 응묵 스님도 임명장을 받은 직후 진우 스님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며 청사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행사명	일 자	시 간	장 소
불화 전시회	10월13일(월)~10월24일(금)	10시	선불당
역대조사 다례재	10월21일(화)	10시 40분	대웅전특설무대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10월21일(화)~10월23일(목)	9시	보우당앞주차장
찻사발 전시회	10월21일(화)~10월29일(수)	10시	보우당
전통사찰 사진전시회	10월21일(화)~10월27일(월)	10시	연화대원앞
한복체험 및 인생네컷	10월21일(화)~10월27일(월)	10시	진여문 앞
왕실의 산책	10월22일(수)~10월23일(목)	13시	진여문 앞
	10월25일(토)	13시 30분	
	10월26일(일)	12시	
작은음악회	10월22일(수), 10월27일(월)	12시30분	선불당앞
태권도및 전통무용공연	10월22일(수)	13시30분	미륵광장
정대불사	10월23일(목)	11시	대웅전특설무대
난타공연	10월23일(목)	13시30분	미륵광장
전통문화체험한마당	10월24일(금)~10월26일(일)	10시	전통문화체험관앞
봉산탈춤	10월24일(금)	11시	대웅전 앞마당
전통차축제	10월25일(토)	10시	종루 주변 보우당 앞 주차장
남사당패놀이	10월25일(토)	11시	대웅전 앞마당
연합 합창제	10월25일(토)	19시	미륵광장
제11회 어린이·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대회: 10월26일(일) 전시: 10월31일(금)~11월6일(목)	10시	경내
사찰음식 나눔행사	10월26일(일)	12시	미륵전 앞마당
마당놀이	10월26일(일)	12시30분	미륵광장
생전예수재 회향	10월28일(화)~10월29일(수)	9시30분	대웅전특설무대및전도량

※ 추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말의 화살을 가벼이 쏘지 마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대담=한명우 대표이사 · 정리=여수령 편집국장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바른길을 일러주는 어른이 절실하다. 창간 31주년을 앞두고 현대불교신문 한명우 대표가 9월 17일 통도사 서운암을 찾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성파 스님은 “불교언론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창간일을 맞아 다시 ‘근본’을 묻는다. 고도성장을 겪은 우리 사회와 함께 언론 환경도 급변했다. 매체는 지면에서 인터넷, 모바일로 바뀌고 기사를 소비하는 방식 역시 텍스트에서 사진, 영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AI)이 기사를 쓰는 시대다. ‘활자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물음 앞에 서운암의 ‘하우스 서가’가 펼쳐졌다.

“지금은 아마 장서가 80만 권쯤 됐을 겁니다. 상한선 없이 모으고 있으니. 예전엔 책이 귀해서 빌려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애물단지 취급이에요. 교수가 평생에 걸쳐 수집하고 공부한 문전옥답(門前沃畓) 같은 책도 도서관이나 대학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개인이 보관하기는 어렵지만 사찰엔 땅이 있고 스님이 바뀌어도 문화유산처럼 지켜지지 않을까 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내 역할은 많이 모으는 것까지야. 언젠가는 잘 정리해서, 가족이 함께 와서 나무 아래 앉아 책 읽는 때가 올 겁니다. 통도사, 아니 영축산 전체가 지붕 없는 도서관이 되는 것이지요. 비록 나는 못 보겠지만.”

사찰은 전통 인쇄문화 산실

책을 소중히 여기는 스님의 시선은 곧 한국 인쇄문화사로 이어졌다. 스님은 세계 최고(最古)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언급하며, 한국의 출판·인쇄문화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했다.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뿌리는 사찰입니다.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대학〉, 〈중용〉 같은 유교 경판이나 사대부 문집도 다 절에서 인쇄했어요. 특히 통도사는 스님들이 직접 종이를 만들고 판각해 인쇄했습니다. 사찰이 전통 인쇄문화의 산실인 셈이지요.”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 자리도 본래 한지를 만들던 곳이다. 스님은 직접 한지 장인을 모셔 3년간 함께 살며 전통 제지법을 익혔다. “내가 창안한 게 아니라 배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스님으로 인해 통도사의 제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종일주홍진(終日走紅塵) 실각자가진(失却自家珍)이라. 종일토록 사바세계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정작 자기 집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남만 바라보다가는 정작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 있을 때 예술로 드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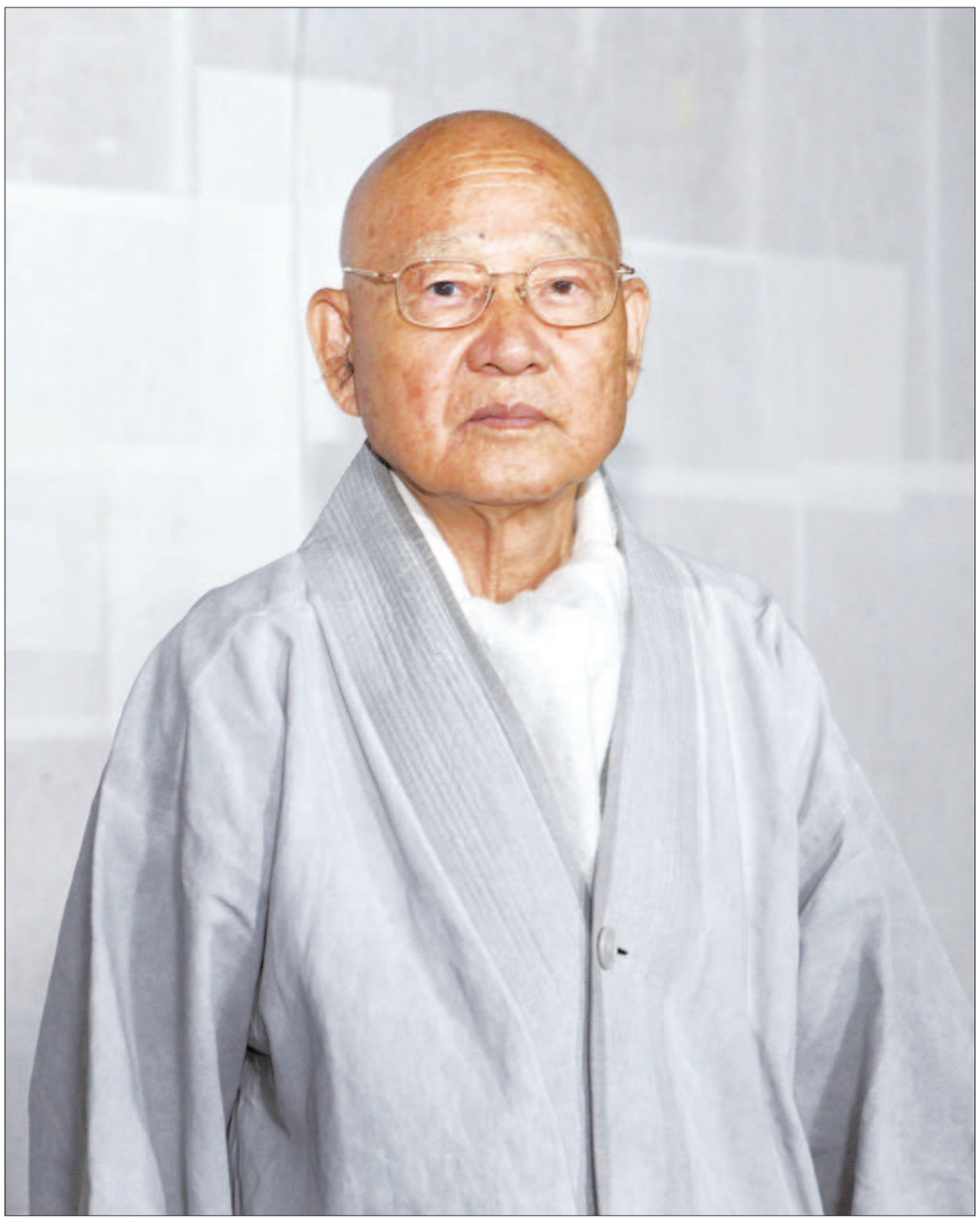
성파 스님은 옻칠, 천연염색, 서예, 도자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통도사에는 옻칠 공방과 한지 공방을 두어 전통문화의 재현과 전승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예술은 ‘선예(禪藝)’라 명명된다.

“사람들은 나더러 문화포교 한다, 예술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승(禪僧)에게 선과 예술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잖아요. 학문에 푹 젖은 문인이 그림을 그리면 문인화가 되듯, 선예도 그런 것입니다. 예술을 하며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술에 드러나게 됩니다.”

스님의 선예는 국내외 전시를 통해 대중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성파선예 특별전-코스모스(COSMOC)’에서는 1980년대 선보인 금니사경을 비롯해 스님이 40여 년간 보여준 독창적 예술세계가 담겼다.

올해는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 ‘성파선예’와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열리는 ‘성파 스님 옻칠 한국화 사제전’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관련 기사 5면〉

최근에는 건립 준비 중인 양산시립박물관에 작품 3점을 기증했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들은 내년을 목표로 스님의 전시회와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성파 스님은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사미계, 197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1년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총무원 사회부장 · 교무부장,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조계종 5 · 8 · 9대 중앙종회원을 역임했다. 통도사 서운암에 주석하며 성파시조문학상, 영남시조백일장, 천연염색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이자 통도사 방장이다. 사진=하성미 기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본지 한명우 대표이사와 성파 스님.

500년, 600년을 사는 길

스님은 올해로 사미계 수지 65년을 맞았다. 소회를 묻자 “세월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무언가 ‘근사한’ 답을 원하는 기자에게 스님은 ‘비법’을 하나 일러주었다.

“사람은 길어야 100년 삽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100년은 짧지. 어떻게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찾은 길이 ‘한우물 판 장인에게 배우는 것’이었어요.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친 장인에게 노하우를 배우면, 나는 그만큼의 세월을 더 사는 셈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가릴 것 없이 전문가를 만나 ‘비법을 나에게 좀 달라’ 설득했어요. 요즘 기술을 배우겠다는 후계자도, 자식도 드문데 내가 배우겠다고 하니 흔쾌히 알려주더군요. 그렇게 10명, 20명 만났으니 나는 이미 500살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돈황 벽화를 배우기 위해 중국 천진미대의 교수를 찾아간 일화를 들려주는 스님의 눈빛이 반짝였다. 마치 어제 일인 양 회고하는 스님의 모습에서 ‘500년을 사는 길’을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말의 무게, 글의 무게

인터뷰 말미, 우리 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을 물었다. 성파 스님은 “그런 건 잘 모른다”고 했지만, 최근의 법석에서 내린 화두는 분명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줄 아는 태도가 수행자의 길입니다. 말은 화살이고 창이고 칼입니다. ‘말의 화살을 가벼이 쏘지 마라. 한 번 귀에 꽂히면 힘으로도 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믿는 불자의 말은 달라야 합니다. 악담과 독한 말을 삼가고, 염불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언론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당부였다. 말의 무게, 글의 무게가 곧 사람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운암을 나서자 가을 바람이 영축산 자락을 스쳤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어른을 찾지 않기 때문은 아닐지.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방장 향우 명신
수좌 현덕
주지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청주·울산서 만나는 선예禪藝 진수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종단의 정신적 지도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예 · 민화 · 도자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독창적 작품세계를 보여 온 예술가이기도 하다. 성파 스님이 펼치는 예술세계는 선(禪)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에 스님의 작품 세계를 선 수행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예술, '선예(禪藝)'라 명명한다. 성파 스님이 펼쳐 낸 선예의 진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전시 2선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성파선예전 〈明明白白: 밝고 밝고, 희고 또 희다〉

형태 없는 것을 보다

한 장의 한지가 전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다. 폭 3m, 길이 100m에 이르는 순백의 한지는 성파 스님이 직접 전통 방식으로 뜬 것으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극소동대(極小同大)'의 통찰을 담아내고 있다. 언뜻 보기엔 그저 '빈 종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섬유질 가닥이 얽혀 만들어 낸 질감이 드러난다. 이 미세한 결들은 무수한 각자의 세계이자, 또 하나의 세계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 '성파선예전'에서는 한지 작품 '명명백백' 외에 스님의 옻칠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칠흑의 심연에서 자개 가루가 은은히 빛을 밝히는 '별들의 향연'은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빛 같다. 어둠과 빛이 만들어 내는 원은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다.

옻칠 연작 '공에서 색으로'는 흰색 한지 위에 펼쳐지는 색의 향연이 공(空)에서 색(色)으로, 무(無)에서 유(有)로 이어지는 순환의 흐름을 보여 준다.

한지 작품이 감싼 전시장 안에 '별들의 향연'과 '공에서 색으로'를 배치하고, 가운데 공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 감상하도록 구성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작품을 감상하거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명상하며 그 뜻을 새길 수 있다.

직접 뜬 100m 한지 전시
'본래면목 마주하라' 화두
옻칠 작품 앞에 앉아 명상
문화제조창 11월 2일까지

강재영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은 "'성파선예전'은 침묵 속의 명료함을 담아내고 있다. 근본으로 돌아가 자기를 비우라는 의미다. 물병에 물을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맑고 깨끗한 본성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면서 "성파 스님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이고, 사물의 핵심을 꿰뚫는, 승(僧)과 속(俗)을 넘어선 선예의 극한을 보여 준다"고 상찬했다.

9월 10일 전시장을 찾은 성파 스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에게 "한지는 멀리서 보면 그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실오라기 같은 가닥들이 모여 거대한 한 장의 종이를 이룬다"며 "이는 곧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전을 관람한 법산 스님(조계종 법계위원장)은 "한 올 한 올의 섬유질이 연결되어 하나의 종이가 되듯, 우리 모두도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특별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 보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시는 11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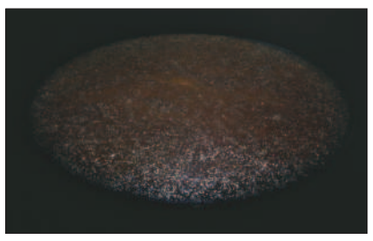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전시 주제이자 대표작인 '명명백백'은 폭 3m, 길이 100m의 한지로, 성파 스님이 전통 방식으로 직접 뜬 것이다. 사진은 작품 설치를 위해 전시장을 찾은 성파 스님. 사진 제공=청주공예비엔날레



옻칠 연작 '공에서 색으로'. 사진 제공=청주공예비엔날레



옻칠과 자개 가루로 만들어진 '별들의 향연'. 사진 제공=청주공예비엔날레

성파 스님 옻칠 한국화 사제전

옻칠로 되살린 암각화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성파 스님의 옻칠 암각화 작품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시가 마련됐다.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9월 23일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성파 스님 옻칠 한국화 사제전'을 개막했다.

스님은 울주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를 주제로 한 나전 옻칠 작품을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 연못에 수중 전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전시는 두 작품을 축소 제작해 아크릴판에 담아 전시장 내 수조에 전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성파 스님의 대표작 2점도 선보인다. '수기맹호도(睡起猛虎圖)'는 검은 옻칠 바탕 위에 호랑이 형상을 새기고 자개와 금·은으로 장식한 작품이다.

'피안으로'는 옻칠을 한 알루미늄판에 은은한 빛과 반사광을 겹쳐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관람객은 작품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
서운암 수중 전시 옻칠 작품
'수기맹호도' '피안으로' 전시
울산 만디 11월 30일까지

전시는 '제10회 옻밭아카데미 회원 초대전'과 함께 열린다. 통도사 서운암 옻밭아카데미는 2014년 성파 스님의 지도 아래 문을 연 작가들의 모임이다. 2015년 첫 회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전을 이어 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회원들은 옻칠과 나전 기법을 해석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여러 겹의 옻칠과 자개 분할, 금·은을 장식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지역의 자연과 일상적 소재를 화면에 반영했다.

성파 스님은 개막식에서 "울산은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해 문화의 뿌리가 깊은 고장이며, 태화사는 역사적으로 국방 사찰의 역할을 맡아 나라의 힘을 북돋웠다"며 "이곳에서 선사시대 암각화와 오늘의 예술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옻칠 한국화는 수행과 예술을 잇는 길이며, 제자들과 함께한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그 울림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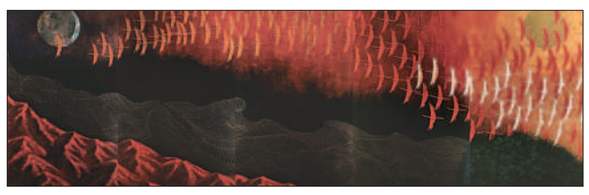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성파 스님의 작품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물결을 형상으로 드러낸 것과 같아, 보는 이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1월 30일까지.

하성미 기자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 연못에 수중 설치된 나전 옻칠 작품 '반구대 암각화'. '옻칠 한국화 사제전'에서는 이 작품을 축소 제작해 수조에 전시하는 형태로 만날 수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제전에 선보이는 '수기맹호도'(왼쪽)와 '피안으로'. 사진 제공=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승**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승정위원 **인봉 은곡 지운 지심 해불 지민**

총무원장 **남륜**	종회의장 **지경**	수선원장 **혜관**	교리연구원장 **보명**
총무부장 **도광**	종회부의장 **지화**	수선부원장 **자원**	삼론법보이사장 **지화**
교무부장 **성화**	사정원장 **지운**	포교원장 **해인**	
사회부장 **도일**	사정부원장 **성덕**	포교부원장 **지연**	
재무부장 **성혜**	교육원장 **법지**	문화원장 **응진**	
규정부장 **명일**	교육부원장 **묘현**	문화부원장 **정연**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교무원장	**묘현**
충북	**성각**
충남	**성현**
대구·경북	**지화**
경남·울산	**해산**
전라남북	**도암**
강원	**도광**

중앙종회의원

보명 묘현 혜안 지학 도암
묘법 성각 도광 성현 성화
지화 자원 지연 정연 혜암
해산 해인 성덕 법수 명일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 正 智山,海耕,雲岩,知足,智巖,修庵,圓默,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 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 員 法京,能華,東佑,祥明,雲山,錦明,道光,觀正,會梵,慧周,雪峯,雪山,碧山,月峰,一雲,瑞峰

中央宗會 議長 始 覺
首席副議長 法輪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九 山
副院長 瑞虎
委 員 惺應,晩愚,松憲,淸虎,智峰,月照,智行

初審院長 錦潭
副院長 杲峰
委 員 哲悟,蓮虛,曉門,晩松,峻凡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正 雲
副委員長 智海
委 員 法一,智勤,寶月

總務院長 常 眞
代辯人 龜巖
行政副院長 道惺
財經副院長 道惺
總務部長
敎務部長 正眼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道輝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法演
弘報部長 法眞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宗正禮敬室長 東虛

敎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敎院長 能解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六和
佛敎文藝院長 智虛
東邦佛敎大學學長 法潭
敎學處長 哲悟
韓國佛敎新聞社長 淸湖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振話
全國信徒會長 圓覺
靑年會長 李承潤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원
의장 **보명**
(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총무원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경**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제주교구종무원장 **관행**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자선 파크골프대회 '新 포교 방편' 됐다

9월 27일, 구미 동락파크골프장
단체 우승은 의성 고운사 신도회
진우 스님 "생활체육 포교의 장"
정원주 회장 "교구 동호회 결성"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1회 전국 불자 자선 파크골프대회 단체우승은 제16교구 고운사 신도회에 돌아갔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불자 단합과 자선 모금을 위해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4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40여 명의 스님들도 경기에 참가해 사부대중이 생활체육을 통해 유대감을 공고히 했다.

중앙신도회는 9월27일 구미 동락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등 종단 교역직 스님들을 비롯해 도리사 회주 웅산 법등 대종사,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등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과 임원을 비롯해 제8교구본사 직지사를 중심으로 전국 교구 신도회와 포교사단, 대한불교청년회, 체육인불자회 등에서 96개 단체팀, 367명이 참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등도 동참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불자들은 파크골프를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공을 치며 자연과 호흡하고 함께 걸으며 웃는 과정은 곧 수행의 길과도 닮아 있다"면서 "한 타, 한 걸음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불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선의 정신', 그리고 명상과 다르지 않다"고 격려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동사섭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화합"이라며 "화합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사섭, 즉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새로운 포교의 장을 기대하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전국 불자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염원했다.

대회는 대한파크골프협회 규정에 따라 남녀 2인씩 4인 1팀을 구성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체우승은 제16교구 고운사 신도회에 돌아갔다. 직할교구신도회와 제15교구 통도사 신도회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개인 남녀 1~5위 수상과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1인 참가비 5만원 가운데 3만원이 경기가 열린 구미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신도회마다 파크골프 동호회를 결성하고 불자들의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전국 24개 교구신도회에 모두 파크골프 동호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앞으로 파크골프를 통해 보다 신도회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불자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11개 대학 불교동아리, 연합법회



9월 25일, 서울 만덕사서 봉행
지도법사 · 학생 130여 명 동참

서울지역 11개 대학교 불교동아리가 9월 25일 서울 만덕사에 모여 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연세대와 서강대 불교동아리 및 만덕사 주최로 봉행된 이날 연합법회에는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성신여대, 홍익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울여자간호대 불교동아리 임원 및 회원 130여 명이 동참했다.

만덕사 주지 정탄 스님, 연세대 및 서강대 지도법사 석도 스님, 성신여자대학교 지도법사 시현 스님, 조계사 포교국장 정오 스님 및 서울 수미정사와 만덕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수미정사 주지이며 동국대 명예교수 해주 스님이 법문했다.

해주 스님은 '불교와 마음수행'을 주제로 '불성을 믿고 인과에 밝게 살자'라는 가르침을 대학생들에게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이미 부처님께서 문제로 삼아 수행을 통해 깨달으셨으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아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대학생 청년 불자들을 응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스님들이 직접 준비해 온 소장품 및 선물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덕담을 나눴다.

꽃차를 준비한 성신여대 지도법사 시현 스님은 "대학생 법우들의 꽃과 같은 날들을 응원한다"는 애정 어린 말을 전했다.

다과를 비롯해 다양한 선물을 준비한 조계사 포교국장 정오 스님은 "불교동아리를 통해 부처님을 만난 인연도, 이렇게 함께 법회를 하는 것도 모두 우리 학생들의 복"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사회를 맡은 손민필 연세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불교동아리 활동 및 법회를 통해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주변 학우들과 함께 나누는 대학생불자가 되겠다"고 인사했다. 임은호 기자

"암각화 속 불교적 지혜 탐구해 내면 성찰"

'봉은 문화 선명상–가을에'
일감 스님, 9월 27일 4번째 강연
선명상 실참 · 봉은사 자비경 낭독


봉은사 선명상연구소장 일감 스님이 9월 27일 봉은사 명상길 중앙쉼터에서 '봉은 문화 선명상–가을에' 4번째 강연을 진행하는 모습.

가을 숲길에서 고대 인류의 기록 유산인 암각화를 매개로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탐구하는 선명상 강좌가 열렸다. 선조들이 돌에 새긴 염원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자리였다.

봉은사 선명상연구소장이자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일감 스님이 9월 27일 서울 봉은사 명상길 중앙쉼터에서 '봉은 문화 선명상-가을에' 4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스님은 '무정법 유차별'을 주제로 '나는 누구인가, 인류는 어떤 생각을 해왔는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지며 고대 암각화가 전하는 삶의 의미를 풀어냈다.

이날 일감 스님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를 비롯해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을 직접 돌며 수집한 암각화 탁본 작품을 소개했다. 공개된 작품은 기원전 6000~7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스님은 "고대인들이 남긴 암각화는 공통적으로 '먹고 사는' 삶을 넘어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며 "인간과 자연, 동물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서원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각화에 드러나는 불교 정신이 스스로 마음을 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 참석자들은 암각화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사유의 시간을 가졌다. 일감 스님의 지도 아래 호흡에 집중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선명상 실참도 이뤄졌다. 스님은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님'을 체험하면서 부처님을 닮아가겠다는 서원을 새겨 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참석대중은 〈자비경〉을 함께 낭독하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아픔을 나누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고귀한 삶을 이어 가길 염원했다.

강연에 동참한 최종섭 불자는 "고대 암각화로 선조들의 마음을 느끼며 나 자신의 마음을 비춰 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가을에' 강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김선희 불자도 "선명상 호흡법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암각화를 보며 고대인들이 남긴 절실한 염원을 떠올리니 지금 내 삶의 방향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내영 기자


외국인 스님들, 사찰음식 배우며 한국 문화체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진성 스님) 국제팀은 10월 1일 서울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2025년 외국인 스님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조계종 초청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 스님 25명이 참석했다. 10년 전 한국에 온 미얀마 출신 우드라 스님은 "한국에 오랜 기간 거주했지만 사찰음식을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임은호 기자

이목당 서운대종사 30주기 기념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와 서운문도회에서는
종단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번 역임하시고 원로의원, 종무지도위원장, 감찰원장 등의 소임을 맡아 통합종단 출범 후 대한불교조계종의 기틀을 만드셨던 이목당(二木堂) 서운대종사의 30주기 기일을 맞아 대종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운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세미나, 살아생전의 모습과 신문기사, 옛 자료를 전시하는 사진전 〈차가운 달 빈 산의 진리〉, 추모다례재와 함께 추모문집 〈서운대종사문집〉을 봉헌하는 의식과 더불어 강화인천지역의 신도교육의 요람이 될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준공법회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모기념사업에서는 스님께서 종단 출범기 종무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처무규정〉의 원본을 50여 년 만에 발굴하는 한편, 봉은사 토지 매각에 반대하며 소신공양을 표명했던 〈봉은사 임야 및 토지매각 처분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당시 신문기사 등 다수의 관련 자료를 발굴해서 문집에 싣고,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효봉, 동산, 금오, 청담 스님 등과 함께 위법망구의 자세로 종단의 기틀을 만드신 스님의 원력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목당 서운대종사 30주기 추모 다례재 및 추모문집 봉헌
일시 : 2025년 11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무설전

■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준공법회
일시 : 2025년 11월 8일 오전 11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앞

■ 이목당 서운대종사 30주기 기념 세미나
일시 : 2025년 11월 8일 오후 14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대강당

■ 이목당 서운대종사 30주기 기념 사진전 〈차가운 달, 빈 산의 진리〉
일시 : 2025년 10월 4일~12월 30일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대조루 (10월 4일부터)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11월 8일부터)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제10회 남한산성 수륙무차대법회 | 산사음악회
의승군 문화제

일시 : 2025년 10월 25일 (토) 08:50 ~ 18:00
장소 : 남한산성 장경사 경내

1부 개막의식 08:50~10:30
타종식 | 헌다례 | 신중작법 | 대령/사련의식

법요식 10:30~11:30
개회 |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주지스님 봉행사 | 내빈 소개 | 헌화
내빈 축사 | 추모가 | 사홍서원 | 내외빈 퇴장 | 공지사항

점심공양 11:30~13:00

2부 남한산성 의승군 추모 수륙무차대법회 13:00~16:00
상단의식 | 중단의식 | 설법의식 | 하단/봉송/회향의식

3부 장경사 가을 산사음악회 16:00~18:00

산사음악회 출연진
첼리스트 김규식 / 기타리스트 박윤우
가수 김범룡 / 가수 염수연
밴드 박희진과 드레곤즈 / 종창 인소노왕상불
사회자 여현아 / 난타 안다미로예술단

주최 | 세계속의 경기도 광주시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남한산성 장경사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광주문화재단

문수성지 오대산, 구도·문화 순례길 열다

월정사 · 오대산공원사무소
치유 · 문화 순례길 조성
특색 담은 2개 코스 구성
월정사 면면 살필 구도길
문화인프라 담아낸 코스도
오대산 스탬프 투어 신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문수성지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불교문화와 역사, 자연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순례길이 조성됐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와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10월 3일부터 오대산 내 불교문화 역사성과 자연생태 탐방을 조화시킨 '치유·문화의 순례길'을 조성하고 스탬프투어를 시행한다.

오대산 순례길은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와 공원 내 대표 사찰인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이 참여하여 오대산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와 역사·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탐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대산 순례길을 걷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관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길은 자연과 조화를 느끼고,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심리적 안정을 찾는 방법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오대산 순례길 여권 표지. 순례길 11개 구간 내 설치된 스탬프를 찍어 여행하는 '스탬프 투어'를 위해 마련됐다.

오대산 순례길은 2개 구간으로 조성 운영된다. 제1구간은 옛 구도자들이 천년을 걸었던 '오대산 치유 순례길'로 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돼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적멸보궁,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 오대산 이름의 유래중 하나인 오대암자를 연결한 구간이다.

제2구간은 역사를 만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오대산 문화 체험길'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선왕조실록·의궤 원본이 전시되고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보급 불교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역사적으로 한강의 시원지로 불리는 우통수에 대한 기록을 만날 수 있는 한강시원지체험관, 한국자생종만으로 조성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순례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대산 순례길 여권'을 선착순으로 1인 1개씩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현장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

구간 내 11개소의 방문 지점에 설치된 스탬프를 통해 순례길 여권을 완성해 가면서 탐방객들이 구간 완주 및 방문 장소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오대산 순례길 방문 및 완주시에는 켄싱턴호텔 평창 사우나 할인 등 별도의 방문 혜택과 완주 기념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스탬프투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대산 순례길 홈페이지(https://odaesan.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용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등산로, 탐방로라는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순례길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서는 명상·치유·문화향유라는 새로운 탐방 형태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오대산 순례길에서 오대산 고유의 역사와 자연,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진흥원, 구상진 18대 이사장 취임

10월 1일 다보원서 취임법회
"인재 양성 불사 추진" 일성



대한불교진흥원 제18대 이사장에 구상진 이사〈사진〉가 취임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0월 1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제18대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구상진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대적이고 호소력이 깊은 전법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인재를 양성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7월 14일 제203차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이사장에 구 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사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AI 시대에 적극·능동적으로 대응해 '세상에 공헌하는 불교'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신심 깊은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수행, 포교, 교학 연구 이젠 AI로"

자홍 스님 'CBETA AI' 활용 시연

불교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스님들이 AI를 수행과 포교, 교학에 접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하는 강좌가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교육부장 유정 스님)는 9월 30일 서울 동국대 다향관 1층 네오스페이스 정보실습실에서 '전통과 미래의 연결: 수행·교학·AI의 통합적 모색'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찰승가대학과 사찰승가대학원의 상주 교수 스님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수법을 학습하고 승가교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HK 연구단 보조연구원 자홍 스님은 이날 '전통교학의 교수설계와 AI도구의 활용'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ChatGPT5' 'Gemini' 등 최신 주요 AI 기술의 발전 동향부터 국내외 불교학계의 AI기술 개발 및 발전 동향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불교학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BETA AI'와 'Dharmamitra' 활용법을 시연하며 차근차근 설명해 스님들의 이해를 도와 눈길을 끌었다.

박재용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박사는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AI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생성형 AI 사용시 주의점과 구글 노트북 LM을 활용한 연구활동과 강의안 작성 등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임은호 기자



달라이라마 구순 기념 행사 참관기

한국 등 11개국 공동주최…1200명 운집

9월 20일, 인도 다람살라서
"인류 안녕 · 행복위해 한자리"


한복과 연등으로 달라이라마를 마중하는 한국 불자.

지난 9월 20일, 인도 히마찰프라데쉬주의 다람살라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이자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달라이라마의 구순을 기념하는 국제 행사가 봉행됐다.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각국이 공동 주최해 총 11개국이 참가한 이 행사는 달라이라마의 구순을 기념하는 캠페인인 '자비의 해(The Year of Compassion)'의 일환으로 봉행됐다.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각국의 조직위는 지난 5월부터 온라인으로 모여 행사를 준비했다. 이후 오프라인 회의 등을 거쳐 행사의 주요 얼개가 만들어졌다.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에서 봉행되는 기도의식이 중심이 되는 장수기원행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각국의 전통문화 공연이 함께하는 문화행사와 같이 진행됐다.

한국 측은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티베트 사찰인 '삼학설행사(랍숨섀둡링)'이 공동주최자로 올랐으며 이번 행사를 홍보하고 한국 각계의 축전과 행사 참가자를 모집했다. 삼학설행사 주지 남카스님은 "사람이 구순까지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법을 전하는 스승께서 구순을 맞이했다는 것은 더더욱 희유한 일"이라며 이번 행사의 특별함을 설명했다. 국제조직위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등록 인원만 1200여 명, 현장 등록인원까지 약 6000여 명을 참가인원으로 파악했다.

한국에서는 현장 등록인원을 포함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 교계에서는 조계종 교육아사리회장 금강 스님과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금강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친서를 달라이라마께 전달했다. 이외에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등의 불교계에서 축전을 보냈다. 정계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겸 정각회 명예회장이 학계에서는 한국밀교학회가 구순행사를 기념하는 축전을 보내왔다.

행사장은 남걜사원의 마당으로 정해졌다. 남걜사원은 달라이라마의 개인사찰로, 현재는 망명해 온 남걜사원의 스님들이 다람살라의 한쪽 끝인 하갤리산 위에 재건했다. 달라이라마의 관저와 바로 붙어있어 달라이라마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가 자주 열리는 장소다.

행사장은 이틀 전부터 태국에서 온 불자들이 직접 공수해 온 난꽃으로 하나하나 장엄됐다. 꽃장엄을 위한 모든 비용은 한국에서 희사했다. 기둥과 내빈석의 난간은 물론 달라이라마 존자가 앉을 중앙 단상의 좌우에는 흰 난꽃으로 만든 한 쌍의 공작이 아름답게 세워졌다.

행사 당일. 이른 아침 6시부터 남걜사원의 산문 앞이 북적였다. 각국은 물론 현장에서 등록한 이들은 좀 더 달라이라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를 잡겠노라며, 행사 시작인 9시보다 일찍부터 행사장으로 나온 것이다. 한국에서 참석한 많은 불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달라이라마를 기다렸다. 이윽고 오전 8시 50분, 달라이라마가 관저를 나서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시자 스님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입장하는 달라이라마의 앞으로 싱가폴의 사자춤, 태국의 꽃 공양, 한국의 연등 공양이 길을 앞장서 맞이했다.

달라이라마는 행사에서 자신의 일생을 짧게 회고한 후 "오늘 다람살라에 수많은 세계인들이 저의 9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닌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을 것"이라며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법문에 이어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폴의 순으로 각국의 전통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싱가폴의 경우 전문 사자춤 공연단이 직접 싱가폴에서 공수해 온 8마리 사자탈을 쓰고 공연해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각국의 축하를 받은 달라이라마는 거듭 감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환희심을 감추지 못했다. 태국에서 온 불자는 "내 생에 이런 기쁜 자리에 함께 할 줄 몰랐다. 너무나 환희롭다"고 말했고, 베트남에서 온 불자는 "나에게 달라이라마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시다. 그런 분을 뵙는 일도 희유한다, 구순을 기념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단건 큰 자랑거리"라며 기쁨의 눈물을 보였다.

인도 다람살라=박영빈 객원기자

통도사 개산대재, 천년 법맥 담은 문화 향연

9월 29일~10월 29일, 개산 1380주년 행사 다채

영고재 · 법요식, 10월 29일 개최
영축삼보 이운 · 괘불헌공 장엄도
나눔 · 참여 장도 풍성하게 열려
청소년을 위한 전시 · 사생대회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80주년을 맞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천년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현대불교 자료 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개산 1380주년을 맞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천년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개산대재(開山大齋)를 봉행한다. 개산대재는 신라 자장 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 와 창건한 통도사의 법맥을 기리고, 1380년의 역사와 정신을 현대에 잇는 법석이다.

올해는 '역사와 문화의 장'과 '나눔과 참여의 장'으로 나눠 전통 의례와 불교문화, 청소년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산사와 지역,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개산대재의 하이라이트는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이다. 10월 29일 오전 9시 개산조당에서 자장 율사의 진영을 모시고 덕을 기리는 영고재가 먼저 봉행되고, 이어 오전 10시 30분 설법전에서 개산대재 법요식이 장엄하게 거행된다. 통도사 창건조 자장 율사의 뜻을 기리는 이 법석에는 종단의 주요 스님과 사부대중, 지역민이 참여해 개산의 의미와 법맥의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자장 율사 가사배견'이 진행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장 율사의 가사를 직접 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10월 26일에는 불교 전통 의식인 '영축삼보 이운'과 '괘불헌공'이 연이어 열린다. 오전 9시 30분 부도원 앞에서 봉행되는 '영축삼보 이운'은 법당 밖에 모셔져 있던 괘불을 대법회 장소로 옮기는 의식으로, 수백 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장엄한 행렬을 이루며 걸음을 옮긴다.

오전 10시에는 괘불대 앞에서 '괘불헌공'이 진행된다. 이는 자장 율사의 정신을 계승하며 불법의 융성을 기원하는 의미다.

10월 25일 오후 2시, 부도원에서는 '부도 헌다례'가 열린다. 이는 통도사의 역대 고승과 선지식의 덕을 기리며 스님과 신도들이 차를 올리는 의식이다.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성보박물관 1층 괘불전에서는 1767년에 제작된 탱화(보물)가 특별 공개된다. 괘불은 평소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개산대재 기간 동안 신도와 관람객이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특별 전시된다.

'나눔과 참여의 장'에서는 통도사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행사가 이어진다.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해장보각 앞에서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이 마련돼, 통도사와 불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 공양을 지역 어르신들과 나눈다. 이어 오후 1시에는 삼성반월교 옆 무대에서 '영축문화공연'이 열려,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개산대재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과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와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10월 3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산문(山門)의 빛, 마음의 정원에서 인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미디어아트 전시가 진행된다.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제4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가 경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삼성반월교 옆 야외무대에서 '제2회 통도사 합창제'가 열린다.

통도사는 "개산 1380주년을 맞아 자장 율사의 창건 정신을 기리는 법석을 마련했다"며 "천년 고찰의 역사와 정신이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남북 화해, 마음부터"…부산서 평화순례

민추본 9월 27~28일, 제5차 평화통일도량 순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부산 일원에서 '제5차 평화통일도량 순례'를 봉행했다.〈사진〉 순례에는 덕유 스님(민추본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회원 및 도반 30여 명이 동참해 사찰과 역사 현장을 순례하며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모았다.



첫 순례지인 원오사(주지 정관 스님, 민추본 부산·경남본부 본부장)에서는 솔바람 명상길 포행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정관 스님은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 쓰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남북의 갈등도 마찬가지"라며 "적대감을 버리고 이해와 기다림, 진정성을 꾸준히 쌓아간다면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례단은 이어 해동용궁사와 내원정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공원, 문수사도 방문해 남북 교류 재개와 한반도 평화에 마음을 모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흥륜사, 이차돈 성사 추모다례

9월 26일, 헌향 · 헌다 · 음악회



경주 흥륜사(주지 보광 스님)는 9월 26일 경내 선방 특설무대에서 '제1498주기 이차돈 성사 추모다례 및 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보광 스님은 "이차돈 성사가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듯 흥륜사도 담장을 낮추고 열린 도량으로 나아가겠다"며 "반바지 차림이나 반려동물 동반 등 다양한 문화를 포용해 누구나 부담 없이 도량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님 법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시대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며 향후 도량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이차돈 성사는 신라가 불법을 받아들이지 않던 시절, 자신의 목숨을 바쳐 법등을 밝힌 분"이라며 "그 순교의 뜻이 오늘날까지 흥륜사에 면면히 이어져 한국 불교의 뿌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팔관회 명상걷기…3000명 함께한 '수행의 걸음'

9월 27일 팔관회 본행사 앞두고
명상 · 걷기 · 공연 어우러진 축제



'2025 팔관회'의 시작을 알리는 명상걷기대회가 9월 27일 북항친수공원에서 열려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사진=이도경 부산지사장

선선한 가을밤, '2025 팔관회'의 시작을 알리는 명상걷기대회가 9월 27일 북항친수공원에서 열려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팔관회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불교계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걷기대회에 앞서 무대에서는 홍법사 총무국장 현수 스님의 안내로 짧은 명상 시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집중한 뒤, 북항의 밤공기를 느끼며 산책로를 따라 걷기 명상을 이어갔다.

바닷바람과 야경이 어우러진 길 위에서 시민들은 차분히 걸음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정돈했다. 한 참가자는 "걷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걷기 코스 중간에는 팔재계의 현대적 실천을 안내하는 순서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짧지만 깊은 성찰의 여운을 남겼다.

걷기대회가 끝난 뒤 이어진 공연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정오 스님은 회향사에서 "지난해는 우천으로 걷지 못했지만 올해는 새로 단장된 공원을 함께 걸으며 명상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오 스님은 "〈화엄경〉에는 남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할 때 그 복과 행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분이 함께 걸으며 건강과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팔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된다. 첫째 날에는 선재동자 수계법회와 마정수기 법회, 둘째 날에는 호국기원 법회와 전통 백희가무 공연이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 수계법회가 엄숙하게 봉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외국인 유학생에 불교 문화 알려

9월 28일, 사찰음식 · 민화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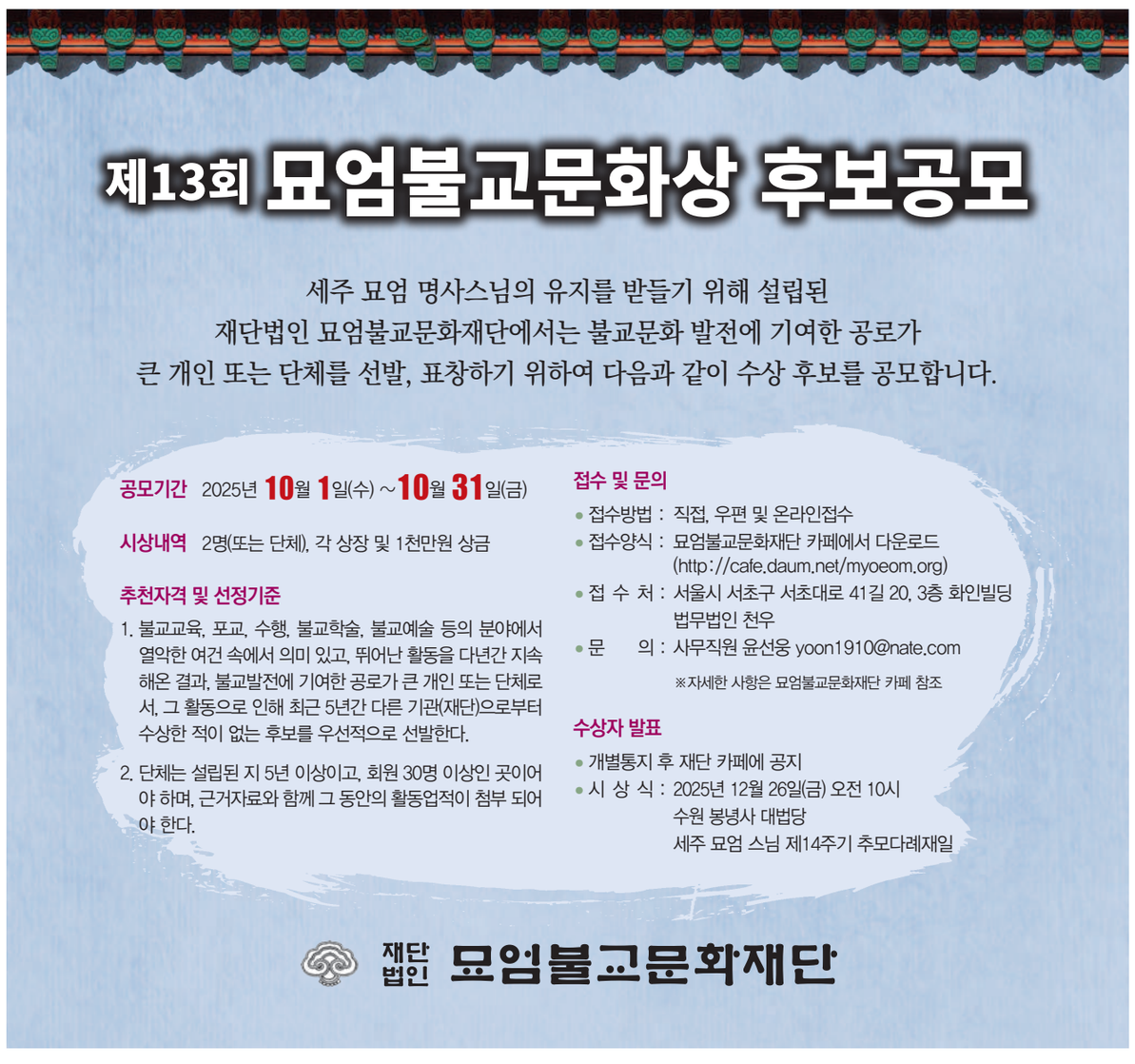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9월 28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템플레킹(Temple+Trekking)' 팸투어를 진행했다.〈사진〉 팸투어는 관광·문화 관계자나 외국인 등을 초청해 지역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해와 홍보 효과를 높이는 초청형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관광공사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4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선문화관에서 사찰음식과 민화 채색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경험했다.

범어사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번 팸투어를 통해 한국불교와 지역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일주문 현판식

9월 28일, 대웅전 등서 봉행
상량보에 대행 선사 법어 새겨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9월 28일 일주문 현판식을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춘 스님)은 9월 28일 일주문 현판식을 봉행했다.

현판식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각 지원장 스님과 대중 스님, 박종수 안양본원 명예회장, 신현준 안양본원 신도회장, 이기정 수석부회장, 최종열 중부경남지원 신도회장 및 임원진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1부는 △예불 △개회사 △불교도의 노래 △삼귀의 △한마음선원가 △발원문 봉독 △청법삼배 △청법가 △입정 △대행 선사 영상 법문 시청 △음성공양으로 진행됐다.

이어 일주문 앞에서 현판식 화합재가 봉행됐다. 2부에서는 테이프 커팅과 본격적인 현판 제막이 이뤄졌으며, 경과 보고와 내빈 소개, 불사팀 선물 전달식이 진행됐다.

일주문은 전통 다포 양식으로 기둥뿐 아니라 벽면과 처마 밑에도 공포가 정교하게 배치돼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배흘림기둥과 둥근 활 모양의 보조 기둥으로 곡선미를 살렸다. 또한 둥글게 말린 포작 장식은 구조적 안정성과 장엄미를 더했다.

상량보에는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과 대행 선사의 법어 '걸림이 없어라'가 새겨졌다. 현판 글씨는 이번 불사의 도감을 맡은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직접 휘호해 의미를 더했다.

중부경남지원은 "일주문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자유인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상징하는 문"이라며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에서 "이번 일주문 불사는 혜춘·혜밀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의 원력이 모여 원만히 성취됐다"며 "기와 한 장, 벽돌 하나에도 불자들의 정성과 장인들의 노고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없는 문을 드나들던 신도들이 이제는 장엄한 일주문을 통해 환희심과 합장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불사는 혼자가 아닌 일체 만법·만불이 함께 이뤄가는 일"이라고 설했다.

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일주문은 말 그대로 한마음의 기둥"이라며 "이번 불사는 우리 마음속의 기둥을 다시금 굳건히 세운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고 나쁜 인연 모두가 나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의 자양분으로 삼아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은 "현판은 큰스님의 가르침인 '한마음 주인공의 삶'을 새긴 진리의 상징"이라며 "현판이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되어 많은 이들을 대장부의 길로 안내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중부경남지원장 혜춘 스님은 "오늘 고대하던 일주문 현판식을 봉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 덕분"이라며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인연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2년 마산지원 개원에서 시작된 중부경남지원은 올해로 33주년을 맞았다. 큰스님께서 이 도량의 불사터를 보시고 '주산신이 환영하고, 산 이름은 금산이며, 산 위에 오르면 불법이 처음 들어온 바다가 보일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큰스님의 발자취와 가르침이 서린 이 도량에서 수행·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최종열 중부경남지원 회장은 "일주문 현판식을 가능케 해 주신 큰스님과 모든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인연이 법의 인연으로 이어져 자유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어 일주문 불사에 헌신한 장인과 불사팀을 위한 이사장 혜수 스님의 선물 전달식이 진행됐다.

80돌 앞둔 법화종 '지역 상생' 발원

9월 28일, 지역 축제 개최
법화종과 영주 불자 한자리
직거래 장터 등 상생 눈길
관효 스님 "지역 불교 연대"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2026년 창종 80주년을 맞아 지역포교에 진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내년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지역과 함께하는 포교의 길을 새롭게 다짐했다.

법화종은 9월 28일 영주시 희방사역과 수철리 마을 일대에서 '죽령 옛길에서 마음을 나누는 체험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영주 희방사역은 폐역으로 문경새재(조령)와 더불어 옛 선조들이 이동하던 주요 고개길인 죽령에 위치해 있다. 희방사역 인근에는 법화종 백룡사가 있다. 불교계의 노력으로 희방사역에서 죽령주막까지 2.5km 길이 '죽령 옛길'로 복원되었으며, 수철리를 비롯한 지역의 경제 회복 중심이 되고 있다.

지역 상생 한마당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오전 죽령 옛길 및 백룡사 탐방을 시작으로 개회식, 걷기 명상, 무대공연과 문화한마당으로 이어졌다. 또 마을 주민들의 특산품을 구매 가능한 직거래 장터도 마련되어 불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행사 개회식에는 우중에도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비롯해 부산교구 종무원장 법명 스님, 강원교구 종무원장 송일 스님, 경주교구 종무원장 혜문 스님, 충북교구 종무원장 지성 스님, 김창교구 종무원장 송열 스님 등 각 교구 종무원장과 주지 스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부산교구 종회의장 수월 스님, 도영암 주지 보덕 스님, 추광사 주지 준재 스님, 경북교구 기획실장 해월 스님, 경주교구 성불사 주지 정광 스님, 보광사 주지 보관 스님, 충북교구 재무국장 삼보사 주지 수관 스님 등과 불자 5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룡사 주지 덕인 스님은 "백룡사는 지난 74년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중생과 함께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도량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개회 인사로 밝혔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법화종은 2026년 창종 80주년을 맞아 불교중흥의 법맥을 되살릴 계획이다. 오늘 죽령 옛길을 다시 잇는 걸음이 법맥을 되살리고 지역과 불교가 연대하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미래불교 100년을 향한 포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정근 영주부시장은 "죽령은 역사적으로 영남과 관서를 잇는 교통로이자 문화 교류의 길이었다"며 "이번 행사가 영주의 문화적 자산을 되살리고 지역민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홍경 영주봉화사암연합회 회장, 법장 영주불교연합회 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지역 불교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의 의미를 강조했다.

행사 2부에서는 죽령 무쇠다리를 향한 걷기 명상이 진행됐으며, 3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출연한 연극 '무쇠다리', 오카리나·소리나눔 등 문화공연, 가수 홍인숙·추녹·권태민·김인옥 등이 참여한 동참가수 무대가 이어졌다.

법화종은 "이번 행사는 창종 80주년을 맞아 불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길을 모색하고, 주민과 불자가 하나 되는 포교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속에 뿌리내린 불교 전통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주=노덕현 기자

"법장 대종사 자비행 본받겠습니다"

수덕사, 법장 스님 20주기 추모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9월 29일 대웅전에서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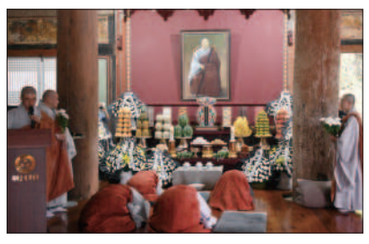
다례재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 원로의원 일면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방장 우송 스님은 법문에서 "법장 스님은 제자와 불자들을 큰 가슴으로 품으며 자비행을 펼치신 분이었다"며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제자들이 사랑과 정진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께서는 종단 안녕과 불교 발전, 나아가 세계와 나라를 위한 큰 뜻을 품고 살아오셨다"며 "제자들은 그 뜻을 받들어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며 그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동헌당 태현 대종사 42주기 추모다례

화엄사, 9월 25일 각황전 등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9월 25일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동헌당 태현 대종사 4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동헌문도회 대표 도실 스님, 화엄문도회 문장 종국 스님, 원로의원 종열 스님,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해 문도 스님들이 동참해 큰스님의 뜻을 기렸다.

행장 소개에 나선 종고 스님은 동헌 대종사의 생애와 수행, 그리고 불교계에 남긴 큰 발자취를 되새기며 의미를 기렸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문도는 동헌 대종사와 문도 어른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전법과 포교,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모재에 함께해 주신 문도 어르신들과 대중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추모재를 마친 사부대중은 부도전으로 이동해 동헌 스님의 부도와 탑비에 참배하며 큰스님의 공덕을 기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충주불교계, 호국위령재·문화축전

9월 27~28일 중앙탑서



충주불교계가 9월 27일과 28일 중앙탑 일원에서 '제18회 국태민안·호국영령 위령재'와 '제34회 중앙탑 탑돌이 문화축전'을 봉행했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타 스님)와 중앙탑탑돌이보존회가 주최·주관하고 충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사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해 나라의 평안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행사는 대북 타고와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삼귀의례, 보현행원, 반야심경 독송, 십바라밀 탑돌이 시연으로 이어졌다. 탑돌이는 십바라밀경진도를 따라 탑을 돌며 걸음마다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서원을 새기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회장 원타 스님은 "탑돌이는 충주의 역사와 불교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리"라며 "무수한 등불의 환희와 함께 경제와 문화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불교聯, 성거사지5층석탑 다례재

9월 25일 광주공원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9월 25일 광주 남구 성거사지5층석탑에서 '다례재 및 광주평안 기원대재'를 봉행했다.

보물로 지정된 성거사지5층석탑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된 전형적인 비보석탑이다. 석탑이 자리한 광주공원 일대는 예로부터 성거산(성구강)이라 불리며 거북이 모양의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다.

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봉행사에서 "성거사지5층석탑은 광주의 번영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이 이어진 보물"이라며 "선조들의 은혜와 공덕을 찬탄하며 광주의 평안과 남구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담양 용흥사, 지역민과 함께한 산사음악회

9월 27일 경내 특설무대서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9월 27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천년의 밥상' 사찰음식 만찬과 2부 기념식 및 무대공연, 신도 및 주민이 참여하는 노래경연으로 진행됐다.

주지 덕유 스님은 인사말에서 "용흥사는 전란으로 여러 차례 소실됐으나 최근 복원불사를 거쳐 지역 대표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음악회가 공동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삼론종, 불기 2569년 방생법회

9월 27일 문무대왕릉 앞서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9월 27일 경주 문무대왕릉 앞 바다에서 불기 2569년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혜승 스님, 총무원장 남륜 스님, 승정원장 진봉 스님, 종회의장 지경 스님, 교육원장 법지 스님, 전 총무원장 해불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법회가 봉행되기까지 경북교구 스님과 신도들의 보시와 시주가 큰 힘이 됐다"며 "함께한 모든 분은 곧 부처님"이라고 강조했다.

종정 혜승 스님은 법어에서 "방생은 단순히 물고기를 살려 주는 일이 아니라 불자 스스로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의 길"이라고 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광복 80주년 산사음악회

10월 26일 경내서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는 10월 26일 오후 1시 경내 일원에서 다음국악관현악단 초청 특별기획공연 '천년 고찰 내소사 그날이 오면'을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이 겪어 온 격동의 시간과 광복의 숭고한 의미를 음악으로 새기는 자리다. 또 미래와 세계로 힘차게 비상하는 부안의 비전을 담아낸다.

음악회는 △광복 △염원 △희망 △독립 △평화의 5개 장으로 구성되며,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서양 합창, 태권도 시범, 일렉트릭 기타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주지 재안 스님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리고자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국악 선율 속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

‘오직 부처님 말씀’ 역경불사의 길을 걷다



각묵 스님은… 195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 출가했다. 1979년 화엄사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출가 후 7년간 선방에서 정진하던 중 초기불교 경전에 관심을 갖고 인도 뿌나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산스크리트어, 빠알리어, 쁘라크리트어를 수학한 뒤 1998년 귀국했다. 2002년 대림 스님과 함께 초기불전연구원을 설립해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빠알리 삼장을 완역하는 역경불사를 이끌었다. 〈디가 니까야〉, 〈상윳따 니까야〉, 〈담마상가니〉, 〈위방가〉, 〈이띠웃따까〉, 〈우다나〉 등을 잇달아 번역했다. 또 〈맛지마 니까야〉, 〈앙굿따라 니까야〉, 〈청정도론〉 교열에 참여했고, 불교 교리 입문서 〈초기불교 이해〉와 〈초기불교 입문〉 등을 저술했다. 실상사와 보리원 등에서 경전 강좌와 수행 지도를 이어 왔고, BTN불교TV와 BBS불교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법문을 널리 전하고 있다. 2006년 〈디가 니까야〉 완역으로 보현학술상을, 2011년 〈상윳따 니까야〉 번역으로 행원문화상 역경상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제22기 초기불전학림에서 각묵 스님이 번역한 〈테리가타〉 1강을 마친 뒤,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초기불전연구원의 전경. 초기불교 경전 연구와 역경불사의 거점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역경한 불전들. 설립 10년만에 4부 니까야를 완역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죽음을 맞는 어머니의 얼굴. 임종의 순간, 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중학교 3학년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8월 31일입니다.”

날짜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각묵 스님은 그날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지는 듯했다. 까까머리 소년은 이제 내년이면 칠순을 맞는다. 각묵 스님은 죽음에 대해 “거창하게 말할 게 아니라, 단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 했다. 병고로 수술대에 눕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마취를 할 때면 호흡을 살핀다. 마치 죽음의 순간을 연습하는 듯했다. 담담하게 느껴지는 스님의 설명에는 ‘생로병사’를 편안히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전해졌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삶의 무상함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부처님께 귀의한 각묵 스님. 스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직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을 위해 각묵 스님은 초기불교 경전의 번역과 교리 보급에 헌신해 왔다. 〈디가 니까야〉, 〈상윳따 니까야〉, 〈담마상가니〉, 〈위방가〉, 〈이띠웃따까〉 등 빠알리 경전을 번역해 학문과 수행의 기반을 넓혔다. 교리 입문서인 〈초기불교 이해〉와 〈초기불교 입문〉을 저술했고, 전통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 대중에게 전하는 데 힘썼다. 단독 역서와 공역은 총 11종 24권이며, 다른 저술도 포함하면 13종이 넘는다.

위빠사나 수행과 교학의 통합을 강조하며, 법문과 강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는 각묵 스님을 9월 16일 김해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만났다.

화두를 붙들고 출가의 길에 서다

밀양 평산 신씨 집성촌의 장손 장남.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소년은 수학 교사가 되어 평범하게 사는 삶을 꿈꿨다. 공부에 재능을 보여 가족들의 기대는 컸지만, 그가 꿈꾸는 미래는 단순했다. 대신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로 도서관과 서점을 자주 찾았고 사르트르의 대표작 〈구토〉, 까뮈의 〈이방인〉 등을 탐독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청담 스님의 책 〈마음〉을 접하며 불교에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소림사 인근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불교학생회 활동을 먼발치에서 볼 수 있었다.

1976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입학해 대학생불교연합회에 가입했다. 교화부장을 맡아 정기법회를 준비하며 법사 스님들을 모시는 역할을 했다. 1970년대,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는 동아리 운영이 쉽지 않아, 직접 사찰을 찾아가 법을 청하며 스님들과 인연을 맺었다.

“대학생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 주신, 정말 고마운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당시 인연이 된 화엄 스님(김해 영구암)과 삼묵 스님(선암사)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삼묵 노스님을 만나자 각묵 스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던졌다.

“스님 앞에 누가 앉아 있는데,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버릴 수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가면 뭐가 남느냐?”고 반문했다. 당시의 불교 상식으로는 ‘마음’이라 답해야 할 것 같았지만, 스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떨어진 불호령.

“내가 시체하고 이야기했구나. 이놈을 당장 들고 나가 묻어 버려라!”

노스님은 부리부리한 눈을 치켜뜨며 큰 손으로 경상(經床)을 내리쳤다. 스님의 고함 소리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각묵 스님은 순간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신도 없었고.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길로 삼묵 스님의 제자가 되어 화두를 받고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갔다. 강렬한 의정(疑情)이 이어지면서 ‘선방에서 화두를 타파해 확철대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굳혔고, 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출가했다.

어머니 임종 앞에서 마주한 삶의 무상
삶과 죽음의 물음이 열어 준 출가의 길
삼묵 스님과의 만남, 화두 정진의 시작
초기불교와의 인연, 역경 서원의 전환점
병고와 죽음의 문턱에서 더 깊어진 원력

부처님 원음 전하는 역경불사의 시작

군 복무 후에는 1987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선방에서 화두와 대면하며 정진했다. 그러나 출가 이전에 그렇게 또렷이 들리던 화두에 의정이 붙지 않았다.

수행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던 1986년, ‘나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 곧 불교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강한 반성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대불련 시절 탐독했던 법정 스님 번역의 〈숫따니빠따〉를 다시 펼쳤다. 특히 스리랑카의 월폴라 라훌라(Walpola Rahula) 스님이 쓴 불교 개론서 〈What the Buddha Taught〉를 접하면서 초기불교에 대한 확신을 굳혔다.

부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며, 그분의 가르침이야말로 불교의 본령이라는 자각이 뚜렷이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이는 부처님의 원음인 초기불교로 눈을 돌리는 전환점이 됐다. 이후 활성 스님의 지도와 도반 함현 스님, 입적한 철오 스님의 배려로 ‘고요한 소리’의 후원을 받아 인도 유학길에 올랐다.

1989년 3월 인도에 도착한 각묵 스님은 곧바로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대탑을 참배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금생에 반드시 빠알리 삼장(三藏)을 우리말로 옮기겠다는 원을 세웠다.

대학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진흙탕 속에서 먹이를 찾으려 몸부림치는 돼지를 마주했다. 그 순간 〈청정도론〉의 한 구절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가 비구이다(삼사레 바얌 익카띠 띠 빅쿠)’가 떠올랐다. 윤회 속에 머리를 처박고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겹쳐 깊은 반성을 했고, 이 체험은 지금도 역경불사에 매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인도에서 대림 스님과 인연을 맺은 각묵 스님은 본격적으로 초기불전 번역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2002년 두 스님은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목표로 초기불전연구원을 설립했다. 이후 초기불전연구원은 〈디가 니까야〉(2006, 각묵 스님), 〈앙굿따라 니까야〉(2007, 대림 스님), 〈상윳따 니까야〉(2009, 각묵 스님)를 번역했고 2012년 〈맛지마 니까야〉를 출간하며 4부 니까야 완역을 마무리했다. 연구원 설립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이어 각묵 스님은 〈금강경 역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등을 출간하며 부처님의 원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다.

삶과 죽음 앞에서 다시 세운 서원

역경불사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뇌종양과 암, 결핵 등 중병을 겪으며 삶과 죽음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 “죽음은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라는 스님은 매번 마취에 들기 직전 화두를 들었다. 마치 죽음과 삶이 반복되는 매 순간을 알아차리며 받아들이는 윤회의 과정과도 같았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스님은 오래된 서원을 꺼내 놨다. 군 복무 시절 정보사령부 군종병으로 서울 봉은사 충령각을 관리하며 지장보살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수좌 시절에는 〈지장십륜경〉으로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슴 깊이 새긴 바 있다.

“지장보살님은 출가 성문의 모습을 하신 분입니다. 세세생생 불교의 정법을 수호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분의 서원을 본받고 싶습니다.”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연구원을 통해 역경불사에 매진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지장보살의 서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수년 전부터 매일 아침 절을 올리며 이 서원을 반조해 왔다. 그리고 남은 생에 율장 번역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원력으로 하루하루 정진하고 있다.



불교 교리와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무아, 연기, 자비 등이 AI 시대의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성찰하였다.

이석주 지음/신국판/408쪽/값 27,000원

한국 현대불교 80년 역사를 한 권에!

한국 현대불교사

광복 직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56쪽/값 23,000원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붓다의 지혜!

사랑은 아프다

온갖 종류의 이별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법과 불교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실용적이면서 위안을 주는 책이다.

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국판 변형/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울어도 쓰러져도,
다시 살아지게 하는
힘에 관하여

원영 지음
200쪽 | 18,000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 결국은 살아진다!

계절을 건너듯 다정히, 삶의 무게를 다독이는 원영 스님 산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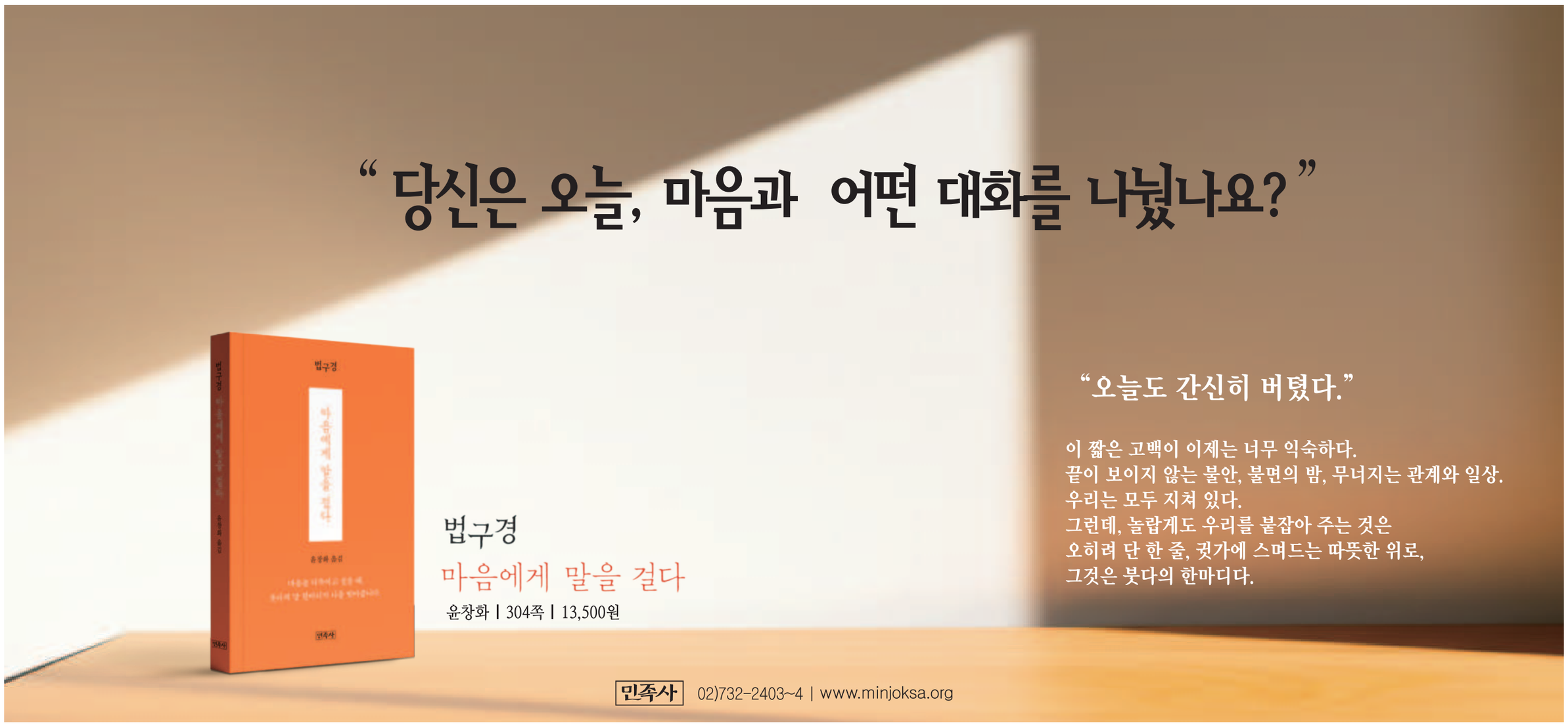
'오늘도 어제처럼 웃음이 사라진 하루였나요?'
'떠밀려가듯 무기력한 나날이 버겁게만 느껴지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루를 버티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죠. 하지만 너무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황을 재고하여 포기하는 것도 지혜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포기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__ 프롤로그 중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법구경
마음에게 말을 걸다
윤창화 | 304쪽 | 13,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마음은 슈퍼컴” 대행 선사 심성과학, AI시대 나침반

한마음과학원 제10회 국제학술대회
박진영 교수, 심성과학으로 AI 조명
“AI, 인간 편향 반영…심성과학 필요”
심성과학은 신비 아닌 윤리적 자각

五共심상명상서 AI 이미지 활용하니
참여자들 긍정 심리 변화 효과 상승
‘앎의 환상 극복’ 족첸–대행선 비교
한마음선원 연등회–수행 연결 발표도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은 9월 2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개회식 직후 참가자와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현대인에게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물질의 편리함이 인간의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욕망을 키우고 집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AI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내면 평화의 방법을 불교적으로 모색하는 담론의 장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9월 2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AI시대에 내면 평화를 찾기 위한 담론들을 모색하는 논문부터, AI 생성 이미지를 명상에 활용한 사례를 연구한 논문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AI를 조명하는 발표가 이뤄졌다.

AI는 인간의 편향 비추는 거울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을 통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주창한 ‘심성과학’이 현 AI시대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고 내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적용해야 하는지를 조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대행 선사가 말하는 ‘과학’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과학(Science)’과는 차이가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과학(科學)’은 자연과학이나 첨단과학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활용되지만 본래 라틴어 ‘Scienta’는 지식이나 기술, 전문성을 의미했다.

대행 선사의 법문에서 나타나는 ‘과학’은 고대 ‘Scienta’로 활용되던 ‘지식’, ‘기술’을 의미했던 본래 의미와 일치한다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대행 선사는 ‘과학’이라는 활동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다”면서 “존재하는 것 자체는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연구·이해가 과학이라고 대행 선사는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는 ‘물질과학’과 ‘심성과학’을 언급하지만 선사의 관점에서 이들은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면서 “선사에게 물질과학은 심성과학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심성과학도 물질과학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행 선사가 설한 ‘심성과학’은 AI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며,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사회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르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대행 선사의 ‘심성과학’은 그 담론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된 논지다.

1991년 2월 3일 한마음선원 법형제 법회에서 설한 대행 선사의 법문을 인용한 박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는 각 개인이 내면과 외면 세계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물질과학과 심성과학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인식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적 평화는 외적 환경과 단절된 개인적 심리 상태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의 의식적 관계 맺음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깊이 얽힌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교수는 AI 윤리학자 섀넌 밸러(Shannon Vallor)의 〈인공지능이라는 거울: 기계적 사고 시대에 우리의 인간성을 되찾는 방법〉을 인용해 “AI는 입력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만든 것은 인간이므로 인간의 편향성을 거울처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을 찾아도 심성 없이는 과학도 의학도 없어요’라는 심성과학에 대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특히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을 발표하고 있다.



김준영 오산대 평생교육원 강사가 ‘오공(五共) 사상 기반 심상유도명상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심성과학은 물질과학을 대체하기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심성과학은 물질과학이 처음부터 왜 필요한가라는 더 깊은 성찰로 이끌어 주는 끊임없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심성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신비주의나 비합리성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윤리적 자각, 겸허함이자 외적·기계적 지식과 진보의 접근법이 지닌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생성형 AI 이미지, 명상 활용 가능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AI를 명상에 활용한 사례를 연구한 논문도 발표됐다. 김준영 오산대 평생교육원 강사는 ‘오공(五共,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 사상 기반 심상유도명상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에서 심상유도명상에서 AI 생성 이미지 활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사례 연구를 통해 조명했다.

연구는 올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S연구소에서 실시된 8회기 심상유도명상에 참여한 40~60대 여성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상유도명상은 대행 선사가 주창한 ‘오공 사상’을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개발됐으며, 프로그램은 이완-심상유도명상-AI 이미지 생성과 탐색-알아차림 공유로 구성·진행됐다.

8회기 프로그램을 마친 결과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참여자 A의 경우 프로그램 2회기(공생)에서 ‘자아 회복’ 이미지를 통해 “이제는 놓아도 되는 것을 붙들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를 보였고, 5회기(공체)에서는 ‘몸과 마음으로 존재하기’ 이미지를 통해 “나의 내면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8명의 결과에 대해 김 강사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통찰, 관계 회복, 존재 수용 등의 통합적이고 치유적인 변화를 유도했으며 오공 사상이 내면화돼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도구는 치유 및 실천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로 작용했다. 참여자들은 AI 이미지 생성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탐색·공유하며 무의식적인 내용을 보다 깊이 성찰할 수 있었다”면서 “AI 이미지는 단순한 시각화 도구를 넘어 자기 표현을 확장하고 성찰을 심화하는 창의적 매체로 기능했다. 이는 명상과 예술을 접목한 심리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 청년학자 연구 발표도 눈길

해외 학회에서 발표된 대행 선사 가르침과 한마음선원 활동 관련 연구의 소개도 이뤄졌다. 오영국(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씨는 지난 7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아시아 비교철학 학외에서 발표한 ‘앎의 환상으로부터의 해탈-대행선과 족첸의 관점’을 통해 티베트 불교 닝마파의 족첸과 대행 선사의 가르침인 대행선이 ‘앎의 환상(Illusion of Knowledge)’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를 살폈다.

박진영(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씨는 지난 8월 폴란드에서 열린 세계종교역사학회에서 발표한 ‘수행으로서의 축제-대행 선사 가르침에 입각한 연등회 준비’를 소개하고 “장엄등 제작에 참여하는 청년회원들은 선사의 법문처럼 마음의 불을 켜기 위해 등을 만들고, 그 결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밝아지는 것을 체험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의 논물 발표도 이어졌다. 야닉 브뤼느통 프랑스 파리 시테대 교수는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에 실린 편지의 분석을 통해 본 백운 화상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했다. 그는 〈백운화상어록〉에 수록된 33편의 서신을 분석하고 백운 경한 스님의 면면을 조명했다.

원하이밍 중국 인민대 교수는 ‘한마음(오직心)의 힘과 의본론(Yibenlun 意本論): 금강경에 대한 비교철학적 해석’에서 대행 선사 사상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한마음’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 안양본원 총무 혜룡 스님 등 승단과 신현준 신도회장, 박종수 신도회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아시아 차인들 '茶德' 논하다

〈차의 덕〉

10월1~2일 통도사 일원서 제3회 국제차문화학술대회

韓中日 제다교류전도 진행
종정 성파스님 법어로 개막
제다 시연으로 차문화 공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학술대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통도사 일원에서 '제3회 통도사 국제차문화학술대회 및 한중일 제다교류전'을 개최했다. 한국·중국·일본의 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차의 덕(茶德)'을 주제로 동아시아 차문화의 사상과 전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술대회는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진행됐으며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법어로 시작을 알렸다.

성파 스님은 "이 자리는 단순히 차를 마시고 교류하는 일반적인 다문화 행사가 아니라, 차를 통해 마음을 닦고 근본을 찾는 자리"라며 "차문화는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지 않고,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파 스님은 "차문화의 발전을 통해 각자의 심성을 밝히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정진을 기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민 한양대 교수는 '한국 차론상의 차덕론-삼종 다부를 중심으로'에서 "한국 차론은 질병치료, 소화와 숙취 해소, 정신 안정 등 실천적 효용이 두드러진다"며 "차덕론의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으며 약용음료로의 활용성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차덕은 건신(健身)과 정신 안정에 초점을 두고 생활 실천성과 응용성을 중시해왔다"며 "앞으로는 차의 미덕과 미학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소법 중국 호남사범대학 교수는 '중국 차덕의 변천사 연구'에서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정신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현대의 차덕은 간편한 방식, 심미적 매개, 건강과 양생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차의 물질적 속성과 정신적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일본 차덕의 성격과 기원'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서 나선 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는 "일본 차덕론은 중국의 십덕(十德)을 수용·체계화하고 선불교 문화와 결합해 발전했다"며 "좌선 수행과 연결돼 졸음을 없애고 정신 집중을 돕는 기능이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제강점기 일본 차덕론의 전래 과정은 향후 사상사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 제다실에서는 '한중일 제다교류전'이 열렸다. 한국·중국·일본의 차 전문가들이 각국의 전통 제다법을 시연하며 교류의 장을 펼쳤다.

한국은 통도사 차문화대학원팀이 통도사 다원에서 재배한 찻잎으로 한국차를 선보였고, 중국은 진소법 교수와 이행철 절강공상대학 교수가 항주의 명차 용정차를, 일본은 마쓰이 에스로 마쓰이엔 대표와 오이시 유지로 오이시 농원 대표 등 5명이 녹차와 홍차를 소개했다.

법정 스님 15주기…'무소유' 첫 학술세미나 열린다

10월 19일, 서울 길상사서
'무소유를 말하다' 주제로
인경 스님 · 김재성 등 발제


길상사 주지이자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이 9월 29일 길상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9일 열릴 '제1회 법정 스님 학술 세미나' 계획을 밝혔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삶이다."

청빈과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며 시간과 종교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긴 법정 스님(1932~2010)의 원적 15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조명하는 첫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와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는 10월 19일 오후 2시 경내 설법전에서 '제1회 법정 스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는 스님의 사상과 삶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다. 법정 스님 입적 후 처음으로 마련된 세미나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세미나는 김호성 동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8명의 불교계 학자가 참여해 4개 주제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이 이어간다.

이계진 아나운서(전 맑고향기롭게 이사)의 기조연설 후 △법정 스님의 사상과 초기불교(김재성 능인대학원 대학교 명상상담학과 부교수) △법정 스님의 '무소유' 고집멸도에 기반한 마음치유적 이해(인경 스님 명상상담평생교육원장) △법정 스님의 수행관과 심리치료적 의미(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법정 스님의 민주화 운동과 전개 과정(여태동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학박사) 발제가 이어진다.

토론에는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 백형찬 전 서울예술대 교수, 신진욱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백경임 동국대 명예교수가 나선다. 발표와 토론 후에는 참석 대중과 함께하는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길상사 주지이자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조 스님은 9월 29일 길상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불교계 안팎에서 법정 스님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공모와 학술상 제정 계획을 밝혔다. 또 길상사 경내에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한 '무소유 문학관' 건립 구상도 공개했다.

법정 스님의 맞상좌인 덕조 스님은 "문학가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불교적 교리를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시킨 은사 스님의 가르침이 다시금 사회와 개인에게 깊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10월 오대산 월정사서 '연기의 숲' 만난다

10월 17~19일 월정사서
'2025 오대산문화축전'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강원도 오대산이 '연기의 숲'으로 장엄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오대산 일원과 경내에서 '2025 오대산문화축전'를 개최한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함께 빛난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축전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 가치 회복과 공동체적 연대를 모색하는 문화축제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첫날인 17일에는 〈화엄경〉의 철학을 담은 화엄변상도 목탱화 봉안식으로 시작해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인 팔각구층석탑 탑돌이가 이어진다.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전국 백일장·사생대회, 탄허 대종사의 정신을 기리는 전국휘호대회, 오대산의 역사·문화를 토대로 한 지구시민포럼도 열린다.

둘째 날인 18일은 에는 전국 불교합창단이 모여 합창제를 열고, 장엄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이 봉행된다. 이어 축제의 개막식과 함께 한국창작무용·국악·사운드스케이프가 어우러진 '오대의 숨 : 다섯 길' 개막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할 '연결된 온 세상을 위한 화엄 탑돌이'는 참가자 모두가 원무(圓舞)를 이뤄 탑을 돌며 화엄사상의 '연결'을 상징하는 현대적 불교의식이 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월정사 탑돌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 프로그램 '생명의 길'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직접 탑을 돌며 울림과 호흡을 나누며 축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 장(場)으로 마련된다. 또 △숲길 달리기(연RUN) △자수·빗자루 체험(연MADE) △만다라 만들기(연ART) △전통차 체험 △오대산 승시(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이 열려 남녀노소 누구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개방되며 일부 체험형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생명의 길'은 10월 2일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033-339-6800

신중일 기자

문화사업단, 11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14곳 사찰서, 1만명 혜택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14곳 사찰에서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과 연계해 진행되며 선착순 1만여 명에게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 모두 3만원,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외국인에 한해 1만 5천원에 참여할 수 있다.

예약은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www.eng.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할인 혜택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가을빛으로 물든 사찰에서 자연이 주는 위로와 고요함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가을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 국 사
조 실 설당종우
회 주 대경법달
주 지 종 천 / 부주지 정 문
부 주 지 성 행 / 총 무 정 수
기 획 성 요 / 교 무 성 광
재 무 성 각 / 포 교 성 담
사 회 성 주 / 호 법 성 심
문 화 효 신 / 신도회장 이영숙
▪ 부설기관 ▪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유치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포교당 석가사
불국사 문화회관
성림어린이집
불국사템플스테이
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746-1476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경주 흥륜사 철솥에 담긴 염원 만나다

APEC 정상회의 성공 기원
경주 불국사박물관 특별전
'솥의 기억: 감춰진 염원'
2023년 출토 철솥 첫 공개
고려 시대 불교공예 '한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23년 경주 흥륜사서 출토된 철솥과 불교의례구 일괄. 불국사박물관서 열리는 특별전에서 첫 공개된다.

경주 흥륜사에서 출토된 철솥과 공양구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경주 불국사박물관(관장 종천 스님·불국사 주지)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임승경), 춘추문화유산연구원(원장 양인철)은 특별전 '솥의 기억: 감춰진 염원'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23년 경주 흥륜사(옛 영묘사지) 서편에서 발굴된 철솥과 솥 안에 담긴 여러 불교 의례구, 곡물들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발굴된 철솥과 불교 의례구 등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가 약 2년에 걸쳐 보존처리와 과학적 분석을 진행했다.

발굴 당시 통일신라~고려 시대의 기와, 토기 조각들을 비롯해 청동 공양구 등을 넣은 철솥이 매납된 채 확인됐고,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과 추정 '○묘사(○廟寺)'명 기와 조각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철솥 안에서는 향로, 향완, 촛대, 접시, 금강령, 금강저 등 정교하게 제작된 불교 의례 도구가 담겨 있어 주목받았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일괄 출토된 것은 고려 시대 불교의례와 신앙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드문 사례"라며 "또한 석회와 보리·벼·조·기장·밀·콩 등 아홉 종의 곡물도 함께 확인되었는데, 이는 해당 유물들이 당시 단순한 매장이 아닌 특별한 매납 행위를 통해 땅에 묻혔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2023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묘사(○廟寺)' 명문 기와와 향로·향완·촛대·금강저 등 대표적인 의례구 등 50건 58점을 만나 볼 수 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전시는 경주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고려 시대 불교 문화유산을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신라 이후 이어져 온 경주의 사찰과 불교 공예의 진면모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전이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 문화유산과 고려 불교공예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시는 불국사박물관에서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부처님 설법

해인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법을 청하니 설하시다'
내년 2월 1일까지 진행돼


특별전에 전시되는 진주 청곡사 제석천의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행하신 설법의 의미를 문화유산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현석 스님)은 해인사 개산 1223주년을 맞아 특별전 '법을 청하니, 설하시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범천·제석천의 간절한 권청(勸請)으로 시작된 부처님의 설법(說法)에 주목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전시 유물로는 '합천 해인사 금동여래입상(경남도 유형문화유산)', '팔상도 병풍' 등 해인사의 성보들을 비롯해 해인사 원당암·해인사 홍련암·진주 청곡사·함양 벽송사·합천 연호사 등 해인사의 산내 암자와 말사에서 전해지는 귀중한 성보들이 함께 공개된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제1부 '권청'에서는 중생을 위해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한 범천과 제석천의 모습,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화인 '범천권청'을 다룬 불교조각·회화·전적을 소개한다. 제2부 '설법(說法)'에서는 권청으로 시작된 부처님의 설법을 담은 다양한 불교회화 · 전적 · 경판들을 선보인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현석 스님은 "불교사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장면은 싯다르타가 6년 고행 끝에 '도를 깨달음[成道]'과 '깨닫고 난 뒤의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 할 수 있다"면서 "권청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 대중의 간절한 청이었으며, 부처님은 이에 응답해 자비를 베푸셨다. 이번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도 그 권청의 마음을 함께 느낀다면, 부처님은 자비로 보답하시어 복된 나날을 맞이하게 되실 것"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2025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사업'과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제11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개최됐다.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진행되며, 해인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⑬ 무정설법(無情說法)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책

無 情 說 法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고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은 1981년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이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며 하신 법어이다. 당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구절이 신선한 울림으로 널리 회자되었다. 하지만 '보이는 만물은 관세음보살이고, 들리는 소리는 미묘한 설법'이라는 구절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무정설법은 유정설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진리는 인간이나 지식인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 역시 늘 설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의미는 경전과 선사들의 어록에도 자주 등장한다.

〈화엄경〉에서는 "유정과 무정이 함께 부처의 지혜를 원만히 한다(情與無情 同圓種)"라고 하였고, 동산양개 선사는 "솔바람 소리는 법의 뜻을 풀어 주고, 흐르는 물은 진여본심을 드러낸다(松風吹解義 水流達本心)"라고 말했다. 또한 청원 유신 선사는 "산은 스스로 푸르고 물은 스스로 흐르니 모두가 무정설법이로다(山自靑, 水自流, 盡示無情說法)"라며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작용 속에서 진리의 의미를 읽어 내고자 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책이 있으니, 하나는 문자로 된 책이고 또 하나는 천지 만물로 된 책"이라며 '자연책'을 언급하였다. 청장관 이덕무는 〈독서기〉에서 "책은 종이에만 있지 않고 산천에도 있고, 인물과 세상사에도 있다"며 '사람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정설법의 극치는 〈아미타경〉에서 잘 드러난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여러 가지 기묘한 새들이 밤낮 여섯 때로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에서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보리분(七菩提分), 팔성도분(八聖道分)과 같은 법문이 흘러나온다. 그 나라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맑으면 보고 듣는 대상에서 법문을 들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사견과 편견을 버리고 욕탐과 집착을 내려놓은 채,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보고 듣고 사유하라. '종이책'과 '자연책', 그리고 '사람책'을 조화롭게 읽으면 지식에 갇히고 관념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무정설법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화순 불암사 주지〉

세계 불교석굴 의미·기능 조명한다

(재)리앤원, 국제학술강연회
10월 18일 국중박 소강당서

돈황 막고굴 등 세계 불교석굴의 의미와 기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재단법인 리앤원(이사장 원재연)은 10월 18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불교석굴은 어떻게 쓰이고 경험되었는가'를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석굴 중 돈황 막고굴과 쿠차 석굴을 불교도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해외 석학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모나카 진 독일 라이프치대 교수는 '쿠차 석굴의 승원과 그 기능'을, 우훙 미국 시키고대 교수는 '공간으로 보는 돈황: 막고굴의 공간 경험'을 각각 강연한다.

원재연 리앤원 이사장은 "리앤원은 매년 '불교와 불교미술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대주제 아래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학자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돈황 막고굴과 쿠차 석굴에 대한 불교도들의 경험과 활용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훙·모니카 진 교수의 최신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자비도량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배워요!

불곡산 대광사
주 지 경혜 스님
신도회장 민 기 홍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천태종 분당 대광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TEL. 031-715-3000 | FAX. 031-715-3409
E-MAIL. daegwangsa3@gmail.com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10/14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중도의 세계	현주	불광출판사	6	거울 속의 물고기	백진순	모과나무
2	선명상 길라잡이	미래본부	조계종출판사	7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	김성구	불광출판사
3	묘법연화경-한글독송본	광우,정목	김영사	8	명상맛집(세계 최고 명상가들의 25가지 명상레시피)	강민지	불광출판사
4	선정겸수	월암	담앤북스	9	부처의 인생 조언	정운	유노북스
5	홀연히 깨어나는 신심명	원제	불광출판사	10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	비구 허정	어의운하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2	마하시사야도위빳사나 백문백답	일창 담마간다 편역	이솔	7	진짜나를 찾아라	법정	샘터사
3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붓다스쿨	8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샘터사
4	불교이후(대원불교 학술총서 37)	스티븐 배철러	운주사	9	법정 스님 숨결	변택주 지음	큰나무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10	상윳따니까야(1)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사유하며 걷는 붓다의 길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
허정 스님 지음
어의운하
1만8000원



빔비사라왕이 부처님을 마중 나온 제티얀에서 가까운 곳에 '부처님의 숲'이라고 불리는 붓다와나가 있다. 붓다와나 동굴 앞에서 기도하는 저자와 순례단 모습. 사진 제공=어의운하

'4 · 8대 성지' 넘어 새 여정 제안
경전 읽고 사유하는 깨달음의 길
"부처님 삶 본받는 것이 순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불자들에게 성지 순례는 한 번은 이루고픈 '버킷리스트'다. 그만큼 순례 상품도 다양하고 순례기도 다수 출간되어 있다.

불교 성지 순례는 흔히 4대 성지, 8대 성지라는 틀로 구성된다. 한국불교와 붓다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온 허정 스님은 '불교 성지 순례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고, 경전에 근거해 답하고 사유하며 붓다의 발자취를 좇는다. 그 결과물이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다.

스님은 성지를 '유적지'에 한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4대 성지'라고 하면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처음 법을 설한 사르나트(녹야원), 열반에 든 꾸시나가라를 꼽는다. '8대 성지'는 여기에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셨던 사왓티(사위성), 도리천에서 하강한 상카싸, 수많은 생명을 교화한 라자가하(왕사성), 〈보배경〉이 설해진 웨살리(바이샬리)가 포함된다.

허정 스님은 이러한 8대 성지의 경전상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한다. 부처님이 하강한 상카싸보다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자주 머물고 가르침을 전한 꼬삼비가 오히려 더 순례지로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스님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고향인 까삘라왓투와 승가 화합의 상징인 짬빠, 사리불이 태어나고 열반한 날란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남겨진 꼬삼비 등을 순례지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순례 코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유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음미함으로써 2600년의 시간을 초월해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지 순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마음으로 경전을 독송하고 그 내용을 음미해야 한다. 독송 후에는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 일행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좋다."

스님은 성지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기도하고 기념 촬영으로 순례를 마치는 대신, 각 성지에서 독송할 경전을 미리 읽고 대화 주제를 정리해 보라고 말한다. 룸비니에서는 '부처님의 출가 경로는 어떠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보드가야에서는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닫고 나서 왜 자리를 일곱 번이나 옮겨 다니셨는지', 꾸시나가라에서는 '왜 부처님은 이곳까지 와서 반열반에 드셨는지' 등을 사유해 보는 식이다.

책은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에서 시작한다. 마하보디대탑 앞에서 부처님의 6년 고행과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을 기록한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새긴다. 이어 수자타가 부처님께 유미죽을 올린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에선 수자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힌두교의 '수자타 템플'과 '힌두 템플' 대신, 경전을 근거로 수자타 스투파 근처의 우루웰라를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정한다. 스님은 보드가야 마하보디대탑에서 이곳까지 '우유죽 공양 길'을 따라 걷는 순례를 제안하며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까지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탄생지 룸비니와 부처님의 출가 행로, 2차 결집지 웨살리, 최초의 승원 왕사성, 꼬삼비 등을 거쳐 열반지 꾸시나가라에 이르러 〈대반열반경〉의 의미를 살핀다. 또 짬빠에서는 오늘날의 대중공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각라 호수에서는 "승가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오디샤주와 낙푸르에서는 오늘날의 인도 불교를 사유한다.

허정 스님은 순례기를 통해 묻는다. "우리는 왜 성지 순례를 하느냐"고. 책에서 전하고자 했던 스님의 답은 "성지란 곧 붓다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며 "성지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가을 여행 가방에 '쏙'



천년사찰 힐링숲길 걷기명상
여태동 지음
시간여행 / 1만8000원

사찰 숲이 주는 치유와 위안
명상 위한 계절별 추천 12선



올해 3월 대형 산불로 소실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최치원숲의 모습. 사진 제공=시간여행

산사의 숲길. 머릿속으로만 떠올려도 맑고 신선한 바람이 느껴진다.

〈천년사찰 힐링숲길 걷기명상〉은 불교신문 기자인 저자가 걷기 좋은 사찰 숲길을 소개한 연재 글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10여 년이 지나 책으로 묶은 이유는 사찰 숲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걷기 명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4장으로 나눠 계절별로 추천하는 숲길 22곳을 담았다. 만물이 깨어나는 봄날에는 고양 흥국사 숲 명상길, 녹은 짙은 여름에는 송광사 불일암 무소유길, 비우고 채우기 좋은 가을에는 정읍 내장사의 비자나무 숲길, 차가운 기운을 즐기는 겨울에는 상주 남장사의 석장승 숲길을 추천하는 식이다. 각 꼭지마다 걷기 명상 팁과 숲길 약도를 담았다.

특히 올해 3월 산불로 전소되기 전 고운사를 담은 글과 사진에 눈길이 머문다. 고운 최치원(857~?)이 머물며 가운루와 우화루를 지은 인연을 기려 고운사 숲길을 '최치원길'이라 부른다.

산문에 들어서면 반기던 오래된 소나무와 겹겹이 심긴 아기단풍은 산불로 이제 볼 수 없는 풍경이 됐다. 하지만 화재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활엽수를 중심으로 잎이 돋아 다시 숲이 일어나고 있다. 그 길을 걸으며 숲의 놀라운 생명력을 느껴 보는 것도 좋겠다.

여수령 기자



주말엔 산사
윤설희 지음
휴머니스트
1만9800원

디자이너가 펜으로 그린 산사
선암사 등 7곳 수묵담채화로



MZ 디자이너가 펜화로 그린 순천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 모습. 사진 제공=휴머니스트

"가톨릭 신자로 태어나 현재는 무교이며, 그림 그리고 글을 써 책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30대 직장인"인 저자는 "이 땅에 오랫동안 발 딛고 살았던 사람들의 건축"이 궁금해져 산사로 떠났다. 기나긴 역사를 넓은 공간에 품고 있는 사찰이야말로 한국 건축의 진수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대기업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저자는 2019년부터 100여 곳의 산사를 방문했고, 그중 가장 각별했던 일곱 곳을 섬세한 펜 그림으로 기록했다. 책에는 순천 선암사를 시작으로 영주 부석사, 부여 무량사, 김제 금산사, 남양주 수종사, 화순 운주사, 서울 봉은사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느 산사 기행서와 달리 만화와 펜화로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한국 건축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많은 시퀀스를 가진 공간"이라며 "그래서 주인공을 따라가며 감상할 수 있는 만화가 적합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한국적인 느낌을 담기 위해 점묘화 같은 수묵담채화 방식을 택했다. 직접 찍은 사진도 덧붙였다.

가을에 가볼 만한 곳으로는 수종사를 추천했다. 샛노랗게 물든 오백 살 넘은 은행나무와 물안개 자욱한 두물머리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은 과학 발전을 토대로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불교의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술총서와 문화총서를 아우르는 '대원불교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대원불교학술총서 시리즈 3권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제약 넘어 새 지평 연 여성 불자들



세계 불교의 여성들
카르마 렉세 쏘모 지음
조승미 옮김
운주사
2만2000원

초기 불교부터 현재까지
'불교와 여성' 역할 고찰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세계적인 비구니 수행자이자 불교학자인 카르마 렉세 쏘모(Karma Lekshe Tsomo) 스님이 불교 전통 속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변화를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쏘모 스님은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의 연대와 교육, 수행, 사회참여를 위한 모임 '사캬디타(Sakyadhita) 인터내셔널'을 설립하는 등 국제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책에서는 불교의 다양한 전통 안에서의 여성 수행자와 재가 여성들의 위치와 수행 방식을,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핀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다중 시공간 비교'다. 저자는 초기 인도불교에서 시작해 남아시아·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서구까지 시야를 확장하며 각 지역과 시대마다 여성 수행자에게 부여된 규범과 기회를 상호 비교한다.

1장 '초기 인도불교에서의 여성'에서는 초기 불교 여성들의 존재와 문헌 속 묘사를 분석한다. 2장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불교 여성'에서는 상좌부 불교의 여성관과 제도적 현실을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3장 '동아시아의 불교 여성'에서는 중국 초기 불교에서 여성 출가 제도의 형성과 깨달음 논쟁, 한국불교의 비구니 승단 설립 역사와 재가 여성 불자들의 활동, 일본의 비구니 승단 등을 살핀다. 4장 '내륙 아시아의 불교 여성'은 티베트 여성 수행자의 역사와 비구니 구족계가 전승되지 않는 나라에서의 교육과 수행 현실을 보여 준다.

'서구의 불교 여성'(5장), '문화를 넘어선 여성 수계'(6장), '풀뿌리 혁명: 불교 여성과 사회 운동'(7장) 등도 살필 수 있다.

저자는 "깨달음은 성별을 초월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성취이고, 여성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각으로서 인류를 해방하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교와 여성'에 대한 초국가적 대화 확산을 기대했다.

AI,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이석주 지음
운주사
2만7000원

AI시대, 불교 역할 모색
'자비'로 '인간지능' 회복

인공지능(AI)은 '다가온 미래'다. 교육·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삶을 바꾸고 있고, 그 영향은 혁명적이다. 편리함과 효율성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불안과 질문도 커진다. 인간의 존엄과 윤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술 발전이 불러온 불평등과 소외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는 이러한 물음에 불교적 사유를 더해 답을 모색하는 책이다.

저자는 AI가 야기하는 윤리적·정신적 문제에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며 △인간 의식의 전환 △기술과 가치의 재정립 △진화의 방향성 △공간 인식의 변화라는 네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는 AI를 '우리 시대의 거울'로 바라본다. AI가 보여 주는 데이터의 직접, 연산의 정확성, 그리고 무감각한 판단 구조는 곧 인간 욕망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인간이 투영한 욕망이 기계 안에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무명(無明)과 집착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에 주목한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내면은 더욱 공허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아·무상·연기·자비는 인간다움의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초지능' 앞에서 인간은 기술 경쟁에 나설 것이 아니라, '자비의 윤리'를 통해 '인간지능'을 회복함으로써 기술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해탈과 자비는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윤리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격동의 현대사 속 자각과 실천



한국 현대불교사
김경집 지음
운주사
2만3000원

광복 후 80년 한국불교사
갈등과 도전 사이의 '자각'

〈한국 현대불교사〉는 광복 직후부터 21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가 걸어온 여정을 폭넓고 깊이 있게 정리한 연구서다. 사건의 나열이나 연대기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한국불교가 마주한 내부 갈등과 외부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불교적 자각과 자주적 개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탐색한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일제강점기 불교의 친일화와 저항, 광복 직후의 봉암사 결사, 정화운동과 종단 재편, 10·27 법난과 자주화 운동, 1994년 범종추 개혁운동 등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사회·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살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불교계 내부의 갈등과 권력 투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부분이다. 종단 분열, 권력 집중, 폭력 사태와 소송 등을 기술하고 이를 오히려 불교적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이자 새로운 전환을 가능케 한 동력으로 평가했다.

또한 저자는 불교의 사회적 확장을 조망하며 학문적 토대 마련과 불서 출판, 군·청년 포교, 해외 전법 활동,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 불교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자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짚어 낸다. 이는 불교가 사회와 호흡하며 시대적 과제를 감당해 왔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직면한 출가자와 신도의 감소, 탈종교화 등의 위기와 마주하며, 불교가 다시금 본래의 사상과 수행, 제도와 문화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웃 종교 책 읽기

누구에게나 영성이 필요하다



나의 오래된 순례, 마돈나하우스
주은경 지음
플로베르 / 1만8000원

마돈나하우스. 이름만 들어서는 뭘 하는 곳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은 이곳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가톨릭 영성 공동체다.

프리랜서 방송작가이자 시민교육가로 밤낮없이 활동하던 저자는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고 마돈나하우스로 향한다. 몸과 마음을 쉬고 싶었을 뿐,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다.

앞서 저자는 다큐멘터리 기획을 위해 5박 6일 과정의 불교 수행 프로그램 '동사섭(同事攝)'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때 '자비와 대원(大願) 명상'으로 "이미 이룬 것에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 내가 이룬 것이 내가 아니며, 내 기쁨도 내가 아니며, 내 슬픔도 내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얻었지만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캐나다 가톨릭 공동체의 생활
"성장을 돕는 친절한 관계망"

그러던 어느 날 긴장과 피곤이 겹치는 작가 생활로 갑자기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는다. '특별한 원인 없이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과 피로가 지속되는 질병'이다. 40대 중반,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말에 '남녀 평신도와 사제로 구성된 가톨릭 공동체'로 떠났다.

마돈나하우스는 러시아 출신의 캐서린 도허티가 1947년 설립한 가톨릭 공동체로, 그는 1985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20여 명의 사제, 130여 명의 남녀 평신도들과 함께 이곳을 운영했다.

생활은 단순하다. 아침 6시 45분 기상, 오전 8시 아침 미사, 8시 30분 아침 식사, 9시부터 작업이다. 게스트들은 그날의 업무 배치표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돕거나, 양초·옷감·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거나 목공예를 하는 식이다. 12시 점심 식사, 오후 작업, 5시 15분 저녁 미사, 6시 저녁 식사가 이어진다.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에는 30분간 티타임을 갖고 '영적 독서'를 한다. 밤 10시 30분부터는 '침묵의 시간'으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기도하고 11시에는 모두가 잠자리에 든다. 식자재와 생필품 대부분은 농장과 작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는데, 이 모든 활동을 성직자와 평신도, 게스트들이 함께한다.

단조로운 일과지만 서툰 언어와 낯선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다툼이 없을 리 없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따뜻한 대화와 기도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준다.

저자는 책에서 마돈나하우스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2006년 정식 스태프가 된 한국인 주은 씨, 12년간 평신도로 일하다 사제가 된 키에렌 신부 등을 인터뷰하며 마돈나하우스의 철학인 청빈·순결·순명의 의미를 새긴다.

어학연수를 왔다가, 자원봉사를 왔다가, 외국 생활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등등 나름의 사연으로 이곳에 머문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겨우' 두 달 간의 머묾이었지만 마돈나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저자가 '공동체의 모델'을 그릴 수 있게 했다. 2021년, 정년퇴직 후 남원 실상사 앞마을로 거처를 옮긴 저자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만큼 서로의 성장을 돕는, 즐겁고 친절한 관계망을 만드는" 그만의 공동체를 일구고 있다. 여수령 기자



선지식·지성인과 만남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어느 자리에서든 주인공으로 살라”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인 ‘선지식·지성인과의 만남’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사진〉이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주인공으로 사는 법’을 설파했다.

9월 20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돈관 스님은 “지난 9월 16일 열린 ‘2025 영캠프’에는 재학생 3500여 명이 수계해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보여 줬다”며 “영캠프의 주제가 ‘주인공’인데 이는 학생들이 학교, 사회 더 나아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달라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불성(佛性), 불심(佛心)이라는 불교 용어에서 유래한 ‘주인공’은 진정한 내 마음, 곧 본성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동국대의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역시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찰이 그 지역 출신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의 선순환을 이어 나가자는 것이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섬개투침(纖芥投針), 하늘에서 바늘을 던져 겨자씨를 맞출 확률일 만큼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여러분 모두는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인데, 일상에서는 이를 잊고 살기 쉽다”며 “언제나 ‘나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붙잡히지 말고 초연해야 한다. 주위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내어 내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또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남을 탓하지 말고, 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자기 잘못을 참회하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늘 주인공으로 살고자 발원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명상 수행이 건강·행복 바탕”

동국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 국제컨퍼런스 1st DAY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주관하는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명상 국제 컨퍼런스’가 9월 25~26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와 해외 석학 6명 · 국내 석학 3명이 참석해 최신 명상 연구들을 발표했다. 컨퍼런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정도 스님이 ‘선(禪), 하나 되는 길: 동국대 명상 교육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9월 25일 명상 컨퍼런스 첫째 날 발표들이 이뤄지고 있다.

9월 25일 첫째 날 세션인 ‘명상과 정신건강’에서는 릭 핸슨 UC버클리대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Greater Good Science Center) 수석연구원,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권준수 한양대 의과대학 석좌교수, 에릭 룩스 브라운대 마음챙김센터 소장이 참여해 명상이 개인의 마음치유를 넘어 근거기반 정신건강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발표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명상은 수행이자 과학이며, 학교·의료·지역사회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 도구라는 것이다.

그대의 ‘내적 자원’을 길러라

‘평온, 행복, 자비심을 키우는 알아차림 수행’을 주제 발표한 릭 핸슨 수석연구원은 현대인들이 번아웃과 불안, 우울을 호소하는 이유로 뇌가 위험 신호에 과잉 반응하는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를 꼽았다.

핸슨 연구원은 “인류 진화 과정에서 나쁜 일을 피하는 것이 좋은 일을 얻는 것보다 생존에 더 긴급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됐다”며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루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잠자리에 들 때는 주로 한 가지 나쁜 일을 떠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정성 편향’은 반복적 악순환을 만들며, 동시에 좋은 경험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하기에 마음수행이 필요하다는 게 핸슨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대로 두기(Let be), 놓아버리기(Let go), 받아들이기(Let in)’를 마음 수행의 방법으로 제안했다.

핸슨 연구원은 자애(Mettā)·알아차림(Sati)·수행 성장(Bhāvanā)의 ‘세 다리 의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 중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을 조언했다. 그는 “과학과 심리학, 불교 전통 모두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자비·감사·회복탄력성·내적 주체성 같은 ‘내적 자원(Inner Strengths)’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핵심은 ‘경험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좋은 경험이 스쳐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마음속에 새겨 넣는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뇌의 신경망은 점차 변화하고, 구조적·기능적 회복이 일어나며, 결국 더 큰 평화와 행복, 사랑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선사상 기반 교육 전개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이날 세션에서 ‘선(禪), 하나 되는 길: 동국대 명상 교육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달마 대사의 이입사행 △혜능 선사의 무념·무상·무주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 △보조 지눌 선사의 돈오점수·정혜쌍수 등 전통 선사상의 핵심이 오늘날 동국대에서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스님에 따르면 동국대의 핵심 교양 과목인 ‘자아와 명상’은 누적 인원 30여 만 명이 수강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우울 완화·감정 조절·자기존중감 향상 효과가 연구로 확인됐다. ‘불교와 인간’ 과목은 불교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탐구해 학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종학연구소는 간화선 학술연구의 중심으로 그간 93명의 전문 연구자를 배출하고 77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수행과 학계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했다. 2023년 개소한 동국선명상센터는 첨단 바이오피드백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의 생활화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6회째를 맞고 있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불교 전통 수행과 현대적 명상이 어떻게 학문과 사회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이 되고 있다.

정도 스님은 “명상은 더 이상 일부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지혜”라며 “앞으로 명상은 참여의 저변을 넓히고 학문적 전문성을 더하며 대중화와 산업화를 거쳐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템플스테이, 진짜 뇌에 좋네

‘명상(템플스테이)의 뇌과학’을 발표한 권준수 석좌교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한 템플스테이 뇌영상 연구를 소개했다. 실험은 동일한 템플스테이 체험 환경에서 체험형 프로그램군과 휴식형(프로그램 없음) 프로그램군을 비교해 그 효과를 분석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체험형, 휴식형 모두에서 긍정 정서가 높아지고 부정적 정서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차이는 지속성에 있었다. 마음챙김 능력과 회복 탄력성은 두 프로그램 모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것은 ‘체험형’이었다. ‘휴식형’은 이후에는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교수는 “군대에 가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훈련과 식사를 한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 자연스레 건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체험형’이고 ‘휴식형’은 말 그대로 그냥 집이든 어디든 쉬는 것”이라며 “‘체험형’은 체험을 통해 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기에 효과는 다르다. 3박 4일의 고도의 명상 훈련이 장기적인 행동 심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상은 구조적 변화(피질 두께·백질)와 기능적 변화(네트워크)를 동시에 일으킨다”며 “체험형 템플스테이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발해 효과 지속성을 만든다”고 해석했다.

마음챙김 도입하니 학생 건강 증진

에릭 룩스 소장은 ‘과학과 성찰의 만남: 고등교육 명상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통해 명상·마음챙김을 대학 내 보건 시스템과 임상연구에 접목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1만7000명을 태아기부터 추적한 ‘뉴잉글랜드 가족 연구’를 진행했고, 40대 말에 이들을 심혈관 정밀평가에 초대해 유년기 요인이 후반기 건강(에피제네틱, 경동맥 두께, 혈당 조절,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때 ‘MAAS(마음챙김 주의·자각 척도)’를 설문에 넣어 심혈관 지표와의 관련을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마음챙김 수준이 높은 집단은 전반적 심혈관 건강(흡연·당뇨·비만·신체활동·식이 종합지표)이 좋을 확률이 86% 높았고, DXA로 본 복부 지방량도 낮았다. BMI로 본 비만 위험은 마음챙김이 낮은 집단에서 34% 높았고, 공복혈당이 정상일 확률은 마음챙김이 높은 집단에서 60% 높았으며, 당뇨 유병률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타임〉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룩스 소장은 이를 바탕으로 존 카밧진의 ‘MBSR(마음챙김 스트레스 감소)’을 응용해 혈압 감소용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마음챙김 연구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를 이어갔고, 미국 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당시 마음챙김 분야 최대 규모인 약 500만달러의 예산을 수주했다.

이를 통해 브라운대 마음챙김센터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혈압 감소 임상 실험(8주 MB-BP)을 통해서는 수축기 혈압이 6mmHg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약 10% 위험 감소에 해당한다. 함께 식이 개선·우울 증상호전 등의 동 변화가 동반됐다.

대학생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College)으로 학기 말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전반적인 건강지수와 수면의 질이 호전됐고 우울 악화 방지, 외로움 감소 등의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룩스 소장은 “지혜 전통의 ‘활성 요소’를 과학으로 식별해 교육·의료·보험·디지털 헬스까지 실행과학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주 지 동민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35 Tel.413-6060
www.bulkwangsa.org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회 주 선묵 혜자
사부대중 일동



주소 서울시 덕릉로129길 전화 02)936-5936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교육, 의료, 식습관… 명상 효능 '다양'

동국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 국제컨퍼런스 2nd DAY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26일 둘째 날 세션인 '명상의 사회적 가치'에서는 데이비드 바고 국제명상연구학회장, 에밀리아나 사이먼-토마스 UC버클리대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 과학 디렉터, 전미선 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명예교수, 진 크리스텔러 인디애나주립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해롤드 로스 브라운대 종교학과 교수가 교육·의료·식습관 등에서 명상 수행을 통한 정신·육체적 효과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진 크리스텔러 명예교수가 '마음챙김과 마음챙김 먹기: MB-EAT, 현명하고 건강한 자기조절의 길'을 발표하고 있다.

명상, 행복 증진 위한 방편

데이비드 바고 회장은 '명상을 통한 자기변화'에서 명상 훈련을 통한 자아의 발달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조명했다.

신경생리학 모델 중 시간측정학(chronometry)에 따르면 의식은 시간 구조 속에서 발생하며, 뇌는 수백 밀리초 단위로 사건을 처리해 의식을 생성한다. 약 500밀리초마다 신체 감각 처리에서 개념적 평가·해석, 기억·예측 모델·행동 반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는 연간 약 6300만 번 발생하며 자아 정체성을 구축한다. 이 누적된 경험이 지금의 '나'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바고 회장은 "이는 불교의 아뢰야식 모델과도 연결된다. 대상과 접촉-느낌(수)-지각(상)-주의의 이동-의도라는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자아화(selfing)' 과정이 잘못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겪는다. 이는 정신뿐 아니라 신체질환까지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고통의 씨앗을 행복의 씨앗으로 전환하려면, 그것들이 모두 의식의 발현임을 깊이 보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틋낙한 스님의 금언(金言)을 상기한 바고 회장은 "우리 내면에 있는 행복의 씨앗을 길러야 한다"면서 명상 수행을 제안했다.

바고 회장은 "명상은 전두-두정 제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늘리며, 자기 초월과 치유를 가능케 한다"면서 "명상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친철을 위해 진화했다

'친철챙김을 찾아서:친사회적 실천이 어떻게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가'를 주제 발표한 에밀리아나 사이먼-토마스 디렉터는 영국 출신 테라와다 승려인 아잔 브람(Ajahn Brahm) 스님에게서 차용해 온 개념인 '친절챙김(Kindfulness)'을 바탕으로 UC버클리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석학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이먼-토마스 디렉터가 예를 든 '사회적 기준선 이론(Social Baseline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을 더 수월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며 오히려 고립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실제 임상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성이 높을수록 뇌졸중, 천식, 심장병, 기관지염 같은 질환의 발생 확률이 줄어들고 반대로 사회적 고립은 모든 원인 사망률을 50% 증가시킨다.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는 '그레이터 굿 인 액션(Greater Good in Action)'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친절챙김'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빅 조이 프로젝트(Big Joy Project)'라는 7일 프로그램과 '패스웨이 투 해피니스(Pathway to Happiness)'라는 4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긍정 정서 증가, 스트레스 감소, 건강 개선, 수면질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사이먼-토마스 디렉터는 "친절챙김은 마음챙김과 친절이 만나는 지점이며, 이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며 "마음챙김과 친절, 그리고 친사회성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명상, 의료 현장서 활용 가능

전미선 명예교수는 '암 생존자에서 심신요법(명상)의 적용: 진료실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를 통해 명상이 암 환자를 포함한 현대인의 건강관리와 치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 임상 경험을 근거로 소개했다. 특히 전 명예교수는 '전인 건강(Whole Person Health)'의 관점에서 환자 개인을 둘러싼 가족, 사회, 나아가 의료진과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야 함을 역설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과거 보완·대체의학(CAM)으로 불렸던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은 단순히 환자 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 사회적 관계, 의료진과의 상호작용까지 포괄하는 전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연구와 센터 설립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침술·마사지·명상 등이 널리 활용 중이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정서와 감정들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은 염증수치를 증가시키고 종양 미세환경을 변화시키며 전이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준다. 감정 억압 역시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이며 암 발생에도 관련된다는 보고도 있다는 게 전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능력은 건강 유지에 핵심적이며, 명상이 이를 돕는다"고 밝혔다.

명상으로 식이조절 해볼까

진 크리스텔러 명예교수는 '마음챙김과 마음챙김 먹기: MB-EAT, 현명하고 건강한 자기조절의 길'을 주제발표하고 '마음챙김 기반 섭식 알아차림 훈련(MB-EAT)'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실습을 진행했다.

크리스텔러 명예교수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몸의 배고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음식이 보이기 때문에 먹는 조건화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알맞은 식이조절은 필수인데, 크리스텔러 명예교수는 '마음챙김기반 섭식 알아차림 훈련'을 소개했다. 소위 '마음챙김 먹기'는 배고픔·포만감·맛·감정 등 신체·정서 신호를 자각하며 식사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느끼는 배고픔이 정말 필요한 신체적 배고픔인지 다른 유인들이 있는지를 잠시 멈추고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스스로 양보다 질적인 섭식에 중점을 두도록 이끌어 낸다.

실제 미국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한 임상실험에서도 '마음챙김 먹기'를 실행한 실험군은 평균 3.6kg의 체중이 감량했고, 증가한 사람은 없었다.

크리스텔러 명예교수는 "마음챙김 먹기는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양보다 질' 원칙과 짧은 명상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습관과 자기수용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학 교육서 명상 활용

마지막 연사로 나선 해롤드 로스 교수는 '북미 대학의 성찰학에서 명상의 의미'를 통해 '성찰학' 전반에 대한 소개와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로스 교수는 25년 전부터 대학에서 관상적 실천을 병행하는 수업을 도입·운영했다. '성찰학'의 주요 분야는 △과학 △인문학 △창조 예술 전반을 다루며 현재는 브라운대학 내 독자적 교수법을 갖춘 정규 학부로 자리매김했다.

명상이 특정 종교의 전파로 오인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판적 일인칭 학습' 원칙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로스 교수는 "이는 신념 전제 없이 3인칭 텍스트 분석, 1인칭 실습, 경험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결합하는 접근"이라며 "참여가 곤란한 학생은 동등 가치의 대체 과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선택한 사람은 2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찰학의 교육 목표로 로스 교수는 '성찰적 지능(Contemplative Intelligence)'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로스 교수는 "'성찰적 지능'은 무인칭·일인칭·이인칭·삼인칭 인식론의 통합을 통해 학생들의 주의 집중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선지식·지성인과 만남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자신을 만나려면 우선 멈춰보세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사진〉이 '선지식·지성인과의 만남'에 일곱 번째 연사로 나서 '실참을 통한 체감명상'을 주제로 강의했다.

스님은 9월 27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선명상을 직접 지도하며 "멈추어야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광용 스님은 "요즘은 10년 전 것만 해도 '옛것'이라 여겨지는데 2600년 전 부처님 말씀은 여전히 보편타당한 진리로 여겨진다"며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부처님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참선"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반야심경〉 구절 중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를 언급하며 "여기서 '관(觀)은 몸과 마음을 멈추고 깊은 지혜로 보는 것이다. 즉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참선이고 선명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5분만이라도 명상하고, 차츰 익숙해지면 하루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중심성이 생기고 명상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광용 스님은 △처음부터 단전에 집중하려 하지 마라 △몸에 힘을 주지 마라 △의식적으로 숨을 조절하지 마라 등 명상할 때 주의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일러 주고 명상 체험을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싱잉볼 소리에 맞춰 몸을 반듯이 하고 숨을 들이쉬었다. 싱잉볼의 울림에 따라 점차 깊은 고요에 빠져들었다. 스님은 "들숨과 날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살펴보고, 몸이 힘들면 그곳에 숨과 주의를 머물러 보라"며 "몸과 숨과 의식의 에너지가 중심을 잡으면 단전 깊은 곳에서 텅 빈 의식 하나로서 편안히 머물게 된다"고 지도했다.

실참 후 광용 스님은 〈증일아함경〉 '선악품'을 통해 △욕심을 줄일 것 △용기를 가질 것 △설법을 자주 들을 것 등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당부한 10가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쳤다. 여수령 기자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조 실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총무국장 보관 문화원장 성일
기획국장 향성 종책실장 덕산
교무국장 용안 문화국장 혜복
재무국장 성우 사회국장 법륜
포교국장 탄학 호법국장 현묵
전법국장 혜교 복지국장 혜각
연수국장 청효
문화특보 혜공 사회특보 도심
정무특보 혜성 복지특보 무일/최종환
전법특보 묘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 연꽃유치원 /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 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리 실버인력뱅크 / 구리 인창경로식당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재)대각문화원

밀양 영산정사

주 지 **영봉 법웅**

신 도 회 장 **송한기**
관 음 회 장 **전옥이**
지 장 회 장 **신순덕**
신도회총무 **조혜진**
사 무 장 **능인행**

세계최대 황금와불



경남 밀양시 무안면 가례로 233(서가정)
전화 055-356-0181, 010-3417-5008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 음 산 **불곡사**

주 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전화 055)282-7402

단청이 아름다운

화개산 반야사

주 지 **종오 혜명**

사부대중 일동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경북교구원장 **천호**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모집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 무 국 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의 전 원 장 **동민 경오**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 · 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 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대한불교 법보 조계종 종 정 **향운**
사)함께 가는 길이 사 장 **혜상**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해 동 자 비 원 원 장 **만호**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일 산 자 비 원 원 장 **도일**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각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㊽ 선악(善惡)과 업(業)



▶한줄 요약
중생, 특히 사람은 어느 때는 착하고 어느 때는 악한 경우가 누구에게나 발생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되 사람을 미워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말고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디 선악은 없다…업에 따라 나타날 뿐

[오늘의 명상]
솔잎 끝에 매달린 맑디맑은 이슬방울
밝은 햇빛 반짝 닿아 오색 빛이 영롱한데
이런 생각 저런 감정 소슬바람에 실려 보내니
맑은 마음 풍경(風磬) 소리 이슬방울에서 울리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업(業)에 의해 살아갑니다. 업이란 인과(因果, 이것이 원인이 되어 저것의 결과가 생기는)가 습(習)이 되어 버릇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때로는 즐겁고 괴로우며, 때로는 선하고 악하며, 때로는 정의롭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악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닿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하게 되는 인과의 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선설(性善說)은 맹자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사람의 성(性)은 선(善)한 것이고, 악(惡)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성악설(性惡說)은 순자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사람의 성(性)은 악(惡)한 것이고, 선(善)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보는 선과 악은 서로 상대적인 업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선악 모두 사라진 상태를 진공(眞空)이라 하여 업 자체가 없는 것이지만, 사바세계 중생에게는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덩달아 생겨 이내 속진(俗塵)의 업이 발생하고 맙니다.

중생, 특히 사람은 어느 때는 착하고 어느 때는 악한 경우가 누구에게나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인과(因果)에 의한 인연의 시간(때)에 따라 달리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에는 '지금은 선의 때가 되어 착한 사람이구나' 또는 '지금은 악의 때가 되어 악한 사람이구나'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되 사람을 미워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말고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과 악으로 접근하면 선악(善惡)은 인과로서 영원히 엎치락뒤치락하게 될 뿐이니, 선은 악을 부르고 악은 선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에 대한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돌이 섞였으면 돌만 골라서 치우면 될 터인데, 돌을 치우면서 굳이 감정을 실어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악을 부수어 통쾌할 수는 있으나, 악은 또 다른 악의 인과를 낳게 되어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 사바의 모습이고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악을 부수는 분별의 통쾌함보다는 인과의 순리를 볼 줄 아는 지혜로 현상을 대한다면 선악은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입니다.

이런 후에 정의로운 자비심과 행동하는 자비행이 저절로 이뤄집니다. 그리된다면 내 자신의 행동은 맑은 마음의 풍경(風磬) 소리 되어 이슬방울에도 아름답게 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무지개는 서로 다른 색깔들 모여 아름답듯이
자연도 사람도 여러 색이 모여 조화로운 것이니
어느 색깔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다 하겠는가
세상도 사람도 서로 색깔이 다를 뿐인 것을.

세상은 서로 상대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입니다. 풍요로움이 있으면 메마름이 있고, 맑은 하늘이 있으면 먹구름 덮인 하늘도 있습니다.

번개 치고 파도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생기는 것은 지극한 자연의 섭리(攝理)이듯이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건강한 만큼 병이 오고 젊음이 있었으니 늙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시비(是非)와 싸움이 있고, 병란과 전쟁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에 있어서 가뭄과 수해, 지진과 해일이 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바세계의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움직임이나 사바세계를 만드는 원인인 마음의 모습 또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비바람 몰아치고 먹구름이 쏟아내는 폭풍우가 있었으니, 맑은 햇살과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처럼 세상의 섭리 또한 인과(因果)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 **사바세계 중생들, 업에 의해 살아가**
> **인과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 결정해**
> **선과 악 구분하되 감정적 접근 금물**
> **선입견 갖지 말고 이해심을 가져야**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 또한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자 한계이고 순리(順理)라 할 수 있겠으나, 다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괴롭고 슬프고 불행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화를 내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연이나 사람의 마음은 인과에 의한 순리이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여 천둥번개가 바뀌어지거나 잔잔한 바다와 파도치는 바다 중에 어느 한쪽만 취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결과적 모습들이 잘못되거나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번개와 지진과 폭풍우와 해일이 잘못되거나 옳지 않다고 보지 않듯이 사람간의 시시비비의 문제 또한 자연의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이 아닌, 자연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봐야 합니다. 마치 무지개의 일곱 가지 색깔을 보듯이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납니다. 한쪽만의 날개로는 높이 날 수 없고, 오랫동안 날 수 없습니다. 인간사 역시 한쪽은 옳고 한쪽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무지개 색깔을 보듯 서로 다름에서 오는 조화로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자비의 마음이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평안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벽 암 지 홍
신도회장 환희지 이난희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주(금) 19:0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YouTube 금강정사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동)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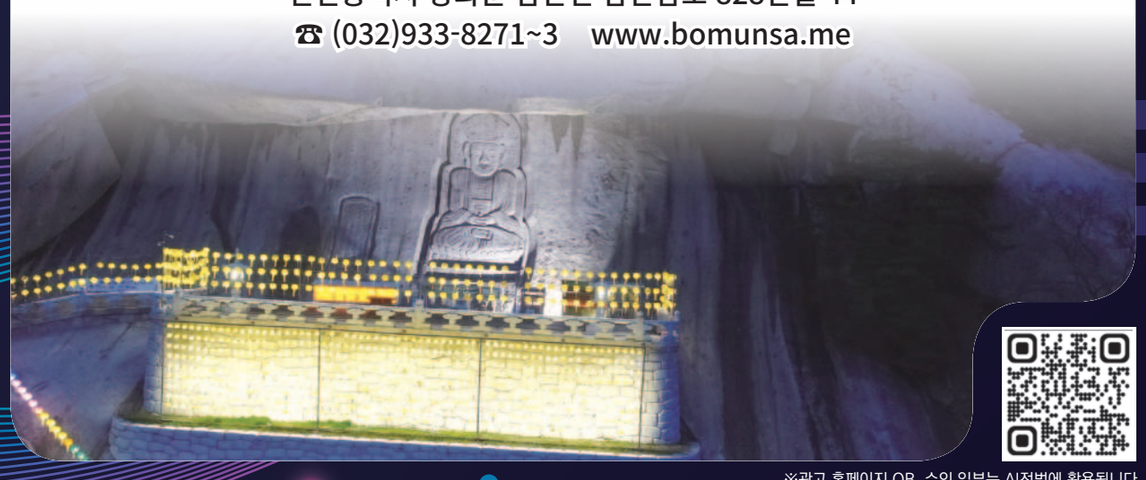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문사

사부대중 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 (032)933-8271~3 www.bomunsa.me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⑮ 희장(熙藏, 熙莊, 熙壯, 希藏) 스님



▶한줄 요약
조각승 희장 스님은 17세기 중반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활약하며 독창적인 양식을 정립하고 불교조각의 계보를 이어 간 대표적 조각승이다.

17세기 호남·영남 이은 불교조각의 주역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승일 스님은 응혜(應惠) 스님, 희장(熙藏) 스님, 계찬(戒贊) 스님 등 다수의 제자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17세기 중반 이후 불교조각의 주요 양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중 희장 스님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사찰의 중심 전각 및 부속 전각에 불상을 조성했다.

희장 스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636년 12월에 부여 무량사에서 수화승 승일(勝一) 스님과 함께 여러 불상을 제작한 것이다. 이때 제작된 불상 중 하나가 현재 제천 경은사 목조문수보살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이다. 당시 희장 스님은 조각승 9명 중 여섯 번째로 기록돼, 그룹 내에서 중간 정도의 연배나 실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희장 스님은 1639년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四)보살상(보물)의 조성에 청헌(淸憲)·승일(勝日) 스님 등과 함께 참여했다. 1643년에는 응혜 스님이 주도한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1646년에는 승일 스님이 만든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현재 관음보살은 소재 불명)의 조성에도 부화승으로 참여하면서 점차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희장 스님은 1649년부터 수화승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1649년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현재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구미 원각사 봉안, 도 유형문화유산), 1650년 남원 만행산 금강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현재 진안 금당사 봉안, 도 유형문화유산), 1653년 고흥 불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약사·아미타불은 현재 고흥 능가사 봉안), 1654년 선종 대선사(禪宗大禪師)로서 조성한 경산 반룡사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현재 목조미륵보살좌상만 청도 대운암 봉안, 도 문화유산자료) 등이 있다. 이후로도 희장 스님은 1658년 부산 진구 선암사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중수(시 유형문화유산), 1661년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1665년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1666년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 문화유산자료)과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보살좌상(도 유형문화유산) 등을 제작했다. 1667년 영광 연흥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이 희장 스님의 마지막 작품으로 최근에 확인됐다.

문헌 기록과 현존 유물에 근거할 때, 희장 스님은 1610년대 태어나 1620년대 불상 제작 수련기를 거쳐, 1630년대에는 청헌(淸憲)이나 승일(勝日) 스님이 주도한 불상 조성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했다. 이후 1640년대 중반에는 승일(勝日)이나 응혜(應惠) 스님이 만든 불상에 부화승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1640년대 후반부터는 수화승으로 독립적인 조성 활동을 본격화했다. 희장 스님의 조성 활동은 1660년대 후반까지 지속됐으며, 주로 호남과 영남 지역 주요 사찰의 중심 전각인 대웅전이나 극락전, 부속 전각인 명부전에 다양한 불상을 제작했다. 희장 스님은 수화승으로 경북 구미와 경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진도·무안·영광, 부산 등 8곳의 사찰에 불상을 제작했다. 이외에도 조성 시기 및 작가 미상의 서산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부산 범어사 영산전 목조석가여래좌상, 대전 심광사 목조여래좌상 등도 희장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희장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현진(玄眞, 이하 활동 시기 1604~1639)→승일(勝一·勝日, 1622~1670)→응혜(1634~1678)·희장(1636~1667)·계찬(1633~1686)→보해(寶海·普海, 1646~1680)·혜정(惠正·惠淨·慧定·慧淨, 1650~1670)으로 이어진다.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50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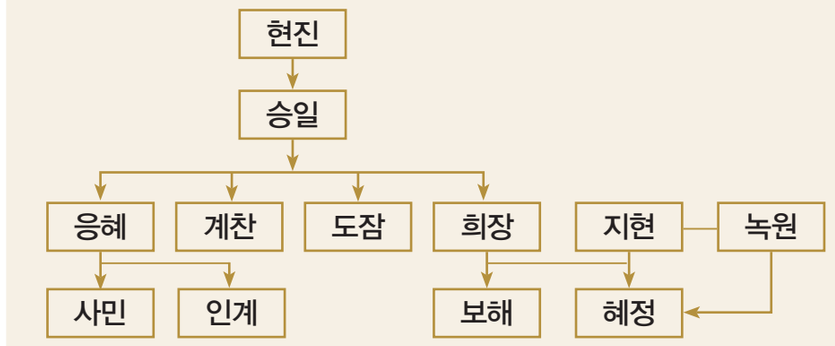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61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영광 연흥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67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승일 스님 계보 잇고 30여 년간 활동
1640년대 후반부터 수화승 독립 활동
진안 금당사 · 부산 범어사 등에 조성

희장 스님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희장 스님과 활동을 함께 조각승으로 보해(寶海) 스님이 주목된다. 보해 스님은 1646년 승일 스님이 주도한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현재 관음보살은 소재 불명) 조성 시 맨 마지막에 언급돼 이때부터 불상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화승 희장 스님이 만든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49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0년), 고흥 능가사 목조약사·아미타여래좌상(1653년) 등에 보조화승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부화승으로 부산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중수(1658년),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1661년),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1665년) 및 목조지장보살좌상(1666년), 영광 연흥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67년) 등의 조성에 참여했다. 또한 보해 스님은 1678년에는 남해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부화승으로 지현 스님과 함께 조성했으며, 수화승으로 1679년 양산 통도사 목조제석천왕과 1680년 고흥 송광암 목조여래좌상을 제작했다. 보해 스님은 희장 스님보다 10여 년 활동 시기가 늦고, 마지막 활동 시기가 1680년인 점을 볼 때, 희장 스님의 직계 제자로 판단된다.

희장 스님이 마지막으로 만든 불상은 1667년 영광 연흥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다. 아미타여래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강희 6년 정미 8월 28일에 영광 연흥사에 석가여래, 약사여래, 아미타여래를 봉안했다'는 기록을 통해 정확한 제작 시기와 불상 이름, 봉안처를 알 수 있다. 세 존상(尊像)은 이목구비, 신체 비례, 착의법에서 동일한 조형적 특징을 보여 일괄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가 110.5㎝인 중형 불상으로, 얼굴과 상체의 비례가 약 1:3.5로, 인체 비례에 근접한 안정적인 비례를 갖춘다.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 정수리에 상단이 둥근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돼 있다.

석가여래상의 착의법은 대의 안쪽에 부견의를 입지 않고, 두꺼운 대의만 착용한 변형통견식이다. 대의 자락은 오른쪽 어깨에 'V자형'으로 내려오고, 다른 자락은 좌측 어깨를 감싸며 무릎 위로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하반신을 덮은 복부 중앙의 대의 자락은 비파 모양처럼 상단이 좁고 하단이 넓게 펼쳐진 표현이 독특한데, 이는 희장 스님 불상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 상단에는 도식화된 5개의 연판형 주름이 접혀 있다.

희장 스님이 1649년부터 1667년까지 만든 불상들은 이목구비의 온화한 표정, 안정적인 신체 비례, 독자적인 착의법, 통일된 수인(手印) 표현 등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희장 스님의 조형 감각은 제자인 조각승 보해 스님에게 계승돼 17세기 후반 불교조각 양식의 한 흐름을 형성했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 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지 묘 장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3길 56(회기동 109-1)
☎ (02)962-6186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세계불교, 하나의 자비로 모이다”

2025 세계불교 마하 평화봉사대상 성료







“평화와 자비, 당신의 참여가 세상을 밝힙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 빈곤 구제, 의료 복지, 교육 지원,
평화 증진을 실천해왔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서울 HW컨벤션센터서 열린
‘마하 평화봉사대상’ 시상식은
봉사와 인류애의 공로를 기리며
평화의 길을 굳건히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이 원력은 여러분의 후원과 동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세상을 자비로 물들이는 힘이 됩니다.

2026년 대구서 세계불교법왕 대법회가 열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대구에서 열릴 ‘세계불교법왕 대법회’와
‘마하 평화봉사대상 시상식’에
불자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읍시다.

“당신의 후원이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세계불교법왕청 국민 023501-04-214874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중앙정부**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03158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
大韓民國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도메인 : 세계불교법왕청.kr E-mail : moktak1@naver.com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50호 | A24 | 전면광고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적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및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만 수익
- 시세 70억 매가 45억, 주차가 매수완료시 수익1000~1300만 가능
- 위치 : 충남사찰 봉안당
- 면적 : 2000평, 사찰
- 법당 : 30평, 봉안 20000분
- 현재운영 중, 버스 진입 가
- 매가 : 25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서울 포교당

- 서울 은평구 3층건물 3층 (지하철역에서 300m이내 대로변 위치)
- 임대평수 24평
- 보증금 1000/월세 80만원
- 시설 인수 2500만원 필요, 냉난방 완료
- 인수 후 바로 사찰 운영 가능

010-3776-379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번지 4층
- 약 30평, 방2, 법당1, 화장실1
- 보증금 500/월세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인연닿아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 찾습니다

010-4641-5474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및 집기 일체 5000만원(절충)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장소 : 경북 포항
- 대지 : 1500평
- 건평 : 100평(법당, 공양간, 스님방, 종무소, 삼존불)
- 6년차 신축건축물
- 매매금액 : 12억원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별 장 토 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분천리 비룡산 700고지
- 임야 : 2631평/대지 : 55평 (전체토지 준보전산지)
- 작은계곡 접함
- 컨테이너 1동포함
- 금액 : 5천만원

010-4124-778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모라동

백양산 천연굴법당

- 요사채 법당 15평 별도 존재
- 몽땅 7000만원 (조절 불가)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현재 스님 기도 중(신도 다수)

스님 010-3033-7677(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남 해남읍
- 평 수 : 530평
- 법 당 : 13평 목조
- 요사채 : 70평
- 가 액 : 2억 2천

010-9940-0037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5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1동 / 종무소 · 객방 13평-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동국대병원 10분(차)
- 대지 : 250여평, 법당 30평, 정남향.
- 특징 : 산속 청정수, 1년 내 마르지 않음 (가재); 서출 동녘수 형산강을 끼고 있어 연년 중 시원함. 도량 내 200년 된 소나무. 힘이 샘솟으며 사찰기운이 강함.
- 텃밭 : a,100평 식재중, b,300평 휴경중 (모두 국유지) ★시설 일체 무료 인수★
- 슈퍼 : 1km, 5km 내, 3개 • 매가 : 3억 8천

010-9388-0215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장소 : 여주시 점동면 산사
- 대지 : 703평
- 대웅전, 진신사리 3층석탑,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상수도, 지하수, 전기 (태양광 포함 13K)
- 양도가액 : 6억원

010-5481-2560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 감곡시내
- 대지 : 800평
- 대웅전, 연못, 휴게소, 찜질방, 종각 산신각, 신비한 거북바위, 요사채 방7개, 리라이트찜질 가온기5대
- 가액 : 9억 / 전세 : 3억 5천

하실분 전화주세요 문자 먼저 주세요

010-5883-225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6898-9114

토 지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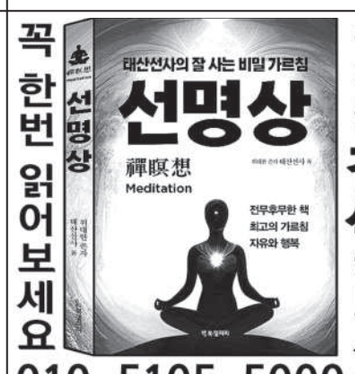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계상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강남보각사 서울제1교구 진주보각사
- 대표자 : 법담스님(속명 : 김도균)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38(양재동)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80(강남동)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할인 이벤트 행사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수연스님의 AI 명품운명 컨텀

지혜와 과학이 만나는 운명의 길
전통 명리학과 최첨단 AI문서가 하나되어
수연 스님의 깊은 통찰로 사주 · 궁합 · 사업 · 시험 · 운세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성공을 설계하고 미래 성공을 설계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맞춤 상담

예약전화 010-2239-0300
SUYEON SUNIM`S AI PRESTIGE FATE QUANUTUM

전국 어디든 사찰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구해드립니다

국제결혼 무료로 인연맺어드립니다

010-9260-1672

스님, 처사님, 행자, 공양주보살 (75세까지 가능)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희귀병 상담

-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 무엇인가 알면서도 해결 못하시는 분
- 매일같이 몸이 아프신 분
-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으신 분

합천군 가야면 죽전길 132-2 법정사 해산스님

010-7321-0404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⑲ 팔정도(八正道)

진리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까지 아울러

올해 초 동국대학교 팔정도 광장에서 '팔정도 동판 제막식'이 있었다.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란 글자가 학교 메인 광장의 중심에 자리를 잡은 모습에 여러 상념이 든다.

학생들이야 별생각 없이 밟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문지방만 밟아도 그 공덕이 크다 하지 않는가. 〈법화경〉 방편품에도 "탑 안에서 나무불(南無佛)을 읊조린 까닭에 반드시 붓다가 되리"라고 쓰여 있다. 동국대 입학만으로도 알 수 없는 전생으로부터 부처님 법과 인연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팔정도를 시각적으로도 심상에 새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 인연으로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부처님과 인연이 닿으리라 감히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동국대를 산책하며 우리는 가파른 언덕길만을 올라왔다. 이때의 시선은 위쪽이라는 한 방향으로 향했으나, 지금은 정각원을 지나 학교 정상인 팔정도 광장에 도착했다. 이 광장은 여덟 방향으로 넓게 펼쳐져 '팔정도(八正道)'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동국대에서 처음으로 시야가 탁 트인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 장소기도 하다. 이곳에 이르러, 시각의 일방향성이 해소되고 인식의 지평이 시원히 열리게 됐다. 이 자유로운 인식 속에서 산책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고자 한다.

팔정도의 첫걸음은 정견, 곧 '바른 인식'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오해의 여지를 품고 있다. 흔히 '바르다'는 말에는 도덕적 옳음이나 상식적 분별이 겹치기 쉽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는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규범 정도로 이해시킬 수도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도덕의 선악이나 사회적 판단 기준과 같은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존재를 관통하는 진실에 대한 앎, 즉 출세간적 앎이다. 그리고 이 앎은 단지 지적 이해나 이론적 수용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가능해지는 인식이다.

이 점에서 정견은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면서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초기불교나 아비달마에서는 이를 세간적인 일과 출세간적인 일로 나눠 설명한다. 전자는 인과의 법칙에 대한 확신, 즉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윤리적 통찰이다. 이는 반드시 불교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반면 후자는 사성제에 대한 직접적 통찰로, 고(苦)의 성립과 그것을 멸할 길에 대한 실천적 앎이다. 이는 오직 붓다만이 제시하신 길이다. 하지만 두 정견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즉, 세간의 언어와 논리는 출세간의 지혜를 담기 어렵기에 이 같은 전환에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요구된다. 바로 믿음이다. 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불교를 이성의 종교라고만 알면 이는 50점도 안 되는 이해이다. 그 불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필요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동국대 팔정도 광장 중앙에 설치된 팔정도 동판.
현대불교 자료사진

정견은 불교 수행과 믿음의 출발점
바른 인식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要
구원, 붓다 가르침 실천 과정서 보여

불교 인명학의 종장인 법칭(法稱)의 인식론은 정견을 위한 믿음의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인명학은 논리학으로 불교학 분야에서도 가장 이성적 사용을 강조하는 학파다. 이 이성적 학파의 거두인 법칭은 인식의 바름을 보증하는 수단, 즉 '프라마나(pramāṇa)'에 대해 "붓다의 가르침만이(혹은 붓다 그분 자체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바른 인식의 근거"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붓다는 모든 무명을 여의고 실상, 정확하게는 사성제를 바르게 관찰하신 분이시므로, 붓다의 언설은 오류 없는 인식, 곧 바른 기준일 수밖에 없다.

법칭에 따르면, 붓다라는 프라마나에 귀의하지 않으면 정견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닐까. 즉,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칭이 붓다를 프라마나라고 설정한 이유다. 불교도에게 구원이란 "참말을 하는 자이며 실 있는 말을 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자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眞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狂語者 不異語者]"이시고, '일체지자(一切智者)'이신 붓다의 언설을 믿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이뤄진다.

물론 붓다께서는 자신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으셨다. 어디까지나 청자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붓다의 말을 음미하고 믿을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리셨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시작하는 정견은 단지 '무엇이 진리인가'를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불자 스스로의 마음가짐(붓다에 대한 절대적 믿음)까지를 아우르는 말이다.

이처럼 정견은 이해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믿음은 바른 인식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자 조건이다. 불교가 인식의 종교라고 할 때 그 출발점에 믿음이 놓여 있다는 것은 불교가 오직 이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 없는 정견은 형식만 갖춘 껍데기에 불과하며, 삶을 바꾸는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사실 그런 정견은 없는 것이다. 깨닫기만 하면, 바르게만 보면 우리가 붓다와 같아질 수 있다는 자만한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성이라 해봤자, 흔들리고 번민하여 기준점이 될 수 없는 반딧불이의 불과 같을 뿐이다.

반면 붓다는 항상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서 북극성의 빛과 같다. 법칭이 말한 프라마나로서의 붓다란 바로 이 북극성이다. 그 빛을 따라가면 고해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자, 바른 인식을 가리키는 유일한 기준이다. 수평선 너머에 안식처가 있을지는 빛에 대한 믿음만이 보증할 뿐이다.

믿음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작동한다. 모든 것이 논리와 경험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면, 믿음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논리와 경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기나긴 윤회의 밤을 지새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인식은 본래 한계가 있고 모든 존재는 변화하며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와 같은 세상에서 정견을 갖는다는 것은, 변화와 조건 너머에 도달한 자를 지남(指南)으로 삼아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결심과 다르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동국대 박사〉

나찰조차 부처님 인연 존중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㊳ 걸람바총나찰인연(羯籃婆塚羅剎因緣)

⑤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선남자야, 과거에 '반차라(般遮羅)'라는 나라에 승군(勝軍)이란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때 나라에는 '걸람바(귀신들의 거처)'라는 무덤 구덩이가 있었는데, 매우 무서운 야차와 나찰들이 안에 살고 있었으므로, 누구나 거기 들어가는 이는 놀라서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때 나라 안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이 있었다.

왕은 전옥(典獄)에게 명하여, 죄인의 몸 다섯 군데를 묶어 '걸람바' 구덩이로 보내 악귀들로 하여금 죽이게 했다. 죄인은 이 말을 듣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찾다가 우연히 한 조각의 천을 얻어 목에 매었다. 전옥은 왕의 명령대로 죄인의 다섯 군데를 묶어 구덩이로 들여보내고 돌아왔다. 밤이 되어 '도검안(刀劍眼)'이란 큰 나찰 어미는 5천 권속을 데리고 구덩이로 들어왔다. 죄인은 그것을 보고 몸과 마음을 몹시 떨었다.

그때 나찰 어미는 다섯 군데를 묶이고 머리를 깎고 붉은 가사 조각을 목에 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곧 오른쪽으로 돌고 존중히 예배하면서 합장 공경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으리. 나는 결코 해치지 않으리. 머리 깎고 가사를 걸친 당신을 보매, 불현듯 부처님이 생각나네.' 그러자 나찰의 아들은 어미에게 말했다. '어머니, 나는 주리고 목말라, 몸과 마음이 핍박을 받고 있소. 원컨대 저 사람을 잡아먹게 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하소서.' 나찰 어미는 곧 아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항하의 모래 수같이 수많은 부처님의 해탈 당기의 가사를 입었으니, 저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리.' 그러자 나찰의 아들은 그 권속들과 함께 이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며 예배하고 합장 공경하며 말했다. '가사 입은 이에게 참회하나니, 나는 차라리 내 부모에게 몸과 말과 뜻의 악업을 지을지언정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으리라.'

그때 다시 '려라치'라는 큰 나찰 어미가 있었는데, 그도 5천 권속에게 둘러싸여 무덤 구덩이로 들어왔다. 그도 죄인이 묶인 채로 머리를 깎고 가사를 목에 맨 것을 보고, 곧 오른쪽으로 돌며 예배하며 말했다. '당신은 두려워 마라. 당신 목에 매인 가사는 부처님의 당기 모양의 옷이기에 나는 예배하고 공양하네.' 그러자 나찰 아들은 어미에게 말했다. '사람의 피와 살은 맛이 있나니, 원컨대 어머니는 내가 먹게 하여 몸과 마음의 힘을 증진해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오.' 나찰 어미는 말했다.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사람에게 나는 지금 공경하고 예배하나니, 원컨대 오는 세상에서 항상 부처님 뵈옵고, 깊은 신심 내어지이다.'

그때 또 '쟁녕발'이라는 큰 나찰 어미가 있었는데, 그도 5천의 권속을 데리고 무덤 구덩이로 들어왔다. 그도 죄인이 다섯 군데로 묶인 채, 머리를 깎고 붉은 가사 조각을 목에 맨 것을 보고는, 곧 오른쪽으로 돌고 예배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말했다. '부처님 당기 모양의 가사를 지혜로운 사람은 받들어 찬탄하라. 누구나 (그에게) 공양하면 필히 온갖 생존의 결박을 끊으리.'

그때 나찰 아들은 그 어미에게 말했다. '이 사람 몸의 피와 살은 이 나라 왕이 주신 것이네. 원컨대 먹고 마시게 하여 힘을 얻어 어머니를 섬기게 하소서.' 나찰 어미는 아들에게 말했다. '가사를 입은 이런 사람은 네가 취할 것이 아니니라. 그에 대해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반드시 큰 고통의 그릇이 되리라.' 나찰의 아들은 여러 권속과 같이 이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며, 합장 공경하며 말했다. '당신은 바로 부처님의 종자로서 좋은 복밭이 되기에 넉넉하네. 그러므로 나는 공양하나니, 원컨대 모든 생존의 결박을 끊게 하소서.'

그때 또 '도검구'라는 나찰의 어미가 있었는데, 그도 5천의 권속과 함께 무덤 구덩이로 들어와 … 위와 같이 죄인을 돌고 존중하며 게송으로 말했다. '우리들은 지옥을 두려워하나니, 당신의 목숨을 해치지 않으리. 마땅히 결박을 풀어 주리니,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지이다.' 그리하여 나찰의 권속들은 자비심을 일으켜, 이 사람을 풀어 주고 위로하며 돌려보냈다. 이때 전옥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승군 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희유한 일이라고 하며, 곧 법령을 만들어 전국에 반포했다. '지금부터 이 나라에 사는 부처님 제자로서 계율을 지키거나 깨뜨리거나, 혹시 아주 계율이 없더라도, 다만 머리를 깎고 가사만 입었어도 그를 능욕하거나 해치지를 못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마땅히 죽을 죄로 다스릴 것이다.' 이로써 백성들은 모두 왕의 덕을 사모해 그를 남섬부주의 왕으로 삼았고 성심으로 삼보에 귀경했느니라.

선남자야, 과거의 나찰들은 … 머리를 깎고 가사 조각을 걸친 것만을 보고서도 공경 찬탄하며 조금도 해칠 마음이 없었느니라. 그런데도 미래 세상의 포악한 왕과 재관·바라문 등은 악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것이 저 야차나 나찰보다 더하며, … 나의 제자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고 곤장을 때리고 고문하며 감옥에 가두고 그 목숨을 끊는다. 이것은 삼세의 부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선근을 불태우는 것이며, 지혜로운 이의 모든 배척을 받을 뿐 아니라, 결단코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송림사 주지〉

염불 하실 때 법당의

기존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와 스님 자신이 양손에 마이크를 잡고
(헤드셋 마이크 포함) 마이크 소리 비교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난감 수준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때 귀 법당 시설의 1/3가격에 본사 시설을 선택하시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최신디지털앰프 : 비구니 스님도 앰프다루기 1초 / 고장없음 소리비교 비용 한잔!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별도 : 야외방생용 판매)
충전식 / 출력 3kw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가능
야외사용 겸용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원(願) 성취를 위한 8차
금강경 독송 21일
21독 정진대법회

정법도량 해남사에서는 3·7일간 금강경 정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하루에 21회 금강경을 독송하는 원(願) 성취를 위한 정진기도입니다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소의경전이자 모든 불자의 신심의 근본인 경전입니다.
금강경 독송기도는 자신의 진정한 신심과 원력을 일깨우는 정진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願) 성취의 인연을 만들어 갑시다.

입재 : 2025년 10월 22일
회향 : 2025년 11월 12일

기도시간
오전 8시 ~ 낮 12시
오후 2시 ~ 오후 4시
저녁 7시 ~ 저녁 9시

문 의
☎ 해남사 종무소
052) 211-3340
010-7450-3340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말사
행복도량 해 남 사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⑲ 한로_남해 길을 걷다(2)

▶한줄 요약
꽃이 지고 나무의 푸른빛이 점점 바래 가는 때, 새들이 지구 반 바퀴를 도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한로다.



새들의 여정이 시작되는 이슬의 계절

남해 금산, 험준한 바위산 절벽 위에 석탑이 하나 있다.

잠들지 않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천년을 하루처럼 머물렀던 시간. 그것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탑의 틈새마다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숨겨 두고 떠나곤 했다.

밤이 되면 탑은 품었던 소원들을 하늘로 보낸다. 소원은 하늘로 올라가 반짝이는 별이 되고, 길을 헤매던 이들은 그 별을 보며 다시 가야 할 곳을 찾았다.

지금은 차가운 이슬이 내리는 시간. 탑은 숨겨 두었던 품속의 별을 꺼내어 다시 밤을 밝힌다. 길을 찾는 누군가를 위해, 다시 돌아올 이들을 위하여.


남해 금산에서 바라본 상주해수욕장과 상주마을 일대. 상주마을은 갯마을로 아름답고 모래가 좋아 휴양지로 인기가 높다.


남해 금산 절벽에 자리한 보리암 삼층석탑.


남해 다랭이마을. 척박한 땅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계단형 다랑논이 특징이다.


다랭이마을의 밥무덤. 마을 중앙과 동 · 서 세 군데에 있다.

석탑의 시선

경상남도 남해 보리암.

금방이라도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솟아오를 듯한 바위들이 산중 암자를 호위하고 서 있다. 금빛 비단을 두른 산이라는 금산(錦山), 이곳의 바위들은 어느 하나 허투루 자리한 것이 없다. 마치 부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태초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여느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사천왕상 대신 화엄과 제석, 일월, 대장의 네 봉우리가 거대한 수호 신장(神將)이 된 이곳. 이 영험한 성지는 그렇게 산과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지킨다.

깎아지르는 절벽 위의 암자, 우뚝 선 해수관음상은 보리암을 상징한다. 하지만 그 곁에는 보리암의 어떤 전각보다 오랜 시간 이곳의 터를 지켜 온 석탑이 하나 있다.

'남해 보리암 삼층석탑(南海 菩提庵 三層石塔)'.

해수관음상보다 몇 걸음 더 앞에 선 이 탑에는 오랜 전설이 있다. 김수로 왕비 허태후(許太后)가 인도의 월지국(月之國)에서 올 때 잦은 풍파를 만나자, 한 스님이 뱃머리에 파사석(婆娑石)을 올려 주었다. 그리고 허태후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을 예견했는데, 그 뒤로는 어떤 장애도 없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후 원효 대사가 보리암을 창건하면서 그 파사석으로 만든 탑을 이 자리에 세웠다고 전해진다.

바다의 풍랑도 잠재운 강력한 힘을 지닌 돌. 그리고 그 돌을 품은 탑. 그래서일까, 지금도 보리암 석탑에서는 나침반도 제힘을 쓰지 못하고 바늘이 흔들리는 이상 현상을 보인다.

작고 소박한 모습의 오래된 석탑. 하지만 누구도 이 탑의 신묘함에 대해 의심하는 이는 없으리라. 머리로는 하늘을 이고, 발아래는 만경창파(萬頃蒼波) 춤추는 바다를 두고 천년 넘게 살아 온 비보사탑(裨補寺塔)이다. 그리고 그 석탑의 고요한 시선 끝에 이 땅의 뭇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것이다.

생명의 터전

금산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수많은 섬이 별처럼 흩뿌려진 남해의 모습은 더욱 절경으로 다가온다. 가파른 절벽에 자리한 보리암, 그곳의 석탑이 내려다 보았던 것은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뭇 생명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저 멀리 푸르른 산천이 바다에 맞닿는 그 사이에 작은 갯마을이 보석처럼 빛난다. 남해는 위에서 보면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펼친 모양으로 앵강만은 바로 그 날개 사이에 자리한 해안이다.

6천만 년 전, 이곳 남해의 땅은 빙하기 이후의 숱한 산고를 거치며 급경사와 굴곡 심한 해안의 지형을 만들어 냈다. 덕분에 오늘날에도 종을 셀 수 없는 생명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중생대 백악기의 도마뱀 화석이 발견되고, 거대한 화강암 지형은 풍화와 침식을 견디어 낸 기암절벽의 산맥이 되어 남았다. 어떤 곳은 백색의 모래사장이 되었으며, 어느 곳은 수천만 년 동안 갈고 닦여 몽돌해변이 되어 버린 곳. 깊은 바다에서 잠들었던 땅이 용솟음쳐 떠오른 그날부터 남해는 끈질긴 생의 역사를 증명하는 연대기가 된 셈이다.

앵강만은 동쪽 끝인 가천마을부터 서쪽 끝인 두모마을까지 그 다채로운 풍경이 한데 모인 곳. 길고 긴 해안을 따라 총 아홉 개 마을과 주상절리, 갯벌, 몽돌해변, 앵강다숲, 유채밭, 다랭이논이 퍼레이드처럼 이어진다. 또 그 안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이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사계절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다는 남해지만, 지금은 부지깽이도 바쁘다는 수확의 계절이다. 저 멀리 누렇게 익어가는 다랭이논이 물결칠 때면 석탑의 마음도 일렁이고 말았을 터다.

다시 돌아온 10월, 켜켜이 쌓인 저 논두렁 위로 그렇게 또 한 번 나이테가 쌓인다.

다랑논의 마을

10월은 '한로(寒露)'와 함께 시작된다. 한로는 이름 그대로 차가운 이슬로 오는 절기.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간을 말한다. 입춘이나 동지처럼 세시풍속의 의미보다 자연의 흐름을 나타내는 절기인 셈이다.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영근다'는 말처럼 이즈음은 알곡에 막바지 살이 오르고, 또 더 추워지기 전 추수를 준비해야 하므로 논밭마다 일손이 귀해지는 때다.

꽃은 지고, 나무의 푸른빛이 점점 바래 가는 때. 그리고 한로를 기점으로 수천수만의 새들은 지구 반 바퀴를 도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앵강만의 동쪽 끝을 지키는 가천마을. '다랭이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곳은 바닷가부터 가파른 절벽을 일구어 만든 다랑논이 장관이다.

3평부터 300평에 이르는 680여 개의 다랑논이 108층의 계단을 이루는 곳. 삿갓 아래 숨겨질 만큼 작은 땅인 '삿갓배미'조차 어엿한 논밭으로 셈을 했다는 척박한 땅이다.

바다를 지척에 두었으나 절벽 지형 탓에 배를 세울 수 없는 갯마을. 쉬이 고기를 잡을 수도, 만만한 땅 한 뼘도 없는 매몰찬 이곳을 명승지(대한민국 명승)로 거듭나게 한 것은 오직 사람의 땀과 인내일 것이다. 지형 특성상 물을 대기가 쉽지 않아 빗물에 의존하고, 그만큼 수확을 내기가 쉽지 않은 땅이지만 여전히 이곳의 주민들은 다랑논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느 성곽보다 견고하고 절실하게 쌓아 올려진 삶의 터전. 그것은 단순한 논밭이 아니라 하늘에 닿는 길이었을지 모른다. 돌무더기 절벽이 한 계단 한 계단 생의 터전으로 바뀔 때마다 사람의 마음도, 하늘의 뜻도 그만큼 닮아 갔을 것이다.

밥과 희망

다랭이마을에는 아주 오랜 유산이 있다. 바로 '밥무덤'이다. 이 땅의 첫 모습이었을 돌무더기를 정성껏 쌓아 올린 밥무덤. 마치 부뚜막 같기도 하고, 솥단지를 얹어 놓은 것 같기도 한 정겨운 생김새다.

다랭이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시월 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제를 지낸 뒤, 밥무덤에 쌀밥을 곱게 묻어 둔다. 이름 모를 배고픈 혼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을 위해서.

절박했기에 더 소중한 한 그릇의 밥을 정성껏 지어 올리고, 더 나은 풍요의 시절을 기원하는 것. 이 세상에 이보다 정당하고 애틋한 소원이 또 있을까.

오래되고 낡은 것들에는 자비가 쉬이 허락되지 않는 시대. 그 속에서 깨끗한 대나무 줄기에 새끼줄로 금줄을 달아 만든 밥무덤의 소박한 결계는 도리어 어떤 무장보다 성스럽고 강력하다. 저 다랑논에서 생명을 키우는 이들이 있는 한 밥무덤도, 또 마을 사람들 함께 어우러지는 동제도 그렇게 이어지리라.

한로는 제비가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시간. 새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남해에도 곧 수많은 새가 떠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저 높은 산 봉우리의 석탑이 다시 하늘에 별을 밝힐 때, 그렇게 길을 찾아올 것이다. 〈작가〉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 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 불교대학 · 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052) 212-7000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쾌적한 최신시설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 정토사 불교대학/ 대학원 1997년 개교 ☎(052) 274-3800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경전반: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신행단체/ 문화교실 ☎(052) 258-9944
초하루,보름,지장재일,관음재일, 다라니 기도, 금강경 독송, 법화경 전독기도
어린이회, 청년회, 신도회, 동문회, 청소년합창단, 여성합창단, 혼성야간합창단, 민화반, 마인드케어명상반, 오카리나반, 간화선 수행반, 심념처 명상반
◉ 장학 봉사 복지단체 사)참좋은세상 ☎(052) 260-0707
울산 남구 문수로217번길 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한국불교태고종
보현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5-6448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재홍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1-7731



대행 스님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자기 주인공을 믿고 말겨 놓으라

지난 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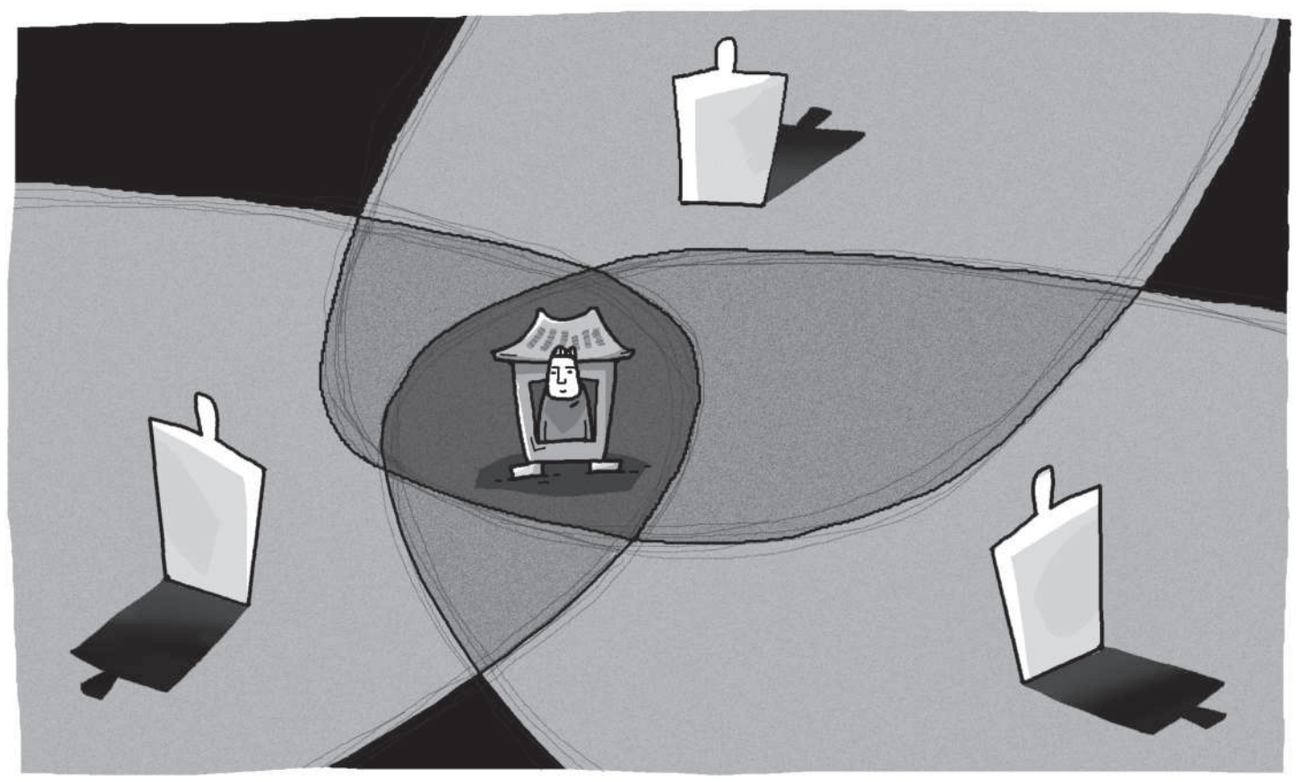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짐승의 탈을 써 보십시오. 개 탈을 썼다 이럴 때 내가 아무리 속으로 '내가 사람이다' 하고 사람의 말을 해도 개가 짖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개 탈을 썼으니까 개로 대접하지 사람으로 대접을 해 줄 수가 없지요. 한 가지 예로 표현을 할 때 말입니다. 그처럼 아무리 사람의 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고양이로 태어났거나 독사로 태어났다면, 사람의 의식으로 아무리 말을 한답시고 지저대고 찍찍거려 봤자 그것은 뱀의 소리고 벌레의 소리고 개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말입니다.

그저 여러분은 무서운 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화나는 대로 그냥 내뱉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아이, 저놈 급살이라도 맞아라." 한다든가 "너는 깡통밖에 못 찬다." 한다든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생각도 없이 말을 해도 그것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귀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 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의 업식들이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병명이 이러니까 우리도 인제는 어찌할 수 없다' 하니까 '아이구, 인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선고를 그냥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이 되니까 그대로 될 수밖엔 없는 겁니다. 아이한테도 "깡통을 차려고 그러느냐? 너,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안 하면 넌 항상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막 욕을 해 댔는데,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자식들에게나 부모에게나 부부지간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모두가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대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는 알게 나오기 마련이고 모르고 하는 거는 모르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생각 한 번, 행동 한 번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말 한마디를 해도 한데 떨어뜨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여러분이 한생각으로써, 잘됐으면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거라면 '거기서 안된 것이 나온 거니까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다.' 하고 되돌려 놔야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부처님 발을 왜 평발이라고 했을까요? 하다못해 지렁이 발도 부처님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지렁이 발이 어딨느냐고 하시겠죠? 하여튼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항상 계신 겁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나셨다가 열반하셔서 이제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는 한 부처님은 항상 계시는 거죠. 일체제불이 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찰나에 들고 찰나에 나십니다. 왜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50%에 매달려서 그렇게 허덕입니까.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작용을 하고 돌아가는 100%의 한세상을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신계의 50%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로 둘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점점 발전력과 창조력이 약해질 겁니다. 과학이 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의사, 박사들이 어떠한 것을 알아내서 못 고치는 병들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지 완전히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고를 호소하면 그 병고를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고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병고만이 아니라 애고라든가 모든 걸 말입니다. 만약에 의사, 박사들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해서 불치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병고의 싹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돼서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그 병이 온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부 하시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안 들었다고 해서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을 놔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지를 한 찰나에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과거의 숙명을 아주 꿰뚫듯이 알아도 도가 아니니라. 또는 타심을, 명백히 남의 속을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하나 켜려면 초, 심지, 성냥, 켜는 사람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에서 천차만별의 법이 들고 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되 절대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자기 자성 부(父)를 만날 것입니다. 자(子)와 자성 부가 같이 상봉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해서 평등공법이요 수레공법이요 활궁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시면서 일러 주신 이 길을 똑바로 아시고 똑바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업이 있다 하더라도, 망상이 수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병고가 생겼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다 제자리에다 되돌려 놓는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정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도 있고, 묵은 빚도 갚고 햇빛도 줄 수 있고, 나를 발견해서 이 세상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끌어다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알 수도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멀고 가까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거를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하셨던 것은, 우리가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줄 수 없고 자기가 목마른데 먹을 수 없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찾아와서 어디가 어떠니 어디가 어떠니 이럴 때에 나는 내 대답을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대로 말을 하고 가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양쪽의 전깃줄과 같으니까, 부처님 법에 의해서 전깃줄이 딱 붙게 됩니다. 사람이 전깃줄을 갖다가 붙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통하면 그냥 와서 쩔꺽 붙게 돼서 하나로 되면서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 들어왔을 뿐이지 양쪽의 전깃줄은 내가 했느니 네가 했느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 줬다, 내가 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한 마디도 한 예가 없고 내가 마음을 낸 예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 나

☞ A28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한데 떨어뜨리지 말라

☞ A27면에서 계속

다, 내가 이만치 배웠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높다 낮다, 이게 정법이고 저게 사법이다' 이런 것을 따진다면 벌써 깨달음과는 천리만리 멀어지는 겁니다. 풀 한 포기도 나 아님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어느 거 하나 내 스승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것도 없는데 어찌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나중이다, 이것이 틀렸다 그것이 잘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수와 돈오도 없다. 둘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선과 교가 둘이 아니다. 넓게 본다면 이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을 알 것이다. 수억겁을 거쳐 진화되면서 찰나에 화해서 자꾸자꾸,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듯이 이렇게 거쳐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알 것 같으면 네 자식 내 자식 내 부모 네 부모 이렇게 따질 것도 없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요 앞의 것만 생각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갈 수는 없죠. 절대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은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은 자기같이 살라고 하고…, 그게 전부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자체가 모두 팔만대장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 좌선이다 입선이다 와선이다 행선이다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선입니다. 좌선을 하는 것만 참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무척 잘못된 일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선은 끊어지니까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바로 알고 있는지 큰스님께서 들으시고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생들은 몸에 중생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십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생심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 중생심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나 분별심에 의한 착을 한마음 자리에 되돌려 놓고, 억겁을 쌓아 온 선업 악업도 다 제자리에 돌려놓아서 지혜가 자꾸 밝아지면 모든 고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 해탈한다. 소위 중생이 해탈한다는 그것이 곧 부처 자리에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진리에서는 태어남과 죽음, 즉 생멸이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과 간혹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나서 살아간다는 건 곧 죽어 가는 거니까, 생과 사를 합해 가지고 시공을 초월했을 때 하나의 찰나니까 이것이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자가 맞다면, 생멸이 없다는 그 자체는 열반경지에 가신 분만 아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저희 중생들이 마음으로라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서울에서, 즉 시발점에서 차를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을 왔는데, 종점에서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종점이 아니라 또 시발점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종점과 시발점이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그냥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가 그냥 있어야만이 죽는 것인데, 부산에 왔다가 도로 타고 도로 가야 되고요, 갔으면 또 와야 되고 왔으면 또 가야 되고, 이러니 살아나온 것이 따로 있습니까? 또 죽어 갈 것이 따로 있습니까?

질문자1(남)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고 죽고 또 나고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남과 죽음은 열반경지에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큰스님 방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늙어 죽어야 가고 오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정신계와 물질계를 한 찰나에도 들고 한 찰나에도 나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둘이 아니게 그냥 그대로 한 찰나에 나고 한 찰나에 들고 이러시기 때문에, 아예 죽고 사는 생사를 벗어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자기가 못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게 아니라 본래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을 해야 생사가 둘이 아닌지 어떤지를 알게 되지 말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2(남) 오늘 이 좋은 날 주옥 같은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질문까지 하게 되어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법무아, 제행무상, 일체개공, 열반적정. 오늘 이 KBS홀에 만장하신 여러분께서는 일체의 고해를 넘어서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해서 열반의 경지에까지 가도록 수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음 주인공과 해탈을 해서 열반하는 그 수행과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도리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원자에서 입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한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을 다 포함하고, 이 우주 전체를 다 싸안으라 해도 싸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천체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산소를 저장했다가 인간에게 주고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내주듯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하면 일체가 다 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귀합이 돼서 나 너가 없이 돌아가는 것을, 즉 말하자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하는 거와 똑같이 '주인공' 하면 이름해서 주인공이지 없는 것을 뜻합니다.

똥 누러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똥을 누죠? '똥을 눠야 하나, 안 눠야 하나?' 이런 생각이 없이 똥 마려우면 그냥 변소에 가서 똥 누듯이, 그냥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 거기에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수행에 있어서 첨단의 길입니다.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못하든 잘하든 자기네들이 하고 있지 딴 사람이 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못하든 잘하든, 망하든 흥하든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한 거를 '이 몸뚱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인의 심부름꾼이 한 게 아니라, 이 심부름꾼은 심부름만 했지 주인이 한 거로구나.'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십시오. 주인과 심부름꾼이 둘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되맡겨 놓으면 벌써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해지고, 잘못돼 나가던 애들이 벌써 유순해지고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다. 또는 애들이 잘못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실천으로 나옵니다. '우리 생활이 참선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것을 그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되돌려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선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맡겨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이 무르익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걸 되돌려 놓고 지켜보는데, 잘되는 건 감사하게 되돌려 놓고 안 되는 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믿음으로 거기에다가 되돌려 놓으시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극한적인 괴로움은 벗어날 겁니다.

질문자3(남)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탐진치 삼독과 번뇌 망상심, 이런 도리는 제가 알겠는데요, 병고의 문제에 대해 조금 전에 스님께서 '그 모든 병고가 공부거리로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감이라고 하기에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고에 대한 이치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여러분이 그렇게 모습으로 보고 모습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체가 없는 마음자리로 본다면 그게 아닙니다. 어떠한 병고가 닥치더라도, 즉 말하자면 하늘이 무너지고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태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않고 뭘 믿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또는 이름을 믿겠습니까,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먹을 믿듯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운전수를 믿어야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수억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십시오. 죽어도 거기요 살아도 거기니까,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거기를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세요. 믿는 것은 그렇게 살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 사는 걸 다 놓을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맡겨 놓으신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자기 소망대로 될 것입니다.

질문자3(남)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사주나 관상이나 미래학을 볼 때에 흔히들 생년월일과 시(時)를 넣어 줘야 그게 나온다는 것을, 제가 직접 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행한 업이 생멸의 시와 어떤 관계가 있기에 꼭 생년월일, 시를 넣어야 그게 나오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시를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름을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도리가 바로 부처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다 되돌려 놓으라고요. 뭐, 이사 날짜가 나빠서 어떻고, 삼재가 들어서 뭐가 어떠니저떠니 하면서 죽을까 봐 겁내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에 놓으세요. 또 한편으로 볼 때, 내가 이날 이사 간다 했으면 그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삼재가 들어서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입력이 돼서 꼭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마음을 잘 쓰시라 이겁니다.

질문자3(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0월 11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똥 마려우면 그냥 변소에 가서 똥 누듯이
그냥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 거기에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수행에 있어서 첨단의 길입니다.

世界가 인정한 聖鐘社 명품 범종이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남해 부소암종 (중량 600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되며, 범종계의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종사 범종이 세계 최초로 입체조각기법을 범종에 도입하여, 한국 범종 수준을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현재 화천군민의 종(2000관) / 중국 남보타사종(1000관)을 본 기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입체감, 생동감, 화려함, 정교함을 자랑하는 성종사의 명품 범종

범종명가 성종사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습지길 35 ◆ Tel : 043-536-2581 ◆ Fax : 043-536-2582
◆ 홈피 : www.sungjongsa.co.kr ◆ e-mail : won6141@hanmail.net ◆ 대표 : 범산 원광식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⑲ 사마타 수행의 핵심 1

마음에게 대상 주기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을 찾는다. 그 이유는 마음은 대상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음의 성품이고, 마음이 살아남는 방식이다. 그래서 부단히 여기저기 집착의 대상을 바꿔가며 스스로를 유지한다. 마음의 변화무쌍함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 또는 날뛰는 망아지[心猿意馬]'에 비유된다. 또 부정적인 마음의 전개는 매우 위험하기에 '술 취한 코끼리'에 비유되기도 한다. '심우도(또는 십우도, 깨달음의 과정을 소와 동자에 비유해 10단계로 그린 그림)'에는 '미쳐 날뛰는 검은 소'가 등장한다. 이는 오염된 마음의 거친 흐름을 비유한 것이다. 고삐 풀린 소는 제멋대로 거세게 날뛰며 주변의 풀들을 짓밟는 줄도 모르고 나와 남을 해치고 있다.

마음의 날뜀, 가장 큰 방해꾼

수행의 가장 큰 방해꾼은 '마음의 부유(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이다. 그냥 놔두면 끝 간 데 모르고 참으로 다양한 변주의 집착과 번뇌 망상을 만들어 낸다. 마음은 계속해서 대상을 바꿔 가며 집착을 일으킨다. 그것은 '항상 변화 중'에 있다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예를 들면 하나의 슬픔이라는 감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완전히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 또 하나의 반찬을 탐해 그것을 목에 넘기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다른 반찬에 가 있곤 한다. 일어난 마음에 집착이 들러붙는다고 치면, 벌써 마음은 또 다른 대상으로 옮겨 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누워 있거나 좌선하고 있는 경우 등), 생각은 더욱 치성하게 움직인다. 마음은 지극히 사소한 자극(촉으로 인한 느낌)에도 기존에 닦아 놓은 습(習: 되풀이로 인해 버릇으로 정착된 고질적인 에너지 패턴)대로 순식간에 길을 가 버린다. 이때 알아차림으로 인한 분리가 없다면, 이 같은 '마음의 작용'에 '나'를 동일시하게 되고 나는 마냥 휘둘리게 된다.

고통을 스스로 즐기고 있다?

마음은 잔인하게도 내용을 상관 하지 않고, 파장 또는 진동이 가장 컸던 기억을 떠올려



전면의 집중점이 잡히면, 부단히 그곳에 집중을 유지한다. 그러면 빛이 발생하게 된다. ©강소연

생존하기를 즐겨 한다. 그래서 숙주(기생물체에게 영양을 공급해 살게 하는 주인체)인 내가 고통을 받건 안 받건 상관하지 않는다. 가장 자극적이어서 가장 힘들었던 파장의 기억과 감정일수록 대환영이다. 큰 파장으로 스스로를 생존하게 할수록, 살아 있다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무명 속 중생이 "고통을 스스로 즐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습관이란 무섭다. 습관이 되면 거적때기도 비단 이불보다 편안하게 느껴진다. 습관이 되면 우울과 슬픔과 알코올의 구정물도 내가 안주하는 거주처가 된다.

이렇듯 한번 일어난 것이 스스로를 있다[有]고 착각해[無名] 그것을 유지하려는 성품을 자성(自性)이라고 한다. 한 번 일어났던 생명, 한 번 일어났던 마음, 한 번 일어났던 분노, 한 번 일어났던 탐욕, 한 번 일어났던 슬픔 등은 업식으로 내장돼 다시 한 번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되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린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형성돼 마음이 다시 촉발하는 즉시, '갈애와 염오'라는 '집착'을 더해 스스로를 더욱 강화한다.

여기서 '특정 조건'이라는 인(因)이 되는 것은 대부분 '수(受: 느낌)'이고, 수는 다시 '촉(觸: 닿음, 부딪힘)'을 인(因)으로 하여 일어난다. '촉'은 육근과 육경의 만남을 가리킨다. **"알아차림하는 부처님의 제자는 느낌을 알고/ 느낌(이 어떻게 비롯되는지) 그 기원을 알며/ 어디서 느낌이 그치는지/ 그리고 느낌의 멸진(滅盡)으로 이끄는 길을 아느니라/ 느낌의 멸진에 다다랐을 때 비구는 갈증이 풀려 열반을 성취한다.(〈쌍윳따 니까야〉)"**라고 붓다께서는 설하신 바 있다. 즉, 느낌 관찰[수념처受念處]만 잘해도 그것을 인(因)으로 유발되는 상(想)-행(行)-식(識)의 전개를 소멸할 수 있다.

마음에게 끊임없이 '바른 대상' 던져 주기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성품을 간파했다면, 부질없는 마음의 작동에 휘둘리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한다. 선수 치는 방법은 석가모니 붓다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 마음에게 '바른 대상'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정정(正定: 팔정도의 하나로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라!(〈관무량수경〉)" 불안과 죽음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위데휘 부인에게 붓다께서 하신 말씀, 아니 (거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무엇이 바른 집중 대상인가?(지난 연재② 참조) 〈관무량수경〉에는 석가세존께서 극락으로 가는 집중 대상을 하나하나 던져 주시는 내용(16관법)이 나온다. 바른 집중 대상에 마음을 묶어 두는 것, 이것이 사마타 수행의 핵심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⑲ 약값

약값, 언제 처방받느냐에 따라 달라

처음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의 조제와 복약은 언제나 적당한 긴장감을 준다. 특히 다른 약국에서 옮겨 온 고객은 더더욱 그렇다. 그날도 그러했다.

"어머니, 저희 약국엔 처음 오셨네요. 오늘 처방받으신 혈압약 잘 지어 드릴게요."

"아. 여긴 다니던 약국보다 약값이 비싸네. 젊은 약사라 그런가?"

"어머니, 왜 그런지 같이 한 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약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바뀐다고 병원에서 말씀하시던가요?"

"아니, 똑같아."

"이번엔 석 달분인데 혹시 전에는 두 달분 받으신 것 아닌가요? 일수가 달라졌나요?"

"아니, 아니라고!"

"아, 오늘은 토요일이니 주말 가산이 붙어서 그런가 봐요. 지난번에는 토요일에 약을 지으신 게 아니셨죠?"

"요일이 달라졌다고 약값이 비싸지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것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똑같은 처방전으로 대한민국 어떤 약국에 가든, 같은 금액으로 약을 지을 수 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약을 짓는다면 말이다.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값은 약의 가격과 조제료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약의 가격은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므로 모든 약국에서 동일하다. 그럼에도 약값이 달라지는 경우는 조제료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가장 낮은 기본 조제료로 책정된다.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전이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공휴일, 일요일에는 기본 조제료에 30% 가산이 붙는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는 심야 가산이 적용돼 조제료의 100%가 가산된다. 다른 이들의 퇴근 시간에 업무를 보는 약사에 대한 나라의 작은 배려라고 볼 수 있겠다. 회사에도 야근 수당이 있지 않은가. 그렇기에 토요일 오후 약을 짓거나, 평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가 넘어서 약을 지으면 약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유용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아침에 병원 진료를 보고 오전 8시 50분쯤 약을 짓게 되면, 즐겨 보는 유튜브를 10분 정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9시 이후 접수하는 것이 좋다. 몇 분 차이로 약값이 조금이나마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만 65세 이상 고객의 약값이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약값이 싸진다고 막연히 알고 있거나, 모든 약을 무조건 1천원만 내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 이것은 일부 사실이지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엔 기본 조제료
土 오후 1시 이후, 공휴일 · 日 30% 가산
만 65세 이상 1만원 넘길 때 20% 부담해

또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약값의 총액이 1만원 이하로 책정될 때에는 약값이 3천원이든, 8천원이든 본인 부담은 동일하게 1천원이다. 하지만 약값 총액이 1만원을 넘으면, 약값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값 총액이 1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약값이 1천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간단한 진통제나 짧은 기간의 감기약은 1천원으로 지을 수 있지만, 처방 일수가 길어지고 고가의 약이 포함되면 약값이 확 오르는 경우가 그런 이유로 생기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약국에서는 천원에 약을 지어 주는데 어느 약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오해하시지는 말아 달라. 약이 달라져 총 약값이 1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된 것뿐이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약값은 나라에서 의료보험 지원을 해 주는 급여 약품 품목에 한한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약은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씩 나라에서 정해 주는 약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는 이전 달과 이번 달의 약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때는 일반적이지는 않으니 여기서 따로 다루진 않겠다. 이외에도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약값이 궁금할 때에는 단골 약국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물어 보자. 약사님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줄 것이다.

혹시나 정말로 조제받은 약값이 약국에 따라 달라졌다면, 어디에선가 약값을 할인해 주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약값을 할인해 준 착한 약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것일까? 아니다.

그 약사가 고의든 아니든 법을 위반했으니, 보건소나 해당 관할 구역에 신고해 바로 잡아야 한다. 약사법 제23조(처방의 변경, 수정 금지)와 제44조(업무의 준수) 조항에 의거, 약사는 정해진 기준대로 조제·투약을 해야 하며, 임의로 금액을 낮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할인·면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적발 시 업무정지 15일 이상, 과징금 부과, 보험청구 제한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조제료 할인은 생각보다 큰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약사에게 내 건강과 직결된 약을 받고 싶은 고객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약값과 관련된 경험 중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누구도 이전과 비교해 약값이 비싸졌다고 하지, 싸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약국 벽에 걸린 약사 면허증에 맹세컨대, 약국 생활을 하는 13년 동안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말 놀랍지 아니한가.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선덕정사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 rooftile co 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전화 054)954-8008(代) 팩스 054)954-5335

불기2569년
한국불교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제7회 충남도민과 함께하는
국립망향의동산
영산위령재
2025년 10월 25일 [토] 오후2시
국립망향의동산 특설무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72-8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주관 |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충남불교문화진흥원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충청남도 천안시 BTN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전법 일기

불자 정체성 확립에 주도적 삶 최고 경험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2021년 첫 학기, 저는 오직 학업에만 몰두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외부의 기대와 스스로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듯했던 시간이 끝나고 방학이 찾아왔을 때, 예기치 않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성과만으로는 내면의 자존감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 학기에 저는 캠퍼스에서 학우들과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며 서울대학교 불교동아리 '총불'에 가입했습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란 다짐으로 동아리 활동에 임한 저는, 곧 차기 총불의 회장 소임을 맡게 됐고, 다음 해인 2022년은 저에게 '불교의 해'가 되었습니다. 이 해에 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워크숍을 통해 홍대선원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경계 없이 어울리는 조화로운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곳에서 준한 스님께 불자(佛子)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을 따르고 불법을 공부하며 불교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면 불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간결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이 명쾌한 답변은 제게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신시켜 주었고,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를 당당하게 불자라고 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확립은 동아리 운영 방식을 혁신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저는 법우들이 단순히 틀에 박힌 템플스테이가 아닌, '스님과의 진솔한 소통'을 갈망한다는 것을 대화 속에서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기존의 템플스테이를 과감히 생략하고, 스님과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펜션을 빌려 밤 늦게까지 차담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관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전법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도적인 태도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휴학 기간 동안 회사 인턴 대신 홍대선원의 스태프로 일하는 것을 선택했고, 이는 제 인생 최고의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전에는 시간이 흐르는 대로 끌려가는 듯했지만, 홍대선원에서의 시간은 제 선택이 힘을 가지고 그 책임까지 온전히 질 수 있는 주도적인 삶의 경험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말입니다. 그때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송산하 JustBe 홍대선원 프로그램 파트장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⑳ 완벽한 삶

더 이상 뺄 것 없는 상태

완벽한 문장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 이 말을 우리네 인생으로 돌려보면, 완벽한 삶이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만, 그 나은 삶이 무엇인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더 멋진 여행을 꿈꾸며 안달복달하는 우리는 이 완벽한 삶이란 정의 앞에 모두 후안무치다. 모두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타인과의 '비교 지옥'에서의 해탈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완벽한 삶을 지향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은 생존을 고민하지 않는다. 배고플 때 때맞춰 밥을 주고, 아플 때 때맞춰 치료해 주고, 번식기에 때맞춰 짝을 지어 주기 때문이다. 행복이 목적인 동물들에게는 정말로 안성맞춤의 삶이다. 반면 동물원 밖에서 사는 동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날마다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고, 실시간으로 천적들의 공격을 막아 내야 하며, 짝짓기를 위해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 살아간다는 말보다는 견뎌 내야 한다는 말이 더 잘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생존과 행복이 보장된 동물원의 동물처럼 금수저로 타고나 사는 게 멋진 삶일까, 아니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고통을 견뎌 내며 야생의 동물처럼 사는 게 진짜 삶일까? 그런데 동물원에서 주는 음식과 야생에서 직접 사냥해 먹는 음식은 무슨 차이라도 있는 건가. 쉽게 배를 채울 수 있는데, 굳이 목숨을 걸고 사냥할 필요가 있을까. 풍부한 영양소에 적당한 포만감을 주는 알약을 개발해 식사를 대체하면 정말 좋은 일 아닌가. 삶의 목적은 과연 생존인가, 행복인가, 또는 자유의지인가, 자아실현인가. 그럼 어디까지가 생존을 위한 것이고, 또 어디까지가 자유의지를 위한 것인가. 그 경계가 참으로 모호하다.

자유의지·자아실현 경계 모호한 삶
자기만의 기준 없어서 우울 불안해
삶은 무시무종의 영원의 바다 같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는 데서 의미가 생기고 자율성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낀다. 내가 원하는 최고의 안목과 감각을 경험하고 싶어 어제의 나보다 더 정진하며 보람을 느낀다. 과정과 결과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매 순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강렬한 기쁨을 느낀다. 이것은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로 보느냐, 경험을 통한 성장으로 보느냐와도 상관이 없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끝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온전히 내 삶을 감각하며 즐길 수 있다. 밖으로 아무것도 구함이 없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완벽한 삶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자기만의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매번 남의 말에 흔들려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좋은 시절, 사람들이 자꾸만 우울하고 불안한 이유는 자기만의 기준이 없기에 수평선처럼 다가가도 다가가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생멸하는 파도가 죽음이 두려워 슬피 울 때는 그가 바다 일부임을 알려 줘야 한다. 그 바다가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영원임을 알려 줘야 한다. 그리고 이 삶이 영원의 바다처럼 더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이미 완벽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 줘야 한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스포츠 포교, 신도회의 새로운 플랫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올가을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대중 스포츠를 매개로 한 '자선 골프대회'와 '자선 파크골프대회'를 처음으로 잇달아 개최했다.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번 대회들은 '자선'이라는 사회복지적 의미와 종교적 메시지가 결합돼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신도회의 새로운 활동 영역 확장과 불자 공동체 결속의 전환점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통적으로 사찰 중심의 신행·포교 활동은 경전 강설, 법회, 수계·봉사 중심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종교조직에도 응집력 외연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 행사는 다양한 면에서 '열린 창'이자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스포츠 행사는 지역 신도회와 본사가 연결되고, 다양한 교구 간 교류가 이뤄지면서 사부대중도 어우러지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참가비 일부를 사회복지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식은 '자비 나눔'이라는 불교 본래 정신과 스포츠가 조응하는 지점이다.

상호 격려와 성장 경험은 신도 간 유대감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경기 과정에서의 응원, 실수에 대한 위로, 성취의 기쁨은 공동체적 감정을 키운다.

더불어 교구의 참여와 지원이 신도들에게 '내 소속의 가치'를 더해 준다. 결국 이는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경험적 유대의 장이자 '소속의 감각'을 재구성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중앙신도회가 70주년을 계기로 선보인 자선 골프·파크골프 대회는 한국 불교 신도조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이 실험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내리려면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수다. 중앙신도회뿐 아니라 각 교구본사와 신도회가 힘을 모아 스포츠 포교의 기반을 다질 때 한국불교는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다. 스포츠를 통해 펼치는 자비의 네트워크가 한국불교 공동체의 미래가 되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서원, 우리 삶을 바꾸는 지름길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불자라면, 그리고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따라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을까"란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그러한 질문을 멈췄다면, 혹여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면, 불자로서 자신의 삶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

불자들은 경전과 스님들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다. 그러나 막상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화엄경〉 보살문명품에 등장하는 대화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 문수 보살이 물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어떤 중생이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면 모두 온갖 번뇌를 끊을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도 끊지 못하며, 바른 법을 능히 받아 지니면서도 무슨 이유로 마음속에 다시 번뇌를 일으킵니까?" 법수 보살이 대답했다. "당신의 질문이 사실이니, 단지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여래의 법 가운데 들지 못할 것입니다."

눈으로 자주 부처님을 보고, 귀로 자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막상 부처님이 행하거나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부처님과 나 스스로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화엄경〉은 보살문명품의 다음 순서에 정행품(淨行品)을 배치한다. 여기서 정행(淨行)

행하지 않는 삶, 부처님 가르침 멀어져
몸·말·마음 씀씀이 깨끗이 해야
찰나의 언행도 허투루 하지 않아야

은 '깨끗한 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을 깨끗하게 하는 품'이라는 의미이다. 부처와 나 스스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몸과 말과 마음 씀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행품은 그 과정의 핵심을 바람, 곧 서원이라고 강조한다. 품 전체가 출가 보살과 재가 보살이 매일 부딪히는 사소한 일과마다 어떤 바람, 곧 서원을 일으켜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즉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바람(서원)을 일으켜 의지로서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옷을 입는 것을 예로 들면, '옷을 입을 때는', '옷을 정돈하고 띠를 맬 때는', '윗옷을 입을 때는', '가사를 입을 때는' 등으로 구분한다. 옷을 걸치는 순서에 따라 그 옷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부끄러움을 놓치지 않고 흐트러진 마음을 단속하며 최상의 선근을 얻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일으켜 놓지 않기를 바라는 서원을 일으키기를 요청한다. 한순간 한 찰나의 행동과 말과 마음의 움직임에도 정성과 바람을 담아 허투루 살지 말라는 의미이다.

물론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늘 일어나서 내 행동과 말과 마음 씀씀이를 신중히 하는 고삐가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해야 한다. 나아가 그 서원이란 고삐가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도록 다짐을 거듭해야 한다.

중추가절(仲秋佳節)! 가을 한가운데 들어 선선한 바람이 옷자락을 헤치고 드는 때다. 더위는 가을바람에 물러서고 곳간이 가득해 여유를 부리며 푸른빛 가득한 하늘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는 계절이기도 하다.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정담을 나누고, 친지며 친구들을 만나 잊고 지낸 시간의 회포를 풀어내기도 하는 명절의 즈음이다. 만나는 이들 모두에게 평온함을 서원한다면, 더 아름다운 명절일 것이다.

클릭을 넘어 관계로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K-POP의 글로벌 인기가 더 이상 음악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개봉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같은 작품은 단순한 아이돌 서사를 넘어, 팬덤과 판타지 세계를 접목한 확장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아이돌은 현실 속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지만, 웹툰 속에서는 초월적 존재와 싸우는 헌터로 다시 태어난다. 음악 산업과 스토리텔링의 결합이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웹툰 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공한 웹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캐릭터의 강렬한 정체성이다. K-POP 아이돌이 무대에서 각자 콘셉트를 가지고 팬들과 관계를 맺듯, 웹툰 속 주인공도 독자에게 나만의 이야기를 각인시킨다. 둘째, 연속적 서사 구조다. 매주 업데이트 되는 웹툰은 팬들이 기다림을 즐기게 만들고, 지속적 몰입을 가능케 한다. 셋째, 참여형 소비 문화다. 독자는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댓글, 팬아트, 2차 창작을 통해 작품의 세계관을 확장한다.

뿐만 아니라 웹툰은 모바일 친화성이라는 강점을 지닌다. 한 손가락으로 스크롤만 하면 이야기가 펼쳐지고,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일상 속 빈틈을 파고들어 가는 친

이용자 클릭할 만한 정보 선제시
'보여 주는 뉴스' 소비하는 시대로
독자 소통 창구 제공에 신뢰·몰입

근한 형식은 대중의 이탈을 막는 힘이 된다. 결국 웹툰은 한 번 클릭한 독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독자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언론이 주목해야 할 현상이 '제로 클릭(Zero Click)'이다. 검색 엔진이 이용자의 맥락을 예측해 클릭할 만한 정보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독자는 더 이상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제공한 요약 정보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한다. 뉴스 사이트에도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과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기사를 클릭해 읽는 비중이 높았다면, 제로 클릭 시대에는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 짧은 클립으로 뉴스를 접하는 방식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검색에서 '탐색하는 독자'가 주도권을 쥐던 시대에서, 알고리즘이 '보여 주는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로 옮겨 간 것이다.

이는 마치 웹툰이 본문보다 '짤', 명장면, 캐릭터 '밈'을 통해 확산되는 것과 닮아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역시 SNS에서 '밈'으로 소비되며 인지도를 넓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클릭을 유도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확장했는가'다.

전통 미디어가 웹툰과 K-POP의 성공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독자를 단순한 조회 수로 계산하는 순간, 관계는 끊긴다. 반대로 웹툰처럼 캐릭터를 매개로 세계관을 열어 주고, K-POP처럼 팬덤과 소통하는 창구를 제공할 때 비로소 신뢰와 몰입이 쌓인다. 제로 클릭 시대의 저널리즘은 클릭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게 관건이다.

社 說

AI시대, 불교의 길을 묻는다

창간 31주년 'AI' 특집호
지혜 · 자비 담는 언론될 것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1주년을 맞아 'AI와 미래불교'를 주제로 특집 기획을 마련했다. 기술 담론을 넘어, 불교계가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묻고자 함이다.

이미 불교계 곳곳에는 AI가 깊이 들어와 있다. 법회와 의식 준비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직접 예불을 준비하고 집전하는가 하면, 신도들의 신행·인생 상담을 맡고, 명상 등 수행을 지도하는 등 그 활용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편의성 이면에는 기술 의존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와 수행자 역할의 약화, 공동체 붕괴 등이라는 그늘이 자리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특집호에서는 불교적 가치와 시대적 과제를 연결하고자 했다.

첫째, 불교계 현황을 점검했다. 이미 많은 사찰·단체가 행사 준비와 번역, 콘텐츠 제작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 법적·윤리적 기준 또한 불분명하다. 인터넷에 AI로 손쉽게 만든 비불교적·상업적 콘텐츠가 범람하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이웃 종교의 사례는 거울로 삼고자 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AI 윤리선언을 발표하며 기술 발전이 인간 존엄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불교계에 주는 함의를 살폈다.

셋째, 'AI와 미래불교' 좌담회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우리가 AI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미래불교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불교계 역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 AI 윤리선언'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넷째, 불교계 최초로 AI그림 공모전을 개최해 불자와 대중이 직접 AI를 경험하고, 불교와 디지털 예술의 융합 가능성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만난 결론은 분명하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가치를 지켜 내고 드러낼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가짐과 제도가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불교계는 더 늦기 전에 AI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윤리적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무조건적인 효율과 속도를 좇는 시대에, 자비와 생명존중, 인간 존엄이라는 불교의 가치를 선명히 드러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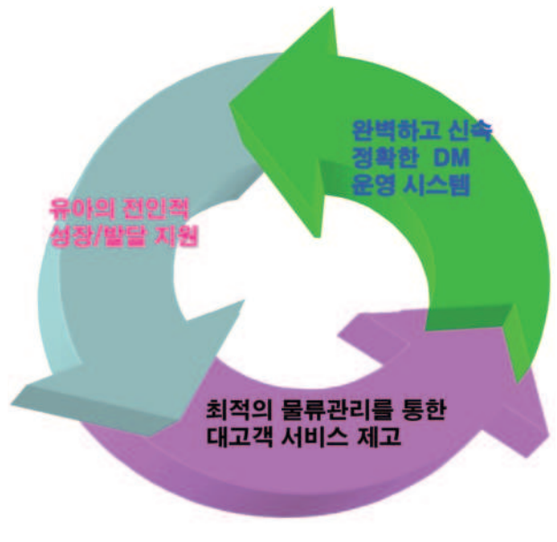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래 31년 동안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불교의 길을 묻는 언론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이제 AI시대라는 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고, 불교계의 AI 논의와 윤리 기준 마련에 함께하며, 불교의 지혜가 사회를 밝히는 길잡이가 되도록 앞장설 것이다. 그것이 곧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이루는 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5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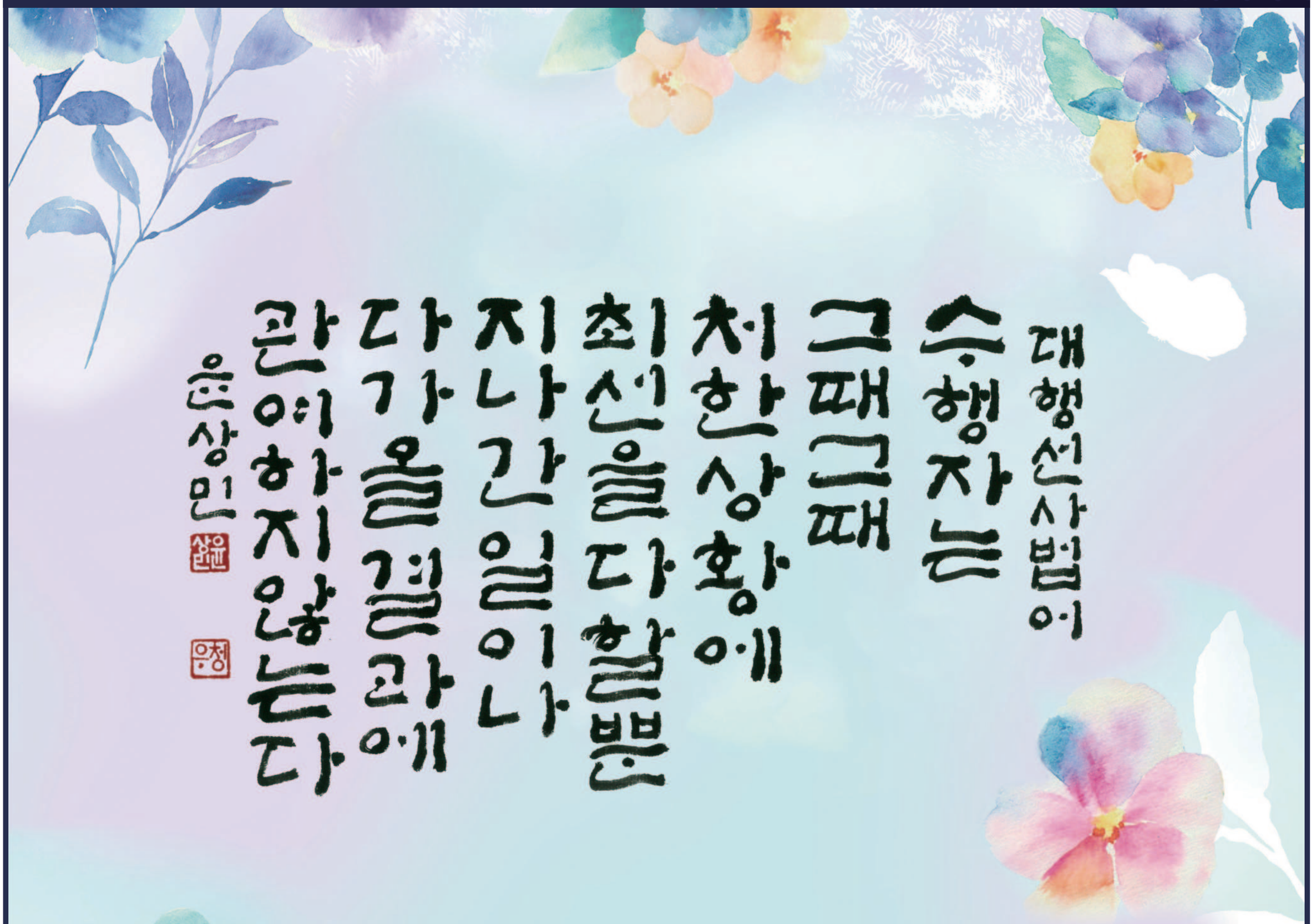
덕성기획㈜는
DM 및 물류 사업을
고객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신현준**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10303 Burke Lake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854 Riverwoods RD. Mettawa, IL 60045, USA
TEL:(1-224)632-0959 E-mail: hanmaumchicago@gmail.com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070-7554-1402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91169-556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

현대불교 31 창간 31주년 1994-2025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제 1550 호 B1

AI & 미래불교



‘AI’가 그려낼 미래불교 핑크빛일까 회색빛일까

2025년 10월 현재, 인공지능(AI)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조직 구조와 업무 문화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학교에서는 교육 콘텐츠 제작과 과제 해결의 파트너로, 미디어 제작자들에게는 창작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써 활용 중이다.

불교계도 ‘AI 전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 중이다. 조계종 등은 지난해부터 ‘열암곡 마애부처님 AI’, ‘고민상담소 스님 AI’ 등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등에서 선보였고, 본지도 올해 4월 AI 기술을 활용한 불교상담봇 ‘해심이’(解心)를 공식 오픈했다. 이 같은 불교 신행상담봇은 전세계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AI가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에 따른 번뇌도 빠르게 진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생성형 AI를 통한 가짜뉴스·미디어 콘텐츠들이다. 불교계도 이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유튜브와 SNS에는 비불교적 콘텐츠들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그렇기에 AI의 바른 활용을 위한 윤리 선언과 가이드라인 구축·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는 인간을 비추는 ‘인과의 거울’이다. AI가 학습하는 대부분의 정보와 알고리즘은 인간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결국 ‘AI’라는 첨단기술이 그려낼 미래의 색깔이 어떤 색일지는 인간에게 달렸다.

글 · 삽화 AI 디자인=신중일 기자

B2 불교 AI 활용 어디까지 왔나
B3 비불교 AI 콘텐츠 범람, 대책은
B5 AI 윤리, 불교가 나서야
B6 · 7 AI 전문가 좌담회
B10 · 11 AI 그림 공모전 수상작

AI&미래불교

1 불교AI 활용 어디까지 왔나

불교, AI와 만나다…법문·상담·경전 보존까지 확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인공지능(AI) 물결이 종교계에도 밀려들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화·온라인 법회 수준에 머물던 불교계가, 최근에는 대화형 챗봇·아바타, 로봇 설법, 경전 디지털 아카이브 등 다양한 AI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전통과 교학의 정합성 문제, 의례의 본질에 대한 논쟁도 뒤따르지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인 불교가 최신 기술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 흐름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상담 · 법문하는 '스님AI'…국내 불교계의 실험

한국 불교계는 조계종 등 종단이 적극 합류해 AI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 4월 개최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선보인 '열암곡 마애부처님 AI'는 고민 상담형 챗봇으로 사용자가 일상 고민을 입력하면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8월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민상담소 스님AI' 서비스가 선보여졌다. 법문 제공, 고민 상담, 경전 학습 보조 기능을 결합한 온라인 AI 플랫폼으로, 진짜 스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은 할수 있겠다는 것이 대중의 평가다. 전통적 설법이나 마음을 전하는 상담을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MZ세대에게 불교의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불교 언론도 AI 상담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현대불교신문은 올해 4월 AI 기술을 활용한 불교상담 서비스 '해심이'(解心)를 공식 오픈했다.

'해심이'는 구글의 제미나이 무료버전과 구글 AI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불자 맞춤형 신행 상담은 물론 마음 치유, 명상, 수행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불교신문 뉴스사이트 현불뉴스(hyunbulnews.com)에서 상담봇 아이콘을 누르면 별도의 상담창을 통해 제공된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 부스에서 '해심이'를 직접 체험한 참관객들은 "해심이가 생각보다 위로를 잘 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 이모티콘도, 인터넷 용어도 잘 활용한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부스 라운딩 중 해심이를 접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불교대중화에 앞장서는데 한 몫 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세계 곳곳의 AI 불교

해외에서의 불교 AI 활용은 더욱 다채롭다. 부탄 중앙승가와 교토대가 공동 개발한 'BuddhaBot'은 올해 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영어 기반 질의응답과 스님들의 교학 학습을 지원하며, 향후 3년간 약 200명의 스님이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미국 선종 커뮤니티는 'Roshibot'을 제작했다. 선사 슌류 스즈키의 법문을 학습해 선 수행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됐다. 일본 고다이지(高台寺)에서는 '마인다르(Mindar)'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음상 형상을 빌려 설법을 시도한다. 손짓과 제스처까지 구사하며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큰 화제를 모았다.

태국의 'Phra Maha AI'는 SNS 기반 가상 승려로, 청년층 대상 불교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불교의 교리를 버추얼 인플루언서 형식으로 전달하는 실험은 기존 사찰 중심 교화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방대한 경전 기록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도 AI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고민상담 챗봇 개발 봇물
본지 '해심이' 박람회서도 인기

세계 각국서 경전 지원 AI 개발
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어

오류 편향 확대 막기 위해서는
교단 · 학계 협력 품질 관리 해야

티베트·범어·한문 경전의 디지털화는 이미 국제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 중이다. 불교디지털리소스센터(BDRC)는 티베트어 OCR 앱을 공개해 스캔본을 텍스트화하고 번역·검색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도장(관인) 인식 AI로 대량 자료를 자동 분류하는 기술도 도입됐다.

대만 불교전자불전협회(CBETA)는 중국 대장경 전산화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석경(비문) 텍스트까지 확장하면서 연구 저변을 넓혔다.

국내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문헌·고신문에 AI-OCR을 적용해 불교 자료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불교 기록문화 아카이브와 K-Buddhism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한글 불교문화유산을 디지털화했고, 생성형 AI 기반 불교 콘텐츠 제작에도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가 정법을 전할 수 있을까?"

AI를 활용한 설법 로봇과 사이트가 점점 활기를 띠며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I가 수행의 깊이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도 일고 있으면서 일각에서는 "로봇의 설법이 인간적 공감과 수행적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쟁점은 교학적 정합성과 권위 문제라고 말한다. AI가 오류를 일으킬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 로봇 장례와 설법 실험은 인간적 공감과 의례의 진정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경전 데이터의 저작권·번역 차이 문제도 신뢰성을 위협한다. 불교계 내부에서 AI의 역할을 '보조 도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교계 AI 활용의 방향을 '도구적 수용'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I는 상담·포교·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일 수 있으나, 정법 전승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검증 체계 구축 △교단 차원의 윤리 가이드 라인 마련 △데이터 정본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한 AI 전문가는 "커뮤니티 주도형 챗봇이 난립하면 오류와 편향이 확대될 수 있기에, 교단·학계 등이 협력해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절한 검증과 윤리적 장치를 전제로 한다면 AI는 불교가 현대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효찰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 지 성효
사부대중 일동
(18347)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36(송산동)
(031)234-0040/팩스(031)234-2818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AI&미래불교

2 비불교 AI 콘텐츠 범람, 대책은

‘디지털 大妄語’ 막아낼 ‘AI 리터러시’ 구축을

〈대망어〉

근거 없는 선지식 예언 지어내
국뽕 · 정치인 지지 콘텐츠 양산
AI 대중화로 1인 미디어 확산
조회수 높이고자 자극에 몰두

“비불교적 콘텐츠…망어 양산
바른 법 전하고 배움 노력을”
유해신고센터 운영 · 제재해야
디지털 리터러시 배양도 필요



탄허 · 성철 스님 등을 활용한 가짜 정보 유튜브 콘텐츠 섬네일들.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조회수를 노린 비불교 · 유사불교 콘텐트들도 범람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탄허 스님 충격 예언 100% 적중! 해인사 대적광전에 80년 전 봉인돼 있던 예언서 〈화엄미래기〉 드디어 공개, 전세계 과학계 경악’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미디어콘텐츠 제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내용은 더 가관이다. 해인사에 봉인돼 있던 탄허 스님의 예언서 〈화엄미래기〉가 공개되고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제임스 위튼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이를 보고 우주의 비밀과 동양 철학의 위대함을 깨닫는다는 소위 ‘국뽕(국가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이나 맹목적 애국심에 도취된 상황)’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는 전부 가짜다. 온갖 가짜 정보를 그럴 듯하게 각색해서 제작한 소위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부정하게 일을 만들어내는 행위) 콘텐츠’다.

문제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다. 주작 콘텐츠임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적지 않는 사람들이 ‘평생 절에 다니면서도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한 영상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정말 소름 돋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위대한 분이 계셨다니.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줘야겠어요’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는 선지식에 대한 가짜 정보들로 이뤄진 가짜 콘텐츠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AI 1인 미디어의 명과 암

현재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는 ‘탄허·성철·법정 스님과 그 제자들의 확인되지 않는 예언, 비기가 발견됐고 이를 보니 한국 국운 융창, 특정 정치인이 대세가 된다’는 류의 콘텐츠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작 콘텐츠들이 확산될 수 있는 이유는 생성형 AI의 대중화가 있다. 생성형 AI를 통해 누구나 쉽게 대본을 쓰고, 나레이션을 녹음하며 이미지와 영상을 합성·제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 미디어 콘텐츠는 작가, 촬영, 편집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작하는 자본·노동집중형 사업이었지만 현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1인 미디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 제작의 장벽을 낮춘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정보를 취급함으로서 ‘가짜정보’와 ‘확증편향’을 확산시키는 문제도 낳았다.

AI제작 콘텐츠의 대중화로 인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23년에는 온라인상에 태국 승려들이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해 광란의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 레이싱 경기장에서 헬멧 등 장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태우는 승려 등이 담긴 AI 이미지들이 유포돼 태국 불교협회가 “해당 사진들이 대중들로 하여금 진짜 스님들이 일탈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해 불교 평판을 저해시킨다”고 우려하며 문제가 된 사진들을 전부 삭제하고 유포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도파민 저수지’에 빠진 대중들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유튜브는 창작자들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전문적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 의견을 개진하거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적인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며 알고리즘에 선택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 구도가 나타났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디지털 크리에이터 사업체 수는 1만 3514개, 종사자는 4만 2000여 명이며, 시장의 총 매출액은 5조 315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20%가량을 성장한 수치다.

시장은 20%씩 성장하지만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2022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익을 신고한 사업자 3만 9000여 명의 연간 총수입은 1조 1420억원, 이중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이 총수입의 30%(3333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튜브나 여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부 상위권 크리에이터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크리에이터들은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해 거짓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와 주작 콘텐츠를 양산하며 더욱 자극적인 정보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알고리즘을 통해 내 입맛에만 맞는 정보들을 편향적으로 접하고 자신의 믿음이 확인될 때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확증편향+도파민’ 매커니즘은 이런 악순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을 ‘도파민 저수지’로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불교 · 망어의 업이 넘쳐난다

불교까지 넘어온 가짜·유사불교 콘텐츠들에 대해 동국대 WISE캠퍼스 겸임교수 법장 스님은 ‘디지털 대망어(大妄語)’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장 스님은 “탄허 스님과 성철 스님 등 고명한 선지식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적도, 가르침을 주신 적도 없다. 예언이라는 것은 결정론인데 이는 불교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들 영상들은 비불교적인 콘텐츠”라며 “불교적 이해도 없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현혹해 망어의 죄를 범하고 있다. 영상 속의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욕망적인 탐·진·치의 파순에 사로잡혀 정작 눈앞의 법은 못보고 눈앞의 업에만 빠져 번뇌만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을 바르게 살며 자신의 행위로 그 삶을 바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부터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셨던 결정론적인 업에 의한 삶을 바꾸는 비밀”이라며 “불교의 바른 법에는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지금의 삶과 행위에 의해 다음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지나간 찰나는 과거가 될 뿐이다. 그렇기에 오직 할 뿐이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정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적 제재와 리터러시 능력

넘쳐나는 가짜·비불교적 콘텐츠를 제재하는 방법은 없을까. 제도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 자체적으로 심의 규정을 두고 가짜뉴스·콘텐츠 등을 제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콘텐츠들의 문제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 규제 방침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불교계 내부에서도 가짜 정보를 담은 비불교·유사불교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응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본지 뉴미디어 자문위원)는 “종단적으로 비불교·유사불교 콘텐츠 등 유해콘텐츠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종단 구성원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고된 내용은 법적 심의 거쳐 플랫폼 사업자에 진정을 넣어 해당 콘텐츠들과 채널·사업자들을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콘텐츠 시청 여부는 1차적으로 개인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인 만큼 불자 개인의 ‘디지털(AI) 리터러시(정보 문해력)’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교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적 영역에 해당된다. 개인 스스로 이 정보가 팩트에 가까운 것인지에 대한 이중 체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우선 제도권 언론들의 정보를 두루 찾아보며 크로스 체크하는 노력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적으로도 불자 개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고양할 수 있는 교육 등도 추진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장 스님은 바른 법을 만날 수 있도록 종단과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제안했다.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의 ‘사람의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는 더 어렵다(人生難得佛法難逢)’는 구절을 인용하며 “불교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려 했다면 부처님 가르침이 궁금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법(正法)을 만나려는 노력을 개인 스스로도 해야 한다. 종단 홈페이지나, 공인된 불교계 언론 등을 찾아서 정보들을 확인하며 불교를 바르게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 사부대중 역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일반 대중들이 비불교·유사불교 콘텐츠를 접하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전법·포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제4회
생명나눔대상
후보 공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한해동안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온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뜻깊은 상의 주인공이 될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 면
생명나눔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 성명용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선정기준
· 대 상 : 생명나눔 전 부문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홍보상 : 언론/출판/문화 분야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생명상 : 장기, 인체조직,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나눔상 : 봉사 활동, 기부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상 금

구 분	인 원	시상내역
대 상	1	상패 및 상금 500만원
홍보상	1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생명상	1	상패 및 상금 100만원
나눔상	1	상패 및 상금 100만원

공모기간
25. 10. 01(수) ~ 11. 5(수)

접수방법
· 제출 서류 : '제4회 생명나눔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서식' (생명나눔실천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 방법 : 우편 혹은 이메일 제출 (lisa@lisa.or.kr)
· 주소 : 0315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406호
· 문의 : (02) 734-8050

발표일정
· 수상자 발표 : 2025. 11. 7 (금) 예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수상자 개별 안내)
※ 시상식 : 2025. 11. 22.(토) 중랑구청 강당

역대 대상 수상자 안내


제1회 (故)박원순 서울시장


제2회 배우 수지


제3회 윤근향 이사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 043)877-29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스님

사부대중 합장

보시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수 있고 자식들에게는 햇빛을 줄수 있고
뿌리를 길러 줄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다
–대행선사 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AI&미래불교

3 AI 윤리, 불교가 나서야

“연기법 등 불교 사상, AI 윤리에 바람직한 토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올해 4월 1일 출범한 조계종 조계종연구소가 7월 9일 서울 아미드호텔에서 ‘조계종연구소 출범 의미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종단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일상과 산업 구조 전반을 빠르게 바꿔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불안은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라는 현실적 우려에서부터 ‘기계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지는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치와 존엄, 생명의 가치 등을 깊이 성찰해 온 종교계야말로 AI 윤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교계가 AI 시대 윤리를 제시할 적임자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세계 각 종교가 AI 시대에 걸맞은 ‘윤리선언’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가톨릭의 ‘로마 AI 윤리 원칙’

AI 윤리선언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가톨릭이다. 교황청은 2020년 인간다움과 도덕관, 윤리의 상실을 막기 위해 AI 활용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로마 AI 윤리 원칙(Rome Call for AI Ethics)’을 제안했다. △투명성(Transparency)-AI 기술은 기본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포함(Inclusion)-AI 기술의 발전이 전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 △책임(Responsibility)-AI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 책임지고 수행할 것 △공평성(Impartiality)-편견이나 차별에 근거해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하지 말 것 △신뢰성(Reliability)-AI 기술이나 서비스는 신뢰성을 갖출 것 △보안과 프라이버시(Security and Privacy)-AI 기술은 보안을 지키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할 것 등 6가지 원칙이다.

교황청은 최근에도 AI가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문헌 ‘옛 것과 새 것(Antiqua et Nova)’을 공개하고,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이 인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청은 AI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에 깊이 우려하며 “AI는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 낸 산물일 뿐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AI는 인간의 지성을 보완하는 도구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5월 취임한 교황 레오 14세도 즉위 직후부터 AI 규제 및 윤리 수립을 주요 과제로 삼아 활발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그는 “과학 발전이 오만하게 인류를 해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 “교회의 2000년 사회 교리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와 규범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 이슬람도 대응 활발

개신교 역시 AI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성경적 가치와 신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AI 활용에 있어 경계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2019년 미국 남침례교 공공정책 부서인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는 선언문 형태로 발표한 ‘인공지능에 대한 복음주의적 원칙’을 통해 AI가 인간의 신앙·가치·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장로교(PCUSA)도 2023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AI 연구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지침과 윤리적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유럽교회협의회(CEC)는 2019년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적법성, 윤리성, 투명성, 다양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교회도 윤리적 지침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기독교학회는 올해 초 홈페이지를 통해 ‘AI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기독교학회 성명서’를 공지했다. 성명서에서는 “AI 시대 교회와 신학은 도래할지도 모르는 기술의 위험으로 인한 파국과 묵시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윤리적 가치와 복음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준칙을 명시했다.

가톨릭 등 ‘AI 윤리선언’ 잇따라
인간 존엄 보호 공통적으로 담겨

한국불교는 선언 · 지침 미비 실정
조계종연구소 출범 세미나서 물꼬
자비 등 담긴 선언문 필요성 제기

이슬람권에서도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교육문화과학기구(ICESCO)는 2024년 AI의 윤리적 발전을 중점으로 한 ‘리야드 AI 헌장’(Riyadh Char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했다. 이슬람 문화권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 AI 기술 개발을 위해 종합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가톨릭·개신교·이슬람 등 각 종교계의 AI 윤리선언은 표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인간의 존엄성 보호 △종교 고유의 신앙과 가치 반영 △인간의 삶과 역할을 보완·지원하는 수단으로의 활용 △사회 전체 공동선을 위한 분배라는 원칙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불교계의 AI 윤리 지향점

불교계에서는 AI를 포교나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AI 윤리에 대한 구체적 선언이나 지침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AI시대 윤리 논의에 적합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緣起) 사상은 AI 활용에서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기술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되고, 사회 전체와 생명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삼독(三毒, 탐욕·분노·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가르침도 AI 개발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권력 남용과 데이터 편향, 불평등 심화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

다행히 조계종은 최근 AI 시대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올해 7월 조계종연구소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AI부디즘연구소 소장 보일 스님은 ‘AI시대와 불교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불교계가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개발-자료 구축-현안 대응-교육 및 홍보’의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단 차원의 싱크탱크를 통해 기술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특히 불교는 오랜 역사와 깊은 정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라는 점에서 AI시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지혜·중도·연기는 시대와 문명을 넘어서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어, 이를 오늘의 기술 환경에 맞게 해석하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일 스님은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AI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며 “기술이 주는 편의와 효율성 이면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 질문, 사회적 불균형, 윤리적 공백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 불교가 이에 침묵한다면 자비와 지혜의 종교로서 본분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오랜 세월 축적된 불교의 지혜는 복잡한 기술 윤리를 성찰하는 데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불성·연기·무아의 가르침은 AI 윤리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AI 윤리 선언은 인류 공동체를 향한 불교적 자비 실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일 스님은 ‘불교 윤리 선언문’에 담아야 할 핵심 가치로 중생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자비로운 개발’,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인간 존엄성 수호’, 중도 정신에 따른 ‘지혜로운 활용’, 전체적 조화를 추구하는 ‘상호 의존’, 속도와 시장 선점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경쟁 지양’, 사회적 약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적 실천’ 등을 제시했다.

당시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을 연구소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덕안 스님은 “AI는 이미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이라며 “이젠 단순 활용을 넘어 그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에 지나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종속되기보다, 어디까지나 도구로써 올바르게 사용해 인류와 사회에 해롭지 않게 활용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사부대중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AI시대, 불교의 지혜로 길을 묻다

AI와 미래불교

신행 · 수행 · 포교 변화 이끄는 AI 기술
'바른 앎' 담고 한계 · 역할 분명히 해야
불교적 방향 제시할 'AI 윤리선언' 필요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1주년을 맞아 'AI와 미래불교'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공지능(AI)은 산업 · 교육 · 문화 · 예술 등 사회 전 분야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종교도 예외일 수 없다. 불교의 전통적 수행 · 교화 방식은 물론 신행 · 수행 · 포교 패러다임까지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AI시대,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9월 12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보일 스님(AI부디즘연구소장)과 지승도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명예교수,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 박훈 현대불교 뉴미디어 자문위원이 참여해 AI와 불교의 만남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좌담회에서는 종교계의 AI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수행 · 전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짚고 불교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AI시대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AI 개발과 활용에 반영될 수 있는 '불교 AI 윤리선언'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 전문은 현대불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사회=여수령 편집국장 · 정리=신중일 기자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불교 AI 윤리선언은 불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담아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승도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명예교수

"AI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 바른 앎을 심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

"불교계는 AI가 인간 존엄을 훼손하지 않고, 공존·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박훈 현대불교 뉴미디어 자문위원

"단계적 AI 활용 지침 마련은 불교를 넘어 사회의 AI 윤리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AI스님, AI목사의 등장

▶**사회자:** AI는 예상보다 빠르게 종교와 만나고 있다. 법회나 예배 준비에 도움을 받는 수준을 넘어, AI가 직접 법문이나 설교문을 작성해 의례를 집전하고, 나아가 'AI붓다', 'AI예수'도 운영되고 있다.

▶**보일 스님:** 'AI스님'이라는 표현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배경과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단순히 흥밋거리로 치부할 수 없는 주제다. 일본 교토의 고다이지(高台寺) 사찰에서는 '마인더(Mindar)'라는 로봇이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져 신도와 방문객들에게 기본적인 설법을 전한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방문객들이 로봇 앞에서 합장하고 경청한다는 사실이다. 종교적 신심이 로봇을 향해 나타난 것이다.

중국의 여러 사찰에서도 'AI스님'이 운영되고 있다. 신도들이 휴대전화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불교 경전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가 디지털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사례는 준도 코엔(順道公円) 스님이 2024년에 행한 'AI 수계식'이다. 당시 스님은 가상의 존재에게 상징적으로 의식을 거행했다. 이는 "AI도 승려가 될 수 있는가?", "AI에게 계를 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불교 정체성과 전통을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전통적으로 불교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수행과 제도를 변용해 왔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또 한국과 일본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맞추어 제도가 조정됐다. 'AI스님' 담론은 이러한 불교의 유연성을 다시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승도:** AI를 단순히 인간과의 차이로만 구분하는 접근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질문은 "AI는 어떤 앎을 가진 존재인가?"이다. 불교에서 앎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앎은 지혜와 연결되고,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를 산출한다. 그것이 단순 계산인지, 의미의 구성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해석이나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교적으로 AI를 어떻게 봐야 할까?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형성되고 변한다. AI 역시 데이터라는 조건 속에서 인식 구조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처럼 감정이나 자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AI는 종교적 사유를 자극한다.

즉, AI를 단순히 도구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것이 불러오는 새로운 사유와 가능성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양자역학이 인간 존재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촉발했듯, AI도 종교적 존재론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화행:** 이미 불교계 내부에서도 AI를 활용해 경전을 요약하거나 법문 초안을 만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범용 인공지능(AGI)이 현실화되면,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종교적 주체로까지 인식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교가 교리적 원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AI가 법문한다면 그것을 단지 참고로 볼지, 교리적 권위를 인정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불교계는 지금부터라도 AI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인간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되, AI와 공존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박훈:** 'AI스님' 담론은 종교적 층위와 사회적 층위로 나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적 층위에서는 "AI가 계를 받을 수 있는가?", "AI가 설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는 불교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승려가 된다는 것은 불교적 지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지키며 공동체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AI에게 계를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곧 불교 승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사회적 층위에서는 책임과 권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AI가 잘못된 상담을 제공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 설법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제조사와 운전자, 혹은 프로그램 개발자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논란이 된 것처럼, AI 종교인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AI스님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이분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신도들이 AI와 접촉하는 현실 속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신행 · 포교 방식 변화

▶**사회자:** AI스님이나 AI목사의 등장이 신행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일 스님:** 먼저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불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법문을 듣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신도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

불교는 지식만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다. 절에 모여 함께 법회를 하고, 수행과 예불로 공동체적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법당에서 스님과 눈을 맞추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 쉬는 경험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불교계는 AI의 장점을 취하되, 공동체 신행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낼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승도:** 공동체가 단절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사찰들이 온라인 예불과 법회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신도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공동체적 경험을 이어갔다. AI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AI가 제공하는 내용의 질과 정확성이다. 불교 수행은 바른 앎과 지혜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화행:** AI의 도입은 세대별 신행 방식의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기에 AI 설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B7면에 계속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 연 스님
사부대중 일동

지혜란 나를 세우지 않는 마음이다. – 대행선사 법어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자비·지혜 담은 불교 AI 윤리선언

B6면에 이어

반면 기성세대는 여전히 스님이 직접 전하는 법문을 선호한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불교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불교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박훈:** 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AI는 신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적 상담과 수행은 인간적 체험과 공동체적 연대가 핵심이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전통적 수행과 공동체 신행의 가치를 잃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상담도 수행도 AI로

▶**사회자:** 코로나19 이후 명상 앱이나 AI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보일 스님:** 이미 많은 이들이 AI를 통해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고 있다. 연애, 직장, 가족 문제와 같은 사적인 고민은 물론이고, 삶의 의미나 죽음과 같은 철학적 질문도 AI에게 던진다. 조사에 따르면, AI 사용자 10명 중 7명은 '인생 상담'을 목적으로 AI를 활용한다. AI가 지식 검색을 넘어, 정서적 의존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계도 몇 년 전부터 챗봇 상담이나 명상 앱을 도입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상담과 수행은 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동안은 스님과 직접 만나 상담하고,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며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속 AI와 대화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변화를 외면한다면 신도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화행:** 특히 젊은 세대는 AI를 일상적인 대화 상대이자 정서적 상담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교는 이러한 변화를 불교 친화적으로 접목해야 한다. 예컨대 불교 교리에 기반한 상담 챗봇, 불교 수행 전통을 반영한 명상 앱은 충분히 가능하며 신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박훈:** 불교에서 상담과 수행은 지혜와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AI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그것이 곧 지혜라고 볼 수는 없다. 불교적 상담은 내면을 성찰하고, 삶을 바르게 바라보는 지혜를 키우는 과정이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호흡법이나 명상법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수행자는 직접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스님과의 상담이나 직접 수행과 병행되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지승도:** AI 상담의 가장 큰 한계는 정확성과 검증 문제다. 불교 상담은 바른 앎과 바른 논증을 전제로 한다. AI 상담을 도입하더라도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AI 상담의 답변을 일정 부분 검토하고, 오류 가능성을 신도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9월 12일 현대불교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종교계의 AI 활용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고 불교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김내영 기자

신행공동체 '재구성'

▶**사회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보일 스님:** AI 상담과 수행의 확산은 신도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신도들도 언제든 스마트폰을 통해 상담과 명상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불교 포교와 신행 확산에 긍정적일 수 있다. 동시에 공동체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화행:** 공동체가 단절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될 것이라고 본다. 이미 온라인 법회와 메타버스 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 상담과 수행은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박훈:** 저 역시 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한다. AI 상담이 보편화되면 신도들이 절에 오지 않고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절과 스님의 역할을 축소시킬 위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절은 AI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 즉 수행 체험과 공동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승도:** 공동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AI 상담이 지나치게 확산되면, 신도들이 깊은 수행보다는 즉각적 답변에 의존하는 습관을 보일 수 있다. 불교적 지혜 추구와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AI의 장점을 살리되, 그 한계와 위험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AI 리터러시 · 가이드라인 구축

▶**사회자:** AI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불교계는 어떤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와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나?

▶**보일 스님:** 기술적인 차원은 전문가들이 주도할 문제다. 하지만 불교계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철학적·윤리적 방향성이다. 불교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볼지, 아니면 하나의 새로운 주체로 인정할지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아(無我) 사상은 AI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AI가 자아를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자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든다.

결국 불교계는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 AI시대에 불교적 수행과 공동체의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리터러시를 기술 교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철학적·윤리적 성찰과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화행:** 종단 차원에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불교대학 교양과목에 'AI 이해와 활용'을 포함하고, 사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AI를 잘 쓰자'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담아야 한다. 첫째, AI는 상담과 수행을 돕는 보조 도구이지 수행의 주체가 아니라는 원칙이다. 둘째,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신도 교육을 통한 리터러시 확산이다.

AI는 종교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불교계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불교의 자비와 상호 의존의 가르침은 AI시대의 윤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지승도:**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질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에, AI 상담이나 법문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지를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불교 논리학의 방법론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AI가 제공하는 답변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계의 AI 리터러시는 불교 전통의 철학과 논리학을 접목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불교계가 기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박훈:** 불교계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리터러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기본적인 AI 활용 능력을 익히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 2단계는 공동체적 합의와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영역은 제한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단계는 수행과 깨달음의 촉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불교 AI 윤리선언

▶**사회자:** 각 종교계는 AI의 발전 방향성과 사용 방식에 대한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보일 스님:** AI는 이미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AI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결과 왜곡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온다.

불교의 무아 사상은 AI 논의와 긴밀히 연결된다. 불교는 본래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마치 AI가 자아를 가진 것처럼 인식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불교계는 이러한 위험성을 경계하고, 균형 있는 윤리 담론을 선도해야 한다.

'불교 AI 윤리선언'은 불교적 가치와 세계관에 기반한 적극적 원칙을 담아야 한다. 예컨대 'AI는 수행의 도구로서만 활용된다', 'AI는 자비와 상호 의존의 가르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AI는 인간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공존을 증진해야 한다' 같은 원칙이다.

▶**지승도:** AI 윤리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 안에 어떤 앎을 담을 것인가'이다. 불교 전통은 바른 앎[正知]을 강조한다. 따라서 '불교 AI 윤리선언'은 'AI 안에 바른 앎을 심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야 한다. 불교 논리학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AI 학습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화행:** '불교 AI 윤리선언'은 종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규범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 발전해야 한다. 윤리선언은 AI가 인간 공동체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공존과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선언은 국제적 협력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박훈:** 앞서 언급한 AI 활용 방식과 같이 단계적 합의와 보편적 지침이 담겨야 한다. 1단계에서는 AI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상담이나 교육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반드시 스님의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AI를 포교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교적 가치와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불교계가 사회적 윤리 논의에 참여한다. 불교적 가치, 즉 자비와 상호 의존, 무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AI 윤리 규범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AI와 불교' 논의 이어지길

▶**사회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일 스님:** 앞으로 AI와 관련해 나름의 책임감으로 역할을 찾고, 더 지혜로운 생각들을 모아내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

▶**이화행:** 인류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불교도 AI와 더불어 재탄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승도:** 불교계가 기술과 과학 발전을 받아들이고 접목한다면 불교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훈:**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 내기에, 수행·학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알본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 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시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철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청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게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보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fss.or.kr) : 국번없이 1332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2025-09-23~2026-09-22)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 8017-1010 ⓕ 8017-1011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 :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 (법왕궁) -남걀사원, 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50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1월25일 출발 ~11월30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출발일 : 11월26일 출발 ~12월03일 도착(8일간)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 -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69만원

남미여행 5개국 18일
페루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칠레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빙하, 브라질 이과수폭포,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 관광지
출발일 : 3월06일~3월23일
▶ 동참금 : 1690만원(11월30일까지 신청시 이후는 1790만원)

동유럽 5개국 11일
동유럽 5개국 헝가리-크로아티아(드브로브니크 포함)-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체코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멋진 코스입니다.
출발일 : 6월01일~6월11일
▶ 동참금 : 549만원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테 여행 10일
돌로미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7월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환상적인 여행 일정입니다.
출발일 : 7월09일~7월17일
▶ 동참금 : 749만원

남프랑스 힐링여행 12일
니스-모나코-액상프로방스-아비뇽-아를-카르카손 등
아름다운 남프랑스만 여행하는 최상의 힐링여행
출발일 : 4월30일~5월11일
▶ 동참금 : 79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출발일 : 6월16일~7월01일
▶ 동참금 : 570만원

현대불교신문

AI 그림 공모전

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207명 응모…대상 등 16작품 선정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주최한 '2025 현대불교신문 AI그림 공모전'이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최초로 열린 AI 창작 공모전으로, 불교적 사유와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공모 주제는 '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이었다. 부처님이 오늘날 우리 곁에 계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지를 AI라는 새로운 창작 도구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공모 기간은 8월 4일부터 29일까지였으며, 총 207명이 응모해 불교와 디지털 예술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줬다.

심사 결과, 대상은 김하림 씨의 '戰火에 피어난 연화 - 無言의 관세음이 전하는 자비'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송찬호 씨의 '디지털 윤회(輪廻) 속, 영원(永遠)을 응시하는 시선'과 김다현 씨의 '멈춤의 공空간'이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 등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김하림, '戰火에 피어난 연화 – 無言의 관세음이 전하는 자비'

심사 총평

"불교문화 새 가능성 보여 줘"

심사는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맡았다.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박훈 현대불교 미디어 자문위원,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양경수 웹툰 작가,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AI 활용도 △예술성 및 완성도 △대중성이었으며, 작품에 담긴 불교적 메시지와 현대적 감각을 고르게 살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공모전으로 불교가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시대와 호흡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이러한 시도가 이어져 불교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래 총장은 "AI를 활용해 불교 콘텐츠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모전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AI가 새로운 차원의 불교를 펼쳐가는 협업의 동료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박훈 자문위원은 "작품의 불교적 가치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창작과 표현의 장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새롭게 형상화하고 나누는 과정이야말로 불교가 현대 사회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은 적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제와 잘 부합하고 높은 작품성을 보여 준 작품들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양경수 작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의 불교·부처님·불국토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에 심사의 중점을 뒀다"며 "세련되고 힙(Hip)한 작품이 많아 불교문화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는 "창의적이고 의미 깊은 작품들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송찬호, '디지털 윤회(輪廻) 속, 영원(永遠)을 응시하는 시선'



김다현, '멈춤의 공空간'

우수상



송기현, '21세기의 부처님, 여행 유튜버'



전수빈, '폐허 속의 자비'



박영규, 'UN 평화대사 부처님'

장려상



임우진, '새로운 형태로 모두의 마음에 스며드는'



정현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양(供養)'



조이환, '자비의 등불, 얼음 위에 피다.'



김기현,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시는 부처님'



윤민지, '연기의 클럽(Buddha Bounce)'



송우석, 'ZEN 2.0'



조환희, '셰프 부처님 – 2600년 경력의 요리사'



김재원, '케이팝 무대 위에 선 부처님'



김진민, '부처님의 발걸음'



임병진, '부처의 꽃집'

수상자 소감

"불교 가르침 쉽게 전달할 기회"



본지 한명우 대표가 대상 수상자 김하림 씨(사진 오른쪽)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수상자들은 누구나 쉽게 불교를 주제로 창작할 수 있는 장이 열린 데 감사를 표했다.

대상 수상자 김하림(39, 전북 군산) 씨는 "오래전부터 불교의 가르침이 전하는 진리에 마음을 기울여 왔다"며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도구는 저에게 공(空)과 연기(緣起)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창(窓)이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된 것은 그 길 위에서 만난 큰 인연이자 축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대불교 독자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불교적 사유와 예술의 가능성을 널리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우수상 수상자 송찬호(33, 대전) 씨는 "수상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다현(22, 전북 익산) 씨는 "작품이 너무 단순하게만 보일까 걱정했는데, 제가 담은 불교적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아 다행"이라며 "많은 분이 '21세기 부처님'을 보며 '멈춤의 공(空)간'을 실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씨는 "AI그림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최한 현대불교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수상자 명단

대 상 1명

김하림, '戰火에 피어난 연화 – 無言의 관세음이 전하는 자비'

최우수상 2명

송찬호, '디지털 윤회(輪廻) 속, 영원(永遠)을 응시하는 시선'

김다현, '멈춤의 공空간'

우수상 3명

송기현, '21세기의 부처님, 여행 유튜버'

전수빈, '폐허 속의 자비'

박영규, 'UN 평화대사 부처님'

장려상 10명

임우진, '새로운 형태로 모두의 마음에 스며드는'

정현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양(供養)'

조이환, '자비의 등불, 얼음 위에 피다.'

김기현,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시는 부처님'

윤민지, '연기의 클럽(Buddha Bounce)'

송우석, 'ZEN 2.0'

조환희, '셰프 부처님 – 2600년 경력의 요리사'

김재원, '케이팝 무대 위에 선 부처님'

김진민, '부처님의 발걸음'

임병진, '부처의 꽃집'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회 주 상 진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벽 산
교 무 효 능
서 무 효 진
원 주 일 겸
대 중 효 성, 일 준
수 호, 수 담, 일 월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해 경
효 능
류기석
최종남
감 사 최인귀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